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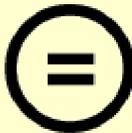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의
인용표현 의미 기능 사용 양상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양양(楊洋, YANG YANG)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의 인용표현 의미 기능 사용 양상 연구

지도교수 구 본 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양양

양양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사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며, 인용은 의사소통의 핵심인 상호작용성을 향상시키는 표현이기에 한국어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고 모든 한국어 교재에서 인용표현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은 인용표현에 대한 학습 정도가 낮아 실제 생활 속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이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인용표현의 복잡한 형태와 다양한 의미 기능 때문이다. 따라서 인용표현에 대한 교육 연구가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 기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인용표현의 형태적 정확성만을 강조했으며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의미 기능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II장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고의 연구 대상인 인용표현의 개념 및 범위를 의미적과 형태적 측면에서 밝혀냈고 인용표현의 다양한 분류 체계를 설명하였으며 인용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및 구조를 알아보았다. 다음은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인용 형식에 따라 간접인용표현과 직접인용표현으로 구분하였으며,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의 경우는 원발화자에 따라 다시 자기 인용, 상대방 인용, 제3자 인용으로 나누어 다양한 의미 기능이 드러나는 상황에서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III장에서 쓰기 텍스트 형식의 담화완성형 과제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 및 모어 화자 각각 40명, 총 120명을 대상으로 인용표현 의미 기능에 대한 사용 양상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측면에선 양적 분

적으로 설정된 상황 속에서 각각의 연구 대상 집단의 인용표현 수용도를 확인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집단별 인용표현 사용 빈도수를 제시했으며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의미를 검증하였다. 두 번째 측면에선 질적 분석으로 학습자들이 담화를 완성할 때 보여주는 중간언어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문법 표현 과정에 따라 ①개념화 부족 또는 의도적 회피로 인한 인용표현 누락 양상, ②인용표현 형태를 갖췄으나 비체계적인 부호화 양상, ③충분한 개념화 및 적절한 부호화가 이루어진 양상으로 분류시키고 해당하는 양상을 특징에 따라 다시 세분화하였으며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IV장에선 II장의 이론적 배경과 III장의 학습자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인용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다음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V장에서는 I 장부터 IV장까지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을 밝히며 후속 연구에 대한 기대를 제시하였다. 즉 본 연구는 간접과 직접인용표현을 함께 다뤘다는 점, 형태가 아닌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다뤘다는 점, 숙달도 변인을 살펴봤다는 점, 오류 양상이 아닌 중간언어적 양상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인터뷰나 역할극 등을 통해 실제 구어 텍스트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아 향후의 인용표현 사용 양상 연구에서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더욱 다양한 중간언어적 양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길 바란다.

주요어 : 한국어 교육, 인용표현,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인용, 인용표현 의미, 인용 기능, 중간언어, 사용 양상

학 번 : 2019-27676

목 차

I .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선행 연구 검토	3
2.1. 인용표현 의미 기능 연구	3
2.2. 인용표현 사용 양상 연구	6
2.3. 인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7
3. 연구 내용 및 방법	11
II . 인용표현 사용 양상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	13
1. 인용표현의 개념 및 범위	13
2. 인용표현의 분류	17
3. 인용표현의 구성 요소 및 구조	19
3.1. 인용표현의 구성 요소	20
3.2. 인용표현의 구조	24
4.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26
4.1.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26
4.2. 직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44
III . 중국인 학습자의 인용표현 의미 기능 사용 양상 분석	48
1. 인용표현 사용 양상 연구의 절차 및 방법	48
1.1. 연구 참여자 선정	48
1.2. 연구 절차	49
1.3. 설문 내용 설계	50

1.4. 분석 방법	53
2. 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조사 결과	54
2.1.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조사 결과	54
2.2.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조사 결과	65
3. 중간언어적 사용 양상	67
3.1. 개념화 부족 또는 의도적 회피로 인한 누락 양상	69
3.1.1. 간접인용표현 누락 양상	70
3.1.2. 직접인용표현 누락 양상	88
3.2. 인용표현 형태를 갖췄으나 비체계적인 부호화 양상	99
3.2.1. 비체계적인 간접인용표현 부호화 양상	100
3.2.2. 비체계적인 직접인용표현 부호화 양상	107
3.3. 충분한 개념화 및 적절한 부호화가 이루어진 양상	108
3.3.1. 개념과 부호 조화를 이룬 간접인용표현 사용 양상	108
3.3.2. 개념과 부호 조화를 이룬 직접인용표현 사용 양상	112
IV. 인용표현 의미 기능 교육 방안	115
1. 교육 목표	115
2. 교육 내용	117
2.1. 등급별 교육 내용 선정	118
2.2. 교육 내용 설계	119
2.2.1. 인용표현 기본 지식 교육	120
2.2.2. 의미 기능 개념화 교육	121
2.2.3. 의미 기능에 따른 부호화 교육	125
2.2.4. 의미 기능 차이를 기반으로 한 직·간접인용표현 변별 교육	129
3. 교육 방법	132
3.1. 드라마를 활용하는 입력 교육	132
3.2. 더빙을 활용하는 출력 교육	134

V. 결론	136
참고문헌	139
부록	145
Abstract	167

표 목 차

[표 I-1] 연구 내용 구성 및 방법	12
[표 II-1] 본고의 인용표현의 정의 및 범위	17
[표 II-2] 선행 연구에서 논의 중인 인용표현의 구성 요소 ...	21
[표 II-3] 채숙희(2011)에서의 인용동사 분류	23
[표 II-4] 인용표지의 복합 형태 예시	25
[표 II-5] 박영숙(2011)에서의 ‘-다고 하-’융합어미의 고빈도 의미 기능	27
[표 II-6] 임학혜(2016)에서의 ‘-다X 류’ 종결어미의 의미 기능	28
[표 II-7] 김정은(2008)에서 제시된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29
[표 II-8] 김지혜(2011)에서 제시된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30
[표 II-9] 왕아천(2015)에서 제시된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31
[표 II-10]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정리	32
[표 II-11] 본고에서 선정된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34
[표 III-1] 설문조사 대상자의 세부 정보	48
[표 III-2] 사용 양상 조사를 위한 문항 예시	51
[표 III-3] 사용 양상 조사의 구성	52
[표 III-4] 집단별 전체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55
[표 III-5] 전체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ANOVA 결과	55
[표 III-6] 전체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사후 검증 결과	56

[표 III-7] 원발화자에 따른 집단별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56
[표 III-8] 원발화자에 따른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ANOVA 결과	57
[표 III-9] 원발화자에 따른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사후 검증 결과	57
[표 III-10] 의미 기능에 따른 집단별 간접인용표현의 사용 빈도수	58
[표 III-11] 의미 기능에 따른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ANOVA 결과	60
[표 III-12] 의미 기능에 따른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사후 검증 결과	62
[표 III-13] 의미 기능에 따른 사후 검증 결과 유형 정리	62
[표 III-14] 집단별 전체 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65
[표 III-15] 전체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ANOVA 결과	66
[표 III-16] 전체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사후 검증 결과	66
[표 III-17] ‘생동감 부여’의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Kruskal-Wallis 결과	66
[표 III-18] ‘객관성 및 사실성 강화’의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Kruskal-Wallis 결과	67
[표 III-19] ‘언어 형식 재현’의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ANOVA 결과	67
[표 III-20] 중국인 학습자의 간접인용표현 평균 사용률	109
[표 IV-1] 인용표현의 교육 목표	117
[표 IV-2] 김중섭 외(2010)에서 제시된 ‘등급별로 문법 에 대한 총괄 목표’	118

[표 IV-3] 인용표현의 등급별 교육 내용	119
[표 IV-4] 의미 기능 개념화 교육 내용	122
[표 IV-5] 의미 기능에 따른 부호화 교육 내용	127
[표 IV-6] 의미 기능 차이를 기반으로 한 직·간접인용표현 변별 교육 내용	130

그림 목 차

[그림 II-1] 간접인용표현 의미 기능	43
[그림 II-2] 직접인용표현 의미 기능	47
[그림 III-1] 연구 절차	50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사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며, 인용은 화자와 청자 간의 정보 교환 수단 중 하나로서 의사소통의 핵심인 상호작용성을 향상시키는 표현으로 인간의 의사소통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어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한국어 교재에서 인용표현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은 인용표현에 대한 학습 정도가 낮아 실제 생활 속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이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인용표현의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그 원인은 인용표현의 복잡한 형태¹⁾와 다양한 의미 기능 때문이다. 따라서 인용표현에 대한 교육 연구가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

기존 선행 연구와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인용표현의 형태적 정확성만을 강조해 왔으며 인용표현의 실질적인 의미 기능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해 단순히 ‘전달’이라는 상위 범주에 그쳐 다루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인용표현은 화자를 포함한 누군가의 발화를 전달하는 상황 외에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의미 기능이 드러나는 상황에서의 인용표현 사용 양상은 아래와 같다.

1) 인용표현의 복잡한 구성 요소, 그리고 화자의 의도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서법, 인칭, 시제 등을 포함한다.

- (1) 가. 선생님이 “이리로 와 봐.”라고 하더니 그냥 갔어.
나. 아직도 밥 안 먹었다고?

(1)에서 제시된 예문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문장이다. (1-가)의 경우 화자가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해 선생님의 말씀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지만 당시 선생님이 말하는 말투나 뉘앙스를 재현하는 의미 기능을 발휘한다. (1-나)의 경우 화자가 상대방이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의심이나 놀라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청자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인용표현은 단순한 전달을 넘어 화자의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화용적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도 사용되는데 학습자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즉 인용표현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의미 기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교육이 세분화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인용표현이 사용되는 상황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용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용 양상 연구는 제2언어 교육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서 학습자의 제2언어 학습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교수 항목을 선정하는 것에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따므로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의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며 체계적인 후속 교육 방안 연구의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한다.

- 첫째, 인용표현이 사용 가능한 상황에서 중국인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실제 인용표현 사용 빈도수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제시된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중간언어적 사용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연구 결과를 통해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무엇인가?

2. 선행 연구 검토

인용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인용표현 의미 기능 연구, 인용표현 사용 양상 연구, 그리고 인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인용표현 의미 기능 연구

인용표현 의미 기능 연구는 특정 문법 항목에 따른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와 신문이나 토론, 산문, 강의 등 특정 장르의 담화 맥락에서 나타난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특정 문법 항목에 따른 의미 기능 관점에서 김홍범(1987)은 의미와 용법이 비슷한 의문 서법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인 ‘-다면서’, ‘-다고’, ‘-다니’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의미·화용적 특징을 분석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그는 이 세 가지 문법은 형태·통사적 특성이 대체로 일치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의미·화용적 특성은 ‘-다면서’와 ‘-다고’, ‘-다냐’와 ‘-다니’의 공통점이 각각 존재하면서도 각자 차별화된 특성이 엿물리는 성질이 있다는 점과 의미와 기능 관점에서의 비교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창덕(1999)은 실제 담화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다양한 인용 현상을 분석하여 화자가 인용한 내용에 대한 전달 의도와 그에 따른 인용 형식 결정 및 사용에 대한 원리를 밝혔고, 인용 형식의 축약 양상에 따른 담화적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았다. 그는 인용 형식의 축약 양상을 ‘-다고/냐고/자고/라고 한다/했다’, ‘-다고/냐고/자고/라고 하고/하니/하면서/하더라도’에서 ‘-고 하-’가 생략되는 융합형 축약과 ‘-다고/냐고/자고/라고 한다/했다’에서 ‘한다/했다’가 생략되는 절단형 축약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기능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박영숙(2011)은 준구어 자료인 2종 드라마 대본으로 말뭉치를 구축하고, 어미 교육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제작한 5종 25권의 교재를 바탕으로 ‘-다고 하-’ 융합어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다고 하-’ 융합어미는 ‘-다니’, ‘-다면서’, ‘-다고’, ‘-다니까’의 단일 형태로 사용되지만, 청자의 반응, 친밀도, 억양 등을 바탕으로 담화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서희정(2013)은 ‘-다면서’, ‘-다니까’, ‘-다니’, ‘-다나’와 같은 간접인용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인용표현의 의미는 인용 정보와 후행 어미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주요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제작한 4종 24권의 교재를 분석하여 ‘-다면서’는 확인을, ‘-다니까’는 근거를, ‘-다니’는 상황 설명과 의외성을, ‘-다나’는 의심을 기본 기능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임학혜(2016)는 중국인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 등 ‘-다X’류 종결어미를 대상으로 형태·통사적 특징과 담화·화용적 특징을 분석하여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분포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법과 실재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특정 장르의 담화에서 나타난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를 다시 문어 담화와 구어 담화로 나눈다. 문어의 경우는 주로 신문이나 사설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김용진(2004)은 신문 뉴스 기사에서 사용된 직접 인용문이 담당하는 담화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는 직접 인용문의 형식, 원천 발화자의 구분 및 인용문의 특징, 직접 인용문의 키워드 분석 등 세 가지 분석 틀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직접 인용문의 세 가지 기능²⁾ 외에도 ‘서사 구성’ 기능, ‘전문 지식 제공’ 기능, ‘참여’ 기능 등 다른 담화 기능이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송화(2013)는 신문 기사 텍스트에 나온 인용명사의 빈도와 의미적 특징, 그리고 인용명사에 의한 인용문의 사용 양상 및 기능을 살펴보았다. 그는 <21세기 세종프로젝트> 말뭉치의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인용명사를 통한 인용이 화자의 인용내용을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판단

2) Bell(1991)은 뉴스의 직접 인용문의 세 가지 담화적 기능으로 ‘사실성’ 기능, ‘중립성’ 기능, ‘미학적’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과 태도가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용명사가 단순하게 전달하는 의미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의식·무의식적으로 화자의 생각이나 태도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인용에 대한 통사적 측면의 연구를 넘어 화용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홍수(2015)는 김수영 산문에서 나타난 인용표현을 정리하면서 표현 기능과 소통 기능, 태도 반영 기능으로 구분하되, 이들이 다면적이고 모호한 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표현 기능은 ‘무엇’보다 ‘어떻게’의 양상으로서 기능과 효과가 실현되고, 소통 기능은 소통 상황과 분위기 조성 및 소통 과정 부각을 통해 실현되며, 태도 반영 기능은 필자나 독자에 대한 인식·심리적 태도, 의미 내용에 대한 서술 태도를 반영한다.

김해연(2017)은 신문 사설 텍스트에 나타난 직접 인용 구문을 대상으로 그 형태와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는 사설 필자는 3인칭 작가 시점에서 논지를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목소리를 직접 인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구조와 성격을 분석하였다. 그는 타인의 목소리 전달 방식으로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이분법적 구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접 인용 구문의 기능을 비판적 담화분석과 heteroglossia³⁾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사설 텍스트가 갖는 다층적 성격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만 접근한 선행 연구와 차별되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구어 담화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윤현애·윤정원(2012)은 토론 담화에서 나타나는 인용표현을 추출해 그 양상을 분석하고 해당 상황에서 인용표현이 발휘하는 담화적 기능을 정리하여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국어 교육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송화(2018)는 강의 담화를 대상으로 이에 나타난 인용 구문의 형식과 담화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그는 강의 담화에서의 인용을 사례 제시를 위한 인용, 해설을 위한 인용,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인용, 새로운 정보 수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용, 거리감의 유지와 강조

3) 작가, 등장인물 등 서로 다른 화자의 목소리가 섞여 공존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이다.

를 위한 인용, 담화 전개 of 효율성을 위한 인용, 화자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인용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는 일상적인 구어체 담화를 바탕으로 의미 기능을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채숙희(2020)는 간접인용구문을 대상으로 인용구문이 사용되는 상황을 발화전달 상황과 반향적(echoic) 발화상황으로 구분하고 그 용법을 통해 해당 맥락에서 간접인용구문이 기능하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는 간접인용구문이 단순히 발화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놀람이나 불만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학문적·지식적으로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2.2. 인용표현 사용 양상 연구

채숙희(2013)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와 모어 화자가 실제로 발화한 일상 대화 자료에 나타난 인용구문의 빈도를 인용술어, 인용표지, 인용방식, 융합형과 절단형 등 4가지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급 학습자의 인용 빈도는 모어 화자에 비해 절반 정도 수준이고 간접인용에 대한 의존도가 직접인용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와 ‘-대요’ 등 특정 표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보희(2015)는 드라마 대본과 세종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간접인용표현 사용 양상을 비교분석한 결과 축약형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국어 학습자와 달리 모어 화자는 축약형을 사용하여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강정미(2016)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간접인용표현의 형태만을 중요시하며, 담화 맥락의 특징을 간과하기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간접인용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간접인용표현이 사용되는 문어 담화인 신문 기사, 신문 사설, 학술 논문, 생활문, 그리고 구어 담화인 강연, 토론, 대화, 독백 등 장르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장르별 간접인용표현의 사용 양상 및 기능, 그리고 의사소통 전략을 논

의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장르에 나타난 간접인용표현의 사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맥락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한국어 학습자들이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데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결여됐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민정(2017)은 간접인용을 자신의 발화나 생각 인용, 대화 상대자의 발화나 생각 인용, 제3자의 발화나 생각 인용으로 구분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습득 양상을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했으며 숙달도에 따른 습득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차이는 세 가지 인용 상황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나 숙달도에 따른 차이는 제3자 인용에만 유의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김현민(2020)은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인용표현 사용 양상을 고찰하여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는 텍스트의 미시적인 구조와 인용표현의 기능, 그리고 인용문의 유형 및 인용동사의 사용 양상 등에서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YAN YUTONG(2020)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간접인용표현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중 간접인용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비교해보았다. 그는 인용 구문의 문장 유형에 따라 오류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형태 활용 오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간접인용표현을 회피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으로 인용표현의 사용 양상 연구는 대부분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 간의 비교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3. 인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인용표현 교육 방안은 교육 방안에 보완할 사항을 제시하는 연구와 실제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안을 제시한 연구, 그리고 지도안을 활용해 교육 효과를 검증한 연구 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시킬 수 있다.

우선 교육 방안 보완 사항을 제시한 연구로 김정은(2008)은 중국인,

일본인, 몽골인, 미국인, 총 60명의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담화 완성형 과제와 역할극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를 수집하여 인용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용표현이 발생하는 맥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증가해야 하고 인식된 맥락을 인용 의미로 개념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적절한 형태로 부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인용표현의 의미와 형태를 입력이 아니라 학습자의 출력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유경(2016)에서는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참고 텍스트의 활용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유학생들의 인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참고 텍스트를 베껴 쓰는 방식으로 인용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인용 교육에선 인용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명시적 교육이 필요하며,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차이점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인용 연습을 시킬 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 참고 텍스트의 난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염맹(2017)은 한국어 화자들의 사용하는 구어 자료에 나타난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분석했으며 한국어 교재에서의 간접인용표현 제시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나 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불만을 나타내거나 타인의 생각을 권유 추측하는 등 다양한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교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쑤취핑(2018)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의 간접인용표현을 비교했고 간접인용표현의 교육 실태를 확인했으며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간접인용표현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많이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는 간접인용표현의 의미적 기능을 제시하고, 이를 언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알 수 있도록 맥락을 교수해야 하며, 중요하거나 어려운 불규칙성은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불평하기, 걱정하기 등 실제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미 기능이 있다는 점을 교육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중급 단계 이상에서는 유사한 문법을 비교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곽지유(2019)는 간접인용표현에 대한 교재의 과제활동에서 형태적인

연습이 주를 이루며 담화 기능적 연습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양한 담화 기능적 활동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그는 멀티미디어에서 추출된 준구어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는 더빙 활동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교육 지도안을 제시한 연구로 유환(2014)은 한·중 간접인용표현에 대한 대조 분석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간접인용표현 학습 과정에서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각각 어미들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왕정(2016)은 한국어와 중국어 간접인용문의 구조와 표현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는 한국어 숙달도에 맞춰 표현방식을 중심으로 초급, 중급 및 고급 단계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단(2021)은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간접인용표현을 교육할 때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전래동화에 기초하여 스토리텔링 수업자료 시안을 설계하여 한국어 간접인용표현을 학습할 수 있는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로 이운정(2011)은 간접인용표현의 사용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가 많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간접인용표현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도입-설명-연습-활용-정리 등 5단계로 구분되는 교육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당 모형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적용한 결과 실험 후 학습자가 실험 전보다 간접인용표현의 사용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오가희(2018)는 딕토글로스를 활용한 간접인용표현 교육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여 실험연구를 통해 간접인용표현 교육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그는 중급 및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평가를 실시한 결과 딕토글로스를 활용한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간접인용표현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서 높은 향상도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의 인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선행 연구의 아쉬운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에서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직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직접인용표현을 간과하여 간접인용표현에 대한 교육만을 강조하면 중국인 학습자가 직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직접과 간접인용표현을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간접인용표현 외에도 직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한국어 교육에서의 인용표현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인용표현 사용 양상 연구는 적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나 드라마에 나타난 간접인용표현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방안을 제시하거나 한국어 및 중국어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인용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2언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언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정확히 밝혀야 그에 따른 교육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표현의 사용 양상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한국어 학습자의 인용표현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문장의 유형에 따른 서법, 세부적인 높임, 시제, 인칭대명사 등의 형태 요소 학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을 살펴볼 때는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 기능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 따라서 의미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사용 양상 연구의 확장이 요구된다.

넷째, 언어 항목의 습득에 존재하는 숙달도 변인이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숙달도에 따른 인용표현 사용 양상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숙달도 변인을 고려한 인용표현 사용 양상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은 오류 분석과 대조 분석에 치중하고 있어 중간언어 관점에서의 사용 양상 연구가 없었다. 중간언어는 학습자가 제2언어 학습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정확하게 발화하거나 오류를 보이는

지, 어느 발달 단계에 놓여 있는지 등을 밝히는 체계로 보다 전면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에 중간언어 관점에서의 사용 양상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우선 본고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장은 서론으로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선행 연구 검토, 연구 내용 및 방법을 다루었다.

II장에서는 학습자의 인용표현 의미 기능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우선 인용표현의 개념 및 범위를 살펴보고 인용표현의 분류 체계와 인용표현의 구성 요소 및 구조에 대해 알아본 뒤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세분화하였다.

III장에서는 우선 조사를 위한 연구 대상 선정, 연구 절차, 설문 내용 설계에 대해 살펴보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다음 쓰기 텍스트 형식의 담화완성형 과제(Discourse Completion Task)⁴⁾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예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 조사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 및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본 조사를 최대한 보완한 뒤 연구 대상 인원수를 확대시켜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학습자 언어 자료를 계량화하여 연구 대상 집단의 인용표현 사용 빈도수를 제시했으며 통계 프로그램 SPSS를 통해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았다. 다음 학습자들의 인용표현 의미 기능 사용 양상을 중간언어 관점으로 유형화하여 문제중심 인터뷰(Problem-Centered Interview)를 통해 양상에 따른 원인을 해석하였다.

IV장에서는 인용표현 의미 기능의 교육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II장의

4) Gass & Selinker(1994)는 학습자의 중간언어 자료 수집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는 담화완성형 과제 질문지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학습자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언어 표본으로 단기간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Jebahi, 2011).

이론적 배경과 III장의 학습자 사용 양상을 토대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교육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한국어 문법 교재를 살펴봄으로써 교육의 미흡함을 함께 제시하였다.⁵⁾

V장은 결론으로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와 제언을 기술하였다.

연구 내용 구성과 방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I-1> 연구 내용 구성 및 방법

구성	연구 내용	연구 방법
I 장	-인용표현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 -인용표현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인용표현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 문헌 연구
II 장	-인용표현의 개념 및 범위 -인용표현의 분류 -인용표현의 구성 요소 및 구조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 문헌 연구
III 장	-연구 절차 및 방법 -인용표현 의미 기능 사용 양상 분석 ◆ 인용표현 사용 빈도 결과 분석 ◆ 중간언어적 사용 양상 분석	• 설문조사 • 사후 인터뷰 • 통계 분석 • 질적 분석
IV 장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 문헌 연구 • 교재 분석
V 장	-요약, 의의, 한계, 제언	

5) 본고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한국 교육부(www.moe.go.kr)에서 공시된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어학연수 중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라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중국인 유학생 수가 연속적으로 5위 안에 든 학교는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4가지 대학에서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2019년~2021년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어학연수 중국인 유학생 현황]

순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대학명	인수(명)	대학명	인수(명)	대학명	인수(명)
1	경희대학교	517	연세대학교	531	고려대학교	776
2	고려대학교	447	고려대학교	355	중앙대학교	608
3	연세대학교	377	동국대학교	331	연세대학교	535
4	중앙대학교	299	중앙대학교	326	동국대학교	444
5	한양대학교	272	경희대학교	321	경희대학교	405

Ⅱ. 인용표현 사용 양상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

1. 인용표현의 개념 및 범위

사전적 의미로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씌”을 의미한다.⁶⁾ 이를 바탕으로 인용의 범위 규정에 대한 한국인 연구자들의 논의가 매우 활발하였다. 즉 인용의 개념을 어디까지 규정하는가에 대한 견해가 통일되지 않았다. 이는 인용을 타인의 발화(말이나 글)를 전달하는 것에만 한정시킬 것인가, 타인만이 아닌 화자 자신의 발화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인용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시킬 것인가, 또한 타인과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끌어 사용하는 것까지 인용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인용의 범위에 대해 논의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분류시킬 수 있다.

- ① 타인의 발화를 끌어오는 것만을 인용으로 보는 연구: 박진희(2013) 등.
- ② 화자 자신 및 타인의 발화를 끌어오는 것을 인용으로 보는 연구: 남기심(1971), 이상복(1974), 이창덕(1999), 김지혜(2011), 한송화(2014) 등.
- ③ 타인의 발화나 생각을 끌어오는 것을 인용으로 보는 연구: 이필영(1993), 안경화(1995), 김현민(2020) 등.
- ④ 화자 자신 및 타인의 발화나 생각을 끌어오는 것을 인용으로 보는 연구: 김수태(1990), 권재일(1998), 고영근·구분관(2008), 김정은(2008), 윤정원(2011), 채숙희(2011), 왕아천(2015), 이관규(2016), 조정민(2018), 광지유(2019), 황유정(2021) 등.

우선 박진희(2013)에서는 인용을 “언어 주체가 담화상에서 이미 언급된 발화 내용을 전달하는 언어적 행위”로 다른 사람의 발화를 옮기는 것으로 한정시켰다. 그는 아래와 같은 문장을 인용표현으로 규정하였다.

(2) 가. 영희는 집에 간다고 말했다.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나. 영희는 “집에 간다.”라고 말했다.

박진희(2013: 32)

그러나 이런 개념의 인용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발화뿐만 아니라 화자 자신의 발화를 옮기는 것도 인용이라고 확대 정의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창덕(1999)에서는 언어사용자가 기존의 어떠한 맥락에서 담화 또는 글의 형식으로 발생한 언어적인 표현을 재사용하는 행위를 인용이라고 보고 이에 담긴 표현을 인용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복(1974)에서도 다른 사람 또한 자신의 말을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두고 재생해서 남에게 전달하는 문장 구조를 인용문으로 보았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도 인용표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3) 가. 내가 영수에게 내일 늦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 내가 영수에게 “내일 늦으면 안 돼.”라고/하고 말했다.

이창덕(1999: 257)

또한, 인용되는 텍스트가 타인의 발화뿐만 아니라 생각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 연구자들이 있다. 이창덕(1999)은 실제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생각이나 느낌을 인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필영(1993), 안경화(1995), 김현민(2020) 등은 이와 달리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적으로 표현되는 발화라고 여기며, 남의 생각을 옮기는 것도 인용의 범위에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타인의 생각을 인용한 표현은 아래와 같다.

(4) 가. 철수는 오늘 비가 온다고 알고 있다.

나. 철수는 오늘 비가 온다고 믿고 있다.

(이필영, 1992: 4-7)⁷⁾

(4)에서 화자인 ‘나’는 ‘철수’의 생각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철수’의 생각은 실제 발화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가 실제 그렇게 생각하

7) 이창덕(1999: 257) 재인용.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인용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 다만 내가 그의 생각이 그럴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 즉 추론의 근거가 존재할 것이기에 이를 인용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인용에 대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화자 자신을 포함한 누군가의 발화, 또한 생각을 읊기는 것을 모두 인용이라고 보는 연구가 가장 많았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실제 발화되지 않았더라도 사유나 지각 등의 형태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용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나”의 생각을 인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5) A: 진작에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딴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산소로 해 버려서 거기에만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한 거 같아.

B: 으응, 맞아. 요즘에는 산소에다가 많이 투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황유정(2021: 16-17)

(6) A: 폐백을 봐도 되는 건가? 원래 폐백을 가족끼리 하는 거 아닌가?

B: 아. 맞아, 맞아.

A: 이거를 옆치락뒤치락 하다가 “아니야. 폐백은 가족끼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네가 폐백을 하면 같이 끝나고 이동하면 힘들겠다 해 가 지고 나는 간 건데.

황유정(2021: 17)

기존 연구에서 ‘생각하다’와 같은 사유동사를 사용하는 인용표현은 예문(5)와 같은 간접인용표현으로만 나타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구어 상황에서 예문(6)과 같은 직접인용표현으로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황유정(2021)에서는 “비문법적인 언어 사용이 빈번한 구어 특징이 인용 구문에 미친 영향이라고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화자가 자신이 실제 생각하고 있는 바를 표현한 것이므로 사실을 반영하고 있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예문(4)와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인용의 범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필영(1993)은 아래와 같이 언어 표현을 읊겨서 사용하는 것도 인용으로 보아 인용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켰다.

(7) “안녕하세요?”는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쓰는 말이다.

(8) “꽃”이란 한 음절로 된 명사이다.

(이필영, 1993: 11)

그러나 위의 예시와 같은 경우에 대해 채숙희(2011)에서는 ‘안녕하세요?’와 ‘꽃’이 피인용문으로 보고 일종의 발화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는 일상 구어에서 실현되는 특정한 발화가 아니라 단순한 메타언어적 설명에서 도구로 쓰인 표현이라고 하며, 인용표현에서 나타나는 발화와 차이가 있어 인용표현으로 보기가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으로 본고는 화자 자신 및 타인의 발화나 생각을 끌어오는 것을 인용으로 보고 이가 담긴 언어 표현을 인용표현이라고 의미적 측면에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채숙희(2011)는 의미적으로만 인용표현을 규정하면 다양한 구조를 가진 문장을 인용표현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므로 인용표현의 범위를 한정시킬 수 없다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인용표현을 인용동사의 의해 발화 행위나 인지 행위가 표현되는 구문이라고 정의하며 인용표현의 형성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인용동사가 사용된다.

나. 발화, 인지의 내용은 피인용문에 표현되는데 피인용문은 하나의 독립된 발화로 쓰일 수 있다.⁸⁾

다. 피인용문은 인용동사의 보어다.⁹⁾

8) 인용동사가 있더라도 발화나 인지의 내용으로 보기 힘든 구문(예a), 또한 명사구 보문 구성이나 명사절을 피인용문으로 쓰이는 구문(예b) 등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는 구문이 제외된다.

예a: 이 책의 내용을 말하면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야. (*비인용표현)

예b: 영식이 나에게 다음 달에 이직할 것/이직함을 말했다. (*비인용표현)

9) ‘피인용문+고’로 형성된 구문인데 인용동사의 보어로 볼 수 없는 구문이 제외된다.

예a: 어제는 과제를 한다고 늦게 잤어. (*비인용표현)

예b: 어제는 과제를 한다고 하고/하면서 늦게 잤어. (인용표현)

위에서와 같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문만을 인용표현으로 인정받는다. 이외에도 ‘부르다’, ‘칭하다’ 등에 의해 형성되는 칭문¹⁰⁾도 인용표현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본고는 인용동사가 없어도 인용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문이 존재하기 때문에¹¹⁾ 형태적 측면에서 인용표현을 살펴볼 땐 채숙희(2011)와 달리 인용동사와 인용표지 중 하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정 문법 형태를 통해 독립적인 발화로 쓰일 수 있는 피인용문을 드러내는 언어 표현으로 정의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의 인용표현의 정의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II-1> 본고의 인용표현의 정의 및 범위

의미적 측면	화자가 자신을 포함하여 누군가의 발화(말이나 글)나 생각을 자신의 발화 속으로 끌어오는 것을 드러내는 언어 표현.
형태적 측면	인용동사와 인용표지 중 하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정 문법 형태를 통해 독립적인 발화로 쓰일 수 있는 피인용문을 드러내는 언어 표현.

2. 인용표현의 분류

인용표현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우선 인용표현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용하는 형식에 따라 직접인용표현과 간접 인용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복(1974)에 따르면 직접인용표현은 원발화자의 말을 원형 그대로 전달하고 인용된 내용 뒤에 인용표지 ‘-

10) 예: 철수가 나보고 누나라고 부른다. (*비인용표현)

*철수가 나보고 누나가 아니라고/누나이었다고/누나이니라고 부른다.

‘누나’를 ‘누나이다+고’로 형성된 인용표현에서의 피인용문으로 분석될 수 있으나 피 인용문 뒤에 부정표현, 시제, 주체존대가 올 수 없다는 점에서 인용표현과 다르다.

11) 윤정원(2011)은 구어의 특징으로 인해 일상에 쓰이는 다양한 인용표현 사례는 담화 맥락과 화자에 의해 인용동사가 생략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라고’ 혹은 ‘-하고’에 의해서 인용동사가 결합되며, 간접인용표현은 원발화자의 말의 형식을 화자의 입장에서 변화시켜 청자에게 전달하고 인용된 내용 뒤에 인용표지 ‘-고’에 의해서 인용동사가 결합된다. 이와 같이 인용 형식에 따른 이분법적 분류를 적용한 연구는 이필영(1995), 남기심(2001)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인용표현을 분류하게 된다면 양쪽의 분류기준에 명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인용표현을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이창덕, 1994).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9) 우리 엄마가 아이, 우리 세현이 아니면 우리 집은 웃을 일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야.

채숙희(2011: 25)

위의 예문을 보면 해당 표현의 문장종결법과 상대높임법은 간접인용표현의 특징을 보였으나 인천명대사는 원발화대로 ‘우리’로 유지되며, 발화수행적 요소인 감탄사가 ‘아이’로 그대로 쓰이는 등 직접인용표현의 특질이 보이기에 채숙희(2011)에서는 이를 반직접인용표현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통사적인 형식 기준에만 얽매일 경우 직접 또는 간접인용표현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중간적인 인용표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용표현의 분류 기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나타났다.

이창덕(1999)은 인용표현을 원발화의 텍스트 형태가 말이나 글이냐에 따라 입말 인용 및 글말 인용으로 구분하였고 인용된 내용의 출처를 기준으로 자기텍스트 인용과 타인텍스트 인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원발화가 인용된 빈도에 따라서는 단일 인용과 다중 인용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원발화의 문장 형식이 완전히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완문 인용과 불구문 인용으로 구분하였고 인용 방식으로는 형식중심 인용(직접 인용) 및 내용중심 인용(간접 인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인용 대상으로는 언어표현 인용(전형 인용)과 관념 인용(유사 인용)으로 구분하였다.

조정민(2018)에서 인용표현은 인용 발화의 출처를 기준으로 자기인용과 타인인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용의 내용에 따라

발화인용과 내면인용과 가상인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메시지 전달 방식을 기준으로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용화자의 태도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황유정(2021)은 인용표현을 재사용된 발화의 출처에 따라 자기인용과 타인인용으로 분류하였고 인용되는 대상에 따라 발화인용, 관념인용, 가상인용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용 형식에 따라 직접인용, 간접인용, 반직접인용, 자유직접인용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인용표현을 인용 형식에 따라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교수된 ‘직접인용표현’ 및 ‘간접인용표현’으로 크게 분류하며¹²⁾ 인용된 내용의 출처에 따라 ‘자기 인용’, ‘상대방 인용’, ‘제3자 인용’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직접인용표현과 간접인용표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겠다. 직접인용표현은 원발화의 언어 형식을 유지하여 원상(原狀) 그대로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인용표현은 원발화의 언어 형식을 화자 입장에서 변화시켜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인용표현의 경우는 인용부호(인용 따옴표)와 ‘-라고/하고’와 같은 인용표지가 동반되며, 간접인용표현의 경우는 인용부호 없이 인용표지 ‘-고’와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구어 담화에서는 인용 따옴표가 사용되지 않으므로(채숙희, 2011) 본고는 주로 피인용문의 처리 방식 및 인용표지를 기준으로 인용 형식을 구분한다.

3. 인용표현의 구성 요소 및 구조

12) 앞에서 이분법적 분류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중간적인 인용표현을 제시하였으나 채숙희(2013: 411)에서는 반직접인용의 경우, 학습자들이 인용표현을 학습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쓸 수 있으므로 반직접인용표현을 별도의 항목으로 교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며, 이분법적 분류가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반직접인용표현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형적인 직접인용표현 및 간접인용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3.1. 인용표현의 구성 요소

이상복(1974)에서는 직접인용표현 및 간접인용표현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직접인용표현: 주어-인용 제이부사구-피인용문+(이)라고/하고-술어

간접인용표현: 주어-인용 제이부사구-피인용문+고-술어

여기서 ‘주어’는 원발화자이고, ‘인용 제이부사구’는 원청자를 가리키며, ‘-라고/하고/고’는 인용표지¹³⁾라고 하고, ‘술어’는 인용동사¹⁴⁾를 말한다. 이는 위에서 제시된 피인용문¹⁵⁾과 함께 인용표현의 구성 요소로 논의된다. 이러한 구성 요소로 형성된 실제 인용표현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가. 친구가 나한테 “어디 가니?”라고 물어봤다.

나. 친구가 나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

한송화(2018: 38)

(10-가)는 피인용문 “어디 가니?”와 직접인용을 나타내는 인용표지 ‘-라고’가 결합된 내포절로서 내포문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다.’에 내포되는 직접인용표현이다. 그리고 (10-나)는 변형된 피인용문 ‘어디 가냐’와 간접인용을 의미하는 인용표지 ‘-고’가 결합된 인용절로서 내포문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다.’에 내포되는 간접인용표현이다.

하지만 실제 구어 상황에서 다음 예문들과 같이 모든 구성 요소들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생략될 수도 있다.

13) 선행 연구들에선 연구자에 따라 ‘-고’와 같은 인용표지를 보문자, 인용격조사, 부사격 조사, 인용어미 등의 용어로 다르게 불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용표현의 구성 요소로 ‘인용표지’라고 명명하겠다.

14) 인용술어와 상위도사 등으로 기술한 연구도 있으나 본고는 인용동사로 기술하겠다.

15) 인용의 대상이 되는 표현을 연구자에 따라 피인용문, 인용대상, 피인용 텍스트, 인용구절, 하위문 등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피인용문으로 통칭하기로 했다.

- (11) 가. 나한테 “어디 가니?”라고 물어봤다.
 나. 친구가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
 다. 친구가 나한테 “어디 가니?” 그러던데.
 나. (친구->나) 어디 가냐고?¹⁶⁾

위의 예문들은 일상대화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들이다. (11-가)는 원 발화자가 생략된 경우이고 (11-나)는 원청자가 생략된 경우이고, (11-다)는 인용표지가 생략된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11-나)는 피인용문과 인용표지만 남고 인용동사가 절단된 경우이다. 이를 통해 구성 요소는 화자의 의도에 의해 생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용표현의 구조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이필영 1995, 안경화 1995, 채숙희 2011, 윤정원 2011, 박진희 2013, 김민형 2020)를 살펴 보면 한국어 인용표현은 피인용문과 인용표지의 결합 구성이 인용동사의 보충어로 기능하는 문장이라고 통사적 구조 특징으로 규정하였다. 해당 연구들에서 논의 중인 구성 요소를 다음 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II-2> 선행 연구에서 논의 중인 인용표현의 구성 요소

	이필영 (1995)	안경화 (1995)	채숙희 (2011)	윤정원 (2011)	박진희 (2013)	김민형 (2020)
원 발화자	○	-	-	-	○	○
원 청자	○	-	-	-	-	-
피인용문	○	○	○	○	○	○
인용표지	○	○	○	○	○	○
인용동사	○	○	○	-	○	○
인용명사	-	-	-	-	-	○

위의 표를 통해 피인용문, 인용표지는 인용표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공통적으로 인정받으며, 인용동사는 대부분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선행 연구 검토 결과 및 II장 1절에서 규정된 인용표현의 개념에 따라 피인용문, 인용표지, 인용동사를 인용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삼아¹⁷⁾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다.

16) (11-가~다)에선 ‘나’가 ‘친구’의 말을 인용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11-나)에선 ‘친구’가 자신의 과거 발화를 인용하여 ‘나’에게 반문하는 것이다.

먼저 피인용문은 인용동사의 보어로 하는 독립적인 발화로서 피인용문의 내용에 따라 발화에 대한 인용인지, 생각에 대한 인용인지가 구별되며 피인용문을 기술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인용표현을 구분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피인용문은 단어 하나로 이루어진 문장부터 서술어 및 종결어미를 갖춘 완전한 문장까지 다양한 통사적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2) “흠.” 하고 딱 웃어.

(13) “아우, 이거!” 막 이러면서 사 가더라고요.

(14) 가. 그래서 “너는 재수 학원 다닐 거니?” 그랬더니 유학 간대요.

채숙희(2011: 133)

나. 그래서 재수 학원 다닐 거냐고 그랬더니 유학 간대요.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12)는 감탄사 하나로 이루어진 문장이고 (13)은 서술어 및 종결어미 없이 감탄사와 대명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며, (14)는 서술어 및 종결어미까지 갖춘 완전한 문장이다. 이와 같이 직접인용표현에서는 문장 형식에 제약을 받지 않아 다양한 양상을 보이나, 간접인용표현에서는 세 번째 유형의 문장만이 피인용문으로 쓰인다.

다음 인용표지는 피인용문 뒤에 오고 피인용문임을 알려 주며, 인용방식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일반적으로 직접인용표현에서 사용되는 인용표지는 ‘-라고’와 ‘-하고’이며, 간접인용표현에선 ‘-고’가 주로 사용된다. 일상 구어 상황에서 인용표지의 사용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를 채숙희(2011)에서 제시된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 어제 철수가 “내일은 비가 올 것 같다.”라고도 (*라도)말했어.

(16) “영식아!”하고 부르니까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 봤다.

(17) 철수가 영희에게 같이 등교하자고 말했다.

(18) 아까 뭐라 했니?

(19) 철수가 나보고 아이스크림 사 오라고 했는데 나는 “싫어요!” 이렇게 말

17) 인용동사와 인용표지를 기본적인 요소만으로 삼아 한 구문에서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아님을 알린다.

했어.

- (20) 엄마한테 옷 사 달라고 할 때마다 엄마가 “나 돈 없어.”(*고, *라고, *하고, *라)이래... (인용표지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인용표지도 사용 불가)
- (21) 영희는 그 남자가 궁금해서 한 번 만나 봤는데 “괜찮은 사람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생략)

마지막으로 인용동사는 인용 행위의 속성을 드러내는 동사로 이를 통해 피인용문이 발화인지, 생각인지 알 수 있다. 인용동사의 분류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이필영(1993), 채숙희(2011), 왕완지(2020) 등을 들 수 있으며 연구자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필영(1993)은 동사의 의미만이 아닌 피인용문의 문장 유형 및 인용표지 등의 통사적 특성까지 고려해 인용동사를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해당 기준으로 하면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거나 잘못된 분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채숙희(2011)는 원청자의 통사적 실현 양상과 그 세부 의미, 그리고 직접인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용동사를 다음 표와 같이 세분화하였다.

<표 II-3> 채숙희(2011)에서의 인용동사 분류

동사 유형	분류 기준		소분류	예
발화 동사	원청자 실현 양상	∅	일방 동사	떠들다 ₁ , 외치다 ₁ , 중얼중얼하다, 횡설수설하다... 지적하다, 반응하다, 서술하다, 언급하다... 매도하다, 평가하다, 포함하다... 전하다 ₁
		N에게	전달 동사	말하다, 전하다 ₂ , 전화하다, 떠들다 ₂ , 외치다 ₂ ... 대답하다, 설명하다, 고백하다, 화내다, 강조하다, 불평하다, 비판하다, 약속하다 ₁ , 칭찬하다... 물어보다, 묻다, 인사하다, 되묻다, 따지다... 부탁하다, 가르치다, 강요하다, 주문하다... 권하다, 제안하다, 건의하다, 제의하다...
		N과	대칭 동사	약속하다 ₂
		N을/	대상 동사	격려하다, 혼내다, 공격하다, 구박하다, 추

		N에게		궁하다... 비난하다, 칭찬하다... 부르다
		N이	수용 동사	듣다, 배우다...
		N에	기록 동사	쓰다, 올리다, 적다... 나오다, 되다, 나다...
인지 동사	직접 인용 가능성	가능	외향 동사	생각하다, 보다, 느끼다, 믿다, 걱정하다, 고민하다, 기대하다, 반성하다, 추측하다, 기억하다...
		불가능	내재 동사	치다, 판단하다, 알다, 이해하다, 예상하 다, 판단되다, 인정하다, 인식되다, 계획하 다, 이해되다...
포괄 동사		-		하다, 이렇다, 그러다

3.2. 인용표현의 구조

위와 같은 구성 요소를 갖추는 인용표현이 어떠한 구조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김정은(2008)에서는 인용표현의 구조는 피인용문 뒤에 오는 인용표지의 종류 및 인용동사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본고에서는 염맹(2017)을 비롯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인용표현의 구조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살펴보겠다.

① [피인용문] + [인용표지] + [인용동사]

이 구조는 피인용문과 인용표지, 그리고 인용동사를 모두 갖추는 기본적인 전형적인 형태로 직접인용표현 및 간접인용표현에서 모두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용례를 흔히 볼 수 있다.

(22) 가. A는 “나는 지금 숙제하고 있어.”라고 했어요.

나. A는 지금 숙제한다고 했어요.

염맹(2017: 15)

② [피인용문] + [인용표지와 인용동사의 축약 및 절단 형태]

먼저 축약 형태의 구조는 피인용문 뒤에 오는 인용표지와 인용동사 (-고 하-)가 생략되고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와 상위문의 종결어미가 축약되어 ‘-다고 한다’는 ‘-단다’로 실현된 것과 피인용문의 종결어미가 인용동사와 융합되어 ‘-다고 해’는 ‘-대’로 축약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해당 구조는 간접인용표현에서만 나타나며 이를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23) 가. 철수는 몸이 아프다고 한다.
 -> 철수는 몸이 아프단다.
 나. 철수는 몸이 아프다고 해.
 -> 철수는 몸이 아프대.

염맹(2017: 19)

다음 절단 형태의 구조는 앞에서 살펴본 (11-나)와 같이 피인용문과 인용표지만 남고 인용동사가 절단되어 실현된 것이다. 해당 구조도 간접인용표현에서만 나온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4) 줄리엔 엄마한테 공연해 준다고.

박영숙(2011: 42)

③ [피인용문] + [인용표지의 복합 형태]

마지막은 인용표지와 인용동사(-고 하-)가 탈락하고 피인용문의 종결어미 뒤에 종결어미나 연결어미 등을 붙여 복합 형태로 나타나는 구조이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4> 인용표지의 복합 형태 예시¹⁸⁾

인용표지+종결어미	예문
-답니다/랍니다	동생은 몸이 아프답니다.
-답니까/랍니까	누가 이런 데서 산답니까?
-다/라지(요)	오늘 날씨가 춥다지(요)?

-다/라더라	그는 도서관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다더라.
-다/라나	약속에 늦은 것이 자기 잘못 아니라나.
인용표지+연결어미	예문
-다/자/라니	내가 범인이라니!
-다/자/라면서	수영이 일등을 땀다면서?
-다/자/라니까	나는 돈이 없다니까!

4.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4.1.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¹⁹⁾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밝히기 위하여 인용 관련 특정 문법 항목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와 일상대화 구어에서 나타나는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특정 문법 항목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김홍범(1987)은 간접인용에서 사용되는 ‘-다면서’, ‘-다고’, ‘-다니’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면서’는 제3자에게 들은 정보를 청자에게 확인하자고 물을 때 사용됨으로써 ‘확인물음’의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 제3자나 청자가 앞선 발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했음을 알고 있는 발화자가 해명을 요구하는 ‘따짐’ 및 ‘비꼼’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 ‘-다고’는 제3자나 청자의 앞선 발화에 대한 ‘확인물음’, 화자 자신의 앞선 발화 되풀이 확인,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놀라움’, ‘믿기 어려움’을 표현하는 의미 기능을 지닌다. ‘-다니’는 ‘놀라움’이나 ‘믿기 어려움’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다고’와 공통점이 있으나 ‘겸손’을 나타내는 의미 기능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이창덕(1999)에 따르면 ‘-다고/냐고/자고/라고’ 형태는 상대방이 했던

18) 페이위페이(2014) 및 엽맹(2017)을 참고하여 정리한 표이다.

19) 먼저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살펴본 이유는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기존 연구 대부분이 간접인용표현에 관한 것이며,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인용표현 사용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채숙희, 2013)에 따르면 직접보다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더 많고 간접인용표현의 실용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발화를 확인 질문하거나 화자 자신이 했던 말을 반복확인 진술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다고/냐고/자고/라고 하면서/했으면서 왜.....?’는 상대방이 한 말과 다르게 행동한 것에 대한 반문과 힐책 기능을 한다. 또한 ‘-다고/냐고/자고/라고 하니까 왜.....?’는 상대방이 화자의 발화를 믿지 않거나 이와 다르게 행동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기능을 한다.

박영숙(2011)은 ‘-다니까’, ‘-다고’, ‘-다니’, ‘-다면서’의 고빈도 담화적 의미를 추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서법과 반응요구 정도, 담화 맥락 우호성, 발화 억양 등의 특징도 함께 다음 표와 같이 밝혔다.

<표 II-5> 박영숙(2011)에서의 ‘-다고 하-’융합어미의 고빈도 의미 기능

어미	서법	반응요구 정도	우호성	억양	담화적 의미
-다니까	평서문	청자중심	-	↗	반박/따짐
		화자중심	+		자신감(강조)
-다면서	의문문	청자중심	+	↗	되물음
			-	~	빈정거림
-다고	감탄문	청자중심	-	↗	따짐
	의문문				반문(놀람)
-다니	감탄문	화자중심	+	→	놀람(감탄)
	의문문	청자중심	-	↑	반문(따짐)

서희정(2013)은 인용 종결어미 ‘-다면서’, ‘-다니까’, ‘-다니’, ‘-다나’의 담화적 의미 기능을 밝혔으며, ‘-다고 하다’뒤에 오는 후행어미²⁰⁾ ‘-면서’ ‘-니까’, ‘-니’, ‘-나’가 그 의미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김홍범(1987)과 비슷한 관점으로 ‘-다면서’는 제3자에게 얻은 정보를 청자에게 확인하기 위한 질문 기능을 하거나 청자가 준 정보와 다르게 행동할 시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려는 질책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니까’는 화자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니’는 주로 청자에게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의외를 드러내며 상황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감탄, 반박, 겸손 태도가 함축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나’는 제3자에게 들은 정보에 대한 의심을

20) 이 글에선 ‘-다고 하다’와 결합되는 연결어미나 종결어미를 후행어미로 총칭하였다.

드러내는 기능을 하며, 의심으로 인해 ‘가벼운 불만’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임학혜(2016)는 준구어 자료인 한국 드라마 대본을 통해 고빈도로 사용되는 종결어미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담화·화용적 의미를 다음 표와 같이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II-6> 임학혜(2016)에서의 ‘-다X 류’ 종결어미의 의미 기능

종결어미	의미기능	세부 의미 기능	예문	의양
-다고	확인, 강조	①<반문 확인>: 앞서 말한 내용 확인.	아들: 엄마, 나 이따 나가야겠다. 엄마: 오후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	↗
		②<놀람/믿기 어려움>: 앞서 발화에 대한 믿기지 않음을 드러냄.	ㄱ: 영호 결혼했어. ㄴ: 영호도 결혼했다 다고 ?	↑
		③<소문 확인>: 제3자로부터 들은 정보 확인이나 소문으로 전해지는 말 확인.	ㄱ: 너 저번 주에 결혼했다 다고 ? ㄴ: 누구한테 들었어?	↗
		④<추측 확인>: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황을 추측하고 그에 대해 확인.	아직도 프렌즈팝을 모 른다고 ?	↗
		⑤<반복 강조>: 자신의 말을 되풀이 하거나 생각을 강조함.	아니, 내 말은 이 영화가 더 재미있겠다 고 .	↘, ~
		⑥<자랑/강조>: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자랑하거나 강조함.	우리 동생이 얼마나 예쁘 다고 . (자랑) 내가 얼마나 기다렸 다 고 . (강조)	~
		⑦<빈정거림/부정>: 들은 사실이나 남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 부정 하거나 빈정거림.	그 남자가 어디가 잘 생겼 다고 .	↘
		⑧<의문/걱정 해소>: 생각했던 것과 사실이 어긋날 때 의문.	난 똘 누가 아프 다고 .	↘
-다니	놀람, 부정	①<놀람, 믿기 어려움>: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놀람, 믿기 어려움을 나타냄.	병원에 안가도 되 다니 ? 그게 무슨 말이야?	↑
		②<놀람 감탄>: 어떤 사실에 대한 놀람 감탄, 분개 따위의 감정을 나타냄.	서울이 왜 이렇게 변하 다니 .	↘
		③<못 마땅함>: 주어진 어떤 사실에 대한 못 마땅함을 의문으로 나타냄.	입춘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춥 다니 ?	↗
		④<반박(부정)>: 상대방의 말을 듣	ㄱ: 여기서 담배를 피	↗

		고 원발화를 반박하면서 부정함.	우면 안 돼. ㄴ: 담배를 피우 다니 ? 난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됐어.	
		⑤<겸손(부정)>: 상대방의 말을 듣고 부정하면서 겸손의 의미로 나타냄.	ㄱ: 한국어 참 잘하시군요. ㄴ: 잘하 다니 요.	↘
-다니까	강조, 재확인	①<반복 강조>: 앞선 발화에 대한 청자의 반응이 없거나 믿지 못한다는 반응이 보일 때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함.	ㄱ: 나한테 돈 어디 있겠어? ㄴ: 마지막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ㄴ: 진짜 없 다니 까!	↑, ↗, ~
-다면서	-	①<소문 확인>: 제3자에 의해 발화된 것이나 소문으로 들은 것을 확인함. ②<따짐 물음>: 상대방이 말을 하지도 지키지 않음을 비난하거나 불만 하듯이 말함.	자네는 면사무소에 근무한 적도 있 다면서 ? 언제는 엄마가 제일 예쁘 다면서 ?	↗, ~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 종결어미로 쓰인 ‘-다고’와 ‘-다니’가 비인용표현에서 나타나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다고’의 ‘⑥<자랑/강조>’에서 제시된 예문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를 살펴보면 화자가 청자를 오래 기다렸다는 사실을 첫 발화로 강조하는 것으로 이를 인용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다니’의 ‘②<놀람 감탄>’에서 제시된 예문 “서울이 왜 이렇게 변하다니.”는 서울이 많이 변했다는 사실에 대한 감탄 따위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인용표현과 차이가 있다.

다음 일상대화 구어에서 나타나는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김정은(2008)은 현대구어원시말뭉치(국립국어원, 2007)를 연구자료로 활용하며,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원발화자를 기준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그는 원발화자에 따라 인용을 나의 말 인용, 대화 상대자 말 인용, 삼자 말 인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 의미 기능을 다음 표와 같이 살펴보았다.

<표 II-7> 김정은(2008)에서 제시된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나의 말 인용:	과거	떠올리기	내가 같이 가지 않겠냐고 했는데 아무
----------	----	------	----------------------

발화시 구분	발화 인용	다시 말하기	말도 없더라고. P1: 뭐가 안 된다고? P2: 배고프면 안 된다고.
	현재 발화 인용	불확신 드러내기	약간 그런 코드가 안 맞는 게 있다고 그래야 되나?
	미래 발화 인용	발화 계획 드러내기	부모님 만나고 제일 먼저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대화 상대자 말 인용: 환언하기	확인하기(반문, 의심)		아직까지 저녁 안 먹었다고?
	요구하기		오늘 영화 보여 준다고 했잖아.
삼자 말 인용: 전달, 심리 표출	전달	원발화자, 출처 드러내기	출판사를 끌어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경험 유무 표명	다들 거기 맛없대. 가지 말자.
		신정보 표명	이거 주식 뭐~ 뛰었다고 나왔더라.
	심리 표출	책임 회피	난 잘 몰라. 그냥 뭐, 오늘까지 내야 한다고 했으니까.
겸손 표출		(의사가 진행하는 강연 중) 아~일생 동안에 자기 뼈의 약 한 사십 퍼센트가, 이때, 만들어진다고 그러합니다.	

다음 김지혜(2011)는 준구어 말뭉치인 한국 드라마 대본에서 나타난 간접인용표현을 살펴보았으며, 간접인용표현의 기능을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향성²¹⁾을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8> 김지혜(2011)에서 제시된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인용	이야기 전달 방향 ²²⁾	담화 기능	
[+인용]	① 제3자→화자→청자	들은 내용 전달 (전달하는 내용은 청자에게 신정보)	전달
	② 제3자/청자→화자→청자	들은 내용 확인 (전달하는 내용은 청자에게 구정보)	확인 (놀람/불평)
	③ 화자→청자→화자→청자	자신의 말 반복·확인	확인 (불평)
[-인용]	④ 화자→청자	자신의 생각 전달	불평/설득

21) 이 글에선 화자가 인용표현을 사용해 전달하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 전달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접인용표현의 담화 기능을 분류시켰다.

이 글에서 ‘설득’ 기능에 대한 용례 “딴 생각이 없다니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자기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얻는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 논의되는 ‘강조’ 기능과 동일한 만큼 선행 연구를 정리할 때 이를 ‘강조’ 의미 기능으로 통일시켜 정리하겠다.

마지막으로 왕아천(2015)은 드라마 대사에 나타난 간접인용표현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고 그 의미 기능을 자기 인용, 대화 상대자 인용, 제3자 인용으로 구분해 다음 표와 같이 빈도수와 함께 제시하였다.

<표 II-9> 왕아천(2015)에서 제시된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²³⁾

구분		의미 기능	빈도수
화자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하는 경우	과거 발화	반복하기	12.00%(72/600)
		불만을 드러내기	5.50%(33/600)
		전달하기	4.67%(28/600)
	현재 발화	전달하기	16.50%(99/600)
		불만을 드러내기	15.67%(94/600)
		의문 확인하기	6.30%(94/600)
		과거 발화 재해설하기	2.67%(16/600)
		계획을 드러내기	2.17%(13/600)
		상황 가정하기	2.00%(12/600)
		요구하기(불평)	6.67%(40/600)
화자가 대화 상대자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하는 경우	확인/의심 드러내기	3.17%(19/600)	
	전달하기	13.00%(78/600)	
화자가 제3자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하는 경우	확인/의심 드러내기	6.33%(38/600)	
	책임 회피하기	2.00%(12/600)	
	불만/비난하기	1.33%(8/600)	

이 글에서 상황을 예측하고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예문 “넌 우리 중에 네 아빠가 있다고 생각한다?”²⁴⁾를 화자가 자신의 현재 발화를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상대방의 생각을 예측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경우를 상대방 (생각) 인용으로 보겠다.

22) 김지혜(2011)에서는 담화상에서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화자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화자’를 진하게 표시하였으나 본고는 분석 기준에 맞게 피인용문의 출처, 즉 원발화자를 진하게 표시하였다.

23) 해당 표는 원문의 표를 빈도수 내림차로 재정리한 결과이다.

24) 한국 드라마 <신사의 품격 14회>에서 나온 대사(왕아천, 2015: 53).

위의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고 각각의 연구에서 밝혀낸 의미 기능을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 맞게 다음 표와 같이 다시 정리하였다.²⁵⁾

<표 II-10>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정리²⁶⁾

구분	의미 기능	김홍범 (1987)	이창덕 (1999)	박영숙 (2011)	서희정 (2013)	임학혜 (2016)	김정은 (2008)	김지혜 (2011)	왕아천 (2015)
자기 인용	강조			강조	강조	강조		설득 (강조)	
	반복 확인	되풀이하여 확인해 줌	반복 확인 진술				다시 말하기	확인	반복하기
	떠올리기						떠올리기		
	전달								전달하기
	과거 발화 재설명								과거의 발화에 대한 재설명하기
	불평		비난	반박/ 따짐				불평	불만을 드러내기
	계획 드러내기						발화 계획 드러내기		계획을 드러내기
	걱정 해소					걱정 해소			
	상황 가정하기								상황 가정하기
	불확신 드러내기						불확신 드러내기		
상대	확인	확인 물음	확인 질문			확인	확인하기 (반문, 의의)	확인	확인/ 의심 드러내기

25) 특정 문법 항목의 의미 기능을 정리할 때 비인용표현으로 드러나는 의미 기능은 제외시켰다.

26)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용어는 각각의 선행 연구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본고는 이 용어들을 <표 II-10> 좌측 회색 칸에 들어간 용어로 통일시키고자 한다.

방 인 용	불평	따짐	힐책	따짐, 빈정 거림	질책	빈정 거림, 따짐	심) 요 구 하 기	불평	요 구 하 기 (불평)
	놀람	놀라움		놀람	감탄(놀 람)	놀람		놀람	
	겸손	겸손			겸손	겸손			
	반박				반박	반박			
	확인	확인 물음		되물음	확 인 질 문	확인		확인	확인/ 의심 드러내 기
제 3 자 인 용	불평	따짐			의심 드 러 내 기 (가벼운 불만)	빈정 거림		불평	불만/ 비난하 기
	놀람							놀람	
	전달						전달(출 처 드러 내 기 , 경험 유 무 표 명, 신 정보 표 정,)	전달	전달 하기
	책임 회피						책임 회 피		책임 회피하 기
	겸손						겸손 표 출		

해당 선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원발화자에 따라 의미 기능을 세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발화자에 따라 인용표현을 생성할 때 선택하는 시제, 높임법, 인용표지 축약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따른 의미 기능이 달라진다(김정은, 2008: 104). 따라서 본 연구도 원발화자에 따라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분류하여 범주화하고자 한다. 검토한 선행 연구 8개 중 절반(4개)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의미 기능을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²⁷⁾ 이 외에 자기 인용

및 제3자 인용의 경우 ‘전달’ 기능도 추가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의미 기능이 비록 4개 이상의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았으나 왕아천(2015)에 따르면 ‘자기 인용-전달’은 16.50%, ‘제3자 인용-전달’은 13.00%로 준구어 자료인 드라마 대사에서 상당히 높은 빈도수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어 문법 교재에서도 높은 빈도수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1> 본고에서 선정된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구분		의미 기능
자기 인용	의도적 측면	전달
		반복 확인
		강조
감정적 측면	불평	
상대방 인용	의도적 측면	확인
	감정적 측면	놀람
제3자 인용	의도적 측면	전달
		확인
	감정적 측면	불평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위의 표와 같은 의미 기능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해당 의미 기능은 상황 맥락에 주어지 억양, 종결어미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여기는 본고는 이를 간접인용표현의 고유 파생된 의미 기능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해당 의미 기능이 드러내는 맥락에서 간접인용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²⁷⁾ 둘째, 본고에서는 위의 의미 기능들을 모두 같은 측면에서 논의하지 않고 의도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으로 나눠 살펴본다. 감정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27) 선정된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은 <표 II-10>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다.

28) 채숙희(2020)에서는 인용 동사와 다른 양태소를 결합해 합성적으로 발생하는 의미 기능이기에 인용표현 자체의 의미 기능으로 보기가 어려우나, 인용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다.

의미 기능(놀람, 불평)은 의도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의미 기능(전달, (반복)확인, 강조)을 실현할 때 수반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용례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① 자기 인용-전달

(25) 내가 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가지고 오라고 했어.

(<새 연세 한국어 어휘와 문법> 2-2, p.51)

(26) 저는 리에 씨가 잘못했으니까 리에 씨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 연세 한국어 어휘와 문법> 3-1, p.82)

위의 예문(25)를 보면 청자는 화자가 제3자인 동생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궁금해했기 때문에 화자는 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와.”라고 했던 말을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였다. 인용된 발화 내용은 화자가 청자에게 처음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예문(26)은 화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화 형식으로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이미 발화했던 말뿐만 아니라 발화되지 않은 생각도 피인용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화자가 자신이 ‘무슨’ 말이나 생각을 했는지를 청자에게 전해주기 위해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전달’ 의미 기능을 드러낸다.

② 자기 인용-반복 확인

(27) A: 영수가 숙제를 해.

B: 응? 뭐라고?

A: 영수가 숙제를 한다고.

김홍범(1987: 84)

(28) P1: 아 너 뭐 사다 달라고 그랬는데?

P2: 초콜릿 사다 달라고 그랬는데.

[현대국어원시말뭉치, 국립국어원(2007)], 김정은(2008: 99)

위의 (27)은 A가 B에게 영수가 숙제를 한다고 한 번 말해줬는데 B가 이를 잘 듣지 못했기에 뭐라고 했냐고 확인하였음에 대해 A가 자신이 방금 했던 발화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B에게 확인시켜줄 때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였다. (28)에선 P2가 P1에게 초콜릿을 사 달라고 했었는데 P1이 이를 잘 듣지 못하거나 기억이 안 나 P2에게 뭐 사 달라고 했냐고 물어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P2는 P1에게 자신이 했던 앞선 발화를 상기시켜주려고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청자가 화자의 과거 대화를 잘 듣지 못했기에 화자에게 확인해 달라고 할 때 화자가 자신의 과거 발화를 되풀이하며 확인시키기 위해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화자가 아무 감정을 섞여 있지 않고 청자에게 자신이 무슨 발화나 생각을 했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은 ‘전달’ 의미 기능과 비슷해 보이나 화자가 과거에 해당 내용을 한 번 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점은 다르다.

③ 자기 인용-강조

(29) 구미호: 네가 나한테 이런 선물도 줬으니까 나도 네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어?

대응: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구미호: 너한테 뭐든 해주고 싶다니까~ 원하는 걸 말해 봐, 대응아.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 6회>, 임학혜(2016: 65)

(30) 철수: 재현아! 나 어제 라라랜드를 봤는데 재미있어! 강추!

재현: 그래? 평가가 별로인 것 같던데?

철수: 아니야. 이 영화는 진짜 재미있다고! 보면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재현: 그렇게 재미있어? 알았어. 한 번 믿고 볼게.

예문(29)를 보면 구미호가 대웅에게 선물을 받았고 대웅에게도 잘해주고 싶다고 말했으며 뭐 해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대웅이 방해하지 말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다. 대웅의 반응을 보고 구미호가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애교를 부리면서 자신의 입장(뭐든 해주고 싶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때 화자인 구미호가 청자인 대웅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30)을 보면 철수가 재현에게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재미있다고 이 영화를 추천해줬는데 재현이 영화의 평가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수가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여 자신의 주장(이 영화가 진짜 재미있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자가 화자의 과거 발화나 생각을 정확히 들었지만, 이에 대해 무반응 또는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을 때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다시 ‘강조’하기 위하여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이 화자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화자는 이에 대한 ‘짜증’이나 ‘불만’ 따위의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④ 자기 인용-불평

(31) 지옥 : 목소리 낮춰.

설희 : 대체 언제까지 비위 맞춰야 날 사람으로 봐 줄 거니? 왜 이렇게 잔인하니, 당신 집 사람들!

지옥 : (낮고 강한) 소리 죽이라고 했어.

<나는 전설이다>, 김지혜(2011: 55)

(32) 은새: (새된 목소리로) 여긴 왜 왔어? 학원엔 찾아오지 말랬잖아!

민엽: (무안한, 누르고 다정히) 전화 안 받길래 나는, 같이 영화 보려고. (주머니에서 표 뒤지는)

<커피프린스 1호점 8회>, 왕아천(2015: 49)

(31)을 보면 지옥이 설희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는데 설희가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은 간접

인용표현이 담긴 문장을 통해 “목소리를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었어?”라는 의미를 담아 비난하듯이 불평하였다. 그리고 (32)를 보면 은새가 민엽에게 학원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으나 민엽이 말을 듣지 않고 학원까지 찾아와 은새는 간접인용표현이 포함된 문장을 사용해 “학원엔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찾아왔어?”라는 의미를 담아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화를 인용하여 민엽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화 상대자가 화자의 과거 발화와 다르게 행동했을 때 화자는 자신의 과거 발화를 청자에게 상기시켜주거나(반복 확인) 강조하면서 청자에 대한 ‘따짐’이나 ‘불만’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이 전에 했던 발화를 반복적으로 확인시켜주거나 자신의 입장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했으며 이때 불평이라는 감정이 수반되는 것이다. 여기서 간접인용표지 ‘-라고’는 명령문에서 쓰이는 것으로 ‘요청’, ‘부탁’, ‘명령’ 등의 의미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으나 화자가 청자에게 발화 당시에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이미 요청했던 것을 따르지 않은 청자에게 ‘왜 내 요청/부탁/명령을 안 들어주니?’라는 의미를 담아 ‘질책’, ‘비난’, ‘못마땅함’ 등과 같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불평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⑤ 상대방 인용-확인

(33) 너 오늘 저녁에 시간 없다고 했지?

김정은(2008: 101)

(34) 아들: 엄마, 나 이따 나가야겠다.

엄마: 오후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임학혜(2016: 53)

예문(33)을 살펴보면 발화 당일(오늘)의 오전에 상대방이 오늘 저녁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오후에 화자가 상대방이 해당 발화

를 말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34)에선 아들이 엄마에게 이따 나가야겠다고 말했는데 엄마는 화자로서 청자(아들)의 앞선 발화를 즉시 확인하듯이 오후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화자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특별한 감정 없이 상대방이 정말 그렇게 말했었는지 혹은 상대방의 발화를 듣고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를 상대방에게 단순히 확인하는 경우에서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상대방 인용-놀람

(35) 안주인: 말 못해! 무슨 일이냐니까! 뭘 잘못을 저지른 거야 대체!

순경1: (뒤에서) 그 두 녀석이 빵공장에서 빵을 훔치다 걸렸답니다.

안주인: 예? (놀라서 돌아본다) 우리 기만이가요? 빵을 훔쳤다고요!?

<제빵왕 김탁구 2회>, 왕아천(2015: 59)

(36) 할아버지: 뭐? 그 아이가 떠났다고!?

대웅: 아침에 일어났더니 말도 없이 사라졌더라고.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 5회>, 임학혜(2016: 46)

위의 예문(35)은 안주인이 기만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말하려고 했는데 기만이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 순경1은 기만이 빵을 훔쳤다는 사실을 안주인에게 전해줬고 안주인이 이를 듣고 이에 대한 놀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때 안주인이 순경1의 앞선 말을 단순히 확인하는 의미를 넘어 ‘믿기 어려움’이라는 감정이 동반된다. 그리고 예문(36)은 대웅이 할아버지에게 자기 여자 친구가 말도 없이 집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할아버지가 대웅의 말을 듣고 아주 놀랍고 자기가 예뻐했던 아이가 이별 인사 없이 떠났다는 소식에 충격 받아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상대방이 방금 했던 말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놀람’을 추가로 드러낼 때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상대방 인용-불평

(37) 민엽: (불만스레) 왜 은새랑 나랑 안 줘어줘요? 줘어준다며...

은찬: (난감한) 야야, 개가 좀 바쁘냐. 보충 수업하랴, 노래 학원 다니랴, 니가 이해... 아니다, 내가 내일 은새한테 전화하라고 하께. 약속.

민엽: (급 방긋) 진짜쨌, 진짜?

<커피프린스 1호점 7회>, 왕아천(2015: 60)

(38) [혜원과 영재가 통화 중, 지은이 영재의 옆에 있다.]

영재: 혹시 너 내 반지 못 봤니? 거기 두고 온 거 같은데.

혜원: 반지?... (나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라 반지 때문에.....순간 실망.....) 그거 때문에 전화했구나.....(쌀쌀맞게)아니.....

영재: 어, 그래 그럼 됐어. 어, 그래 쉬어. 어.(끊고)

지은: 뭐라 그래요?

영재: 없대.

지은: 진짜 없는 거 맞아요? 거기 놓고 왔다면서요?

<플하우스 6회>, 임학혜(2016: 68)

용례(37)를 보면 은찬이 민엽에게 은새와 줘어준다고 했는데 안 줘어줘서 민엽이 은찬에게 불만이 생겨 은찬의 과거 발화를 인용하여 “줘어준다면서 왜 안 줘어줬어?”라는 의미를 담아 따지는 말투로 불평하였다. 이에 대해 은찬이 은새가 바빠서 줘어주지 못했다고 해명하였다. 그리고 용례(38)은 영재가 반지가 혜원에게 있는 줄 알고 혜원에게 전화로 확인해 보니 거기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조금 전에 영재가 지은에게 거기에 놓고 왔다는 말과 일치하지 않아 지은이 영재의 앞선 발화를 인용하여 “거기에 놓고 왔다면서 왜 없는 거야?”라는 의미가 담겨 따지는 식으로 불평하였다. 이처럼 상대방이 했던 말을 지키지 않거나 상대방이 말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날 때 화자는 상대방의 과거 발화를 언급함으로써 “왜 약속을 안 지키니?” 혹은 “왜 네가 말했던 것과 다르니?”라는 의미로 청자에게 이를 재확인하면서 ‘불만’, ‘비

난’, ‘질책’, ‘비꼼’ 등 부정적인 감정이 함축되는 ‘불평’을 추가로 늘어 놓는 경우에서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⑧ 제3자 인용-전달

(39) 차지검장: 누가 말해 봐. 큰애 왜 저러는지.

시누: 큰언니 동생, 골수암이래요, 아버지.

<나는 전설이다>, 김지혜(2011: 52)

(40) 탁구: 봉빵? 그게 뭐야?

미순: 있어. 한때 나라의 대통령까지 그 빵맛 때문에 할아버지 가게에 들렀었다는 아주 유명한 빵.

탁구: 그래? 근데 그렇게 유명한 빵을 왜 지금은 안 만들어?

미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진짜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몰라.

그 빵을 좋아하셨던 분이 돌아가셔서라고도 하고, 그 빵의 발효 중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만들게 됐다고도 하고.

<제빵왕 김탁구 17회>, 왕아천(2015: 66)

(39)는 차지검장(아버지)이 큰애(큰언니, 차지검장 첫 번째 며느리)가 왜 표정이 안 좋은지를 물어봤는데 시누(차지검장 딸)가 제3자 의사님에게 들은 내용, 즉 큰언니의 동생이 골수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차지검장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40)은 미순이 탁구에게 한때 빵맛 때문에 대통령까지 할아버지 가게에 들렀었다는 아주 유명한 빵이라고 봉빵을 소개해줬고 탁구가 그렇게 유명한 빵을 왜 지금은 안 만드냐고 물어봤는데 미순이 이에 대해 답하였다. 미순이 대답한 내용은 자신의 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소문이라서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단순히 타인에게 얻은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의미 기능을 수행할 때 간접인용표현이 자주 쓰인다.

⑨ 제3자 인용-확인

- (41) A: “C”의 애인이 미인이야.
 B: 그래?
 B: 네 애인이 미인이라면서?
 C: 미인이기는.

김홍범(1987: 79-80)

- (42) ㄱ: 아, 맞다. 너 저번 주에 결혼했다고?
 ㄴ: 누구한테 들었어?

임학혜(2016: 53)

예시(41)을 보면 A가 B에게 C의 애인이 미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B가 A에게 들었던 말이 사실인지를 C에게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42)를 살펴보면 ‘ㄱ’과 ‘ㄴ’이 다른 화제를 이야기하다가 화자(ㄱ)는 전에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전해들은 소식, 즉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소식이 사실인지를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3자로부터 전해지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간접인용표현이 관습적으로 쓰인다.

⑩ 제3자 인용-불평

- (43) 고변: 웬 일이슈?
 설희: 저.. 장태현 씨...
 고변: 내가 후져 보인다고 했다면서? 근데 왜?

<나는 전설이다>, 김지혜(2011: 54)

- (44) 오늘 철수 씨 신경이 무척 날카로워 보여요. 오늘은 자기한테 말도 시키지 말라나요?

<경5-75>, 서희정(2013: 266)

예문(43)은 설희가 고변에게 찾아가 무엇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고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말을 떠올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후져 보인

다고 했는데 왜 또 나를 찾아온 거냐?”라는 의미를 담아 설희에게 확인 하면서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예문(44)에선 화자는 철수가 자기에게 말을 시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청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화자가 철수에게 들은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도 이런 말을 한 철수에 대한 가벼운 불만을 드러내는 의미가 수반된다. 이처럼 상대방이 제3자에게 들은 것과 달리 행동해서 화자는 상대방에게 “왜 내가 들은 것과 다르게 행동한 거냐?”라는 의미로 확인하면서 언행 불일치의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경우와 화자는 제3자의 발화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해당 발화를 한 제3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에서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II-1] 간접인용표현 의미 기능²⁹⁾



29)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접인용표현 자체가 가진 의미 기능이 아니라 해당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직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앞에서 살펴봤듯이 직접인용은 피인용문 형식을 중심으로 하는 인용 방식이며 간접인용은 피인용문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인용 방식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인용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한다. 피인용문의 의미를 중심으로 인용할 때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면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고 피인용문의 형식을 중심으로 인용할 때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면 상황에 알맞은 의미 기능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직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직접인용의 의미 기능에 대해 Chafe & Nicholas(1986)는 직접인용을 ‘근거성 표지’의 하나로 보았고 Macaulay(1987)는 직접인용이 ‘객관성, 진정성(authenticity)’을 가져다준다고 했으며, Tannen(1989)은 직접인용을 ‘생동감(vividness)’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³⁰⁾

먼저 ‘생동감’에 대해 김정은(2008)에서 ‘극적인 효과 기능’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원발화 상황이 직접인용을 통해 그대로 재현되며 극적인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사건을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이다. 김해연(2017)에서도 직접인용표현은 독자³¹⁾들을 발화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발화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과 같이 현장감과 선명성을 가져다준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송화(2018)에서는 직접인용은 원발화 상황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며 월발화자의 발화 의도 및 발화 양태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 ‘객관성, 진정성’, 즉 ‘근거성 표지’에 대해 김정은(2008)은 ‘실제적 증거 제시의 기능’이라고 표현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접인용을 통해 전달될 정보에 해당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실제성 및 신뢰성을 더해준다. 그리고 채숙희(2011)는 직접인용을 통해 원발화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인용된 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사실성(originality)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윤현애·윤정원(2012)에

30) 이원표(2005: 125) 재인용.

31) 이 글에선 신문 사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독자’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독자’는 구어 상황에서의 ‘청자’와 동일한 의미이다.

서도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삼아 내용을 직접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객관성을 지니게 하며 발화의 설득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송화(2014)는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와 같은 인용 부호가 나타나는 직접인용표현을 통해 인용된 내용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해연(2017)에선 직접인용은 화자 자신의 주장이나 평언(comment)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를 검토한 결과 직접인용표현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의미 기능은 청자에게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하거나 인용된 내용의 객관성 및 사실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 기능 외에 기존 연구들에서 논의된 직접인용표현의 다른 의미 기능을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본고는 실제 구어 말뭉치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김정은(2008)을 참고하여 ‘언어적 형식 재현 기능’을 직접인용표현의 세 번째 기능으로 보겠다. 그에 따르면 전달하는 피인용문의 모습 그 자체가 중요할 때 직접인용표현 사용을 통해 ‘언어적 형식 재현 기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직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①생동감 부여, ②객관성 및 사실성 강화, ③언어 형식 재현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직접인용 표지에 의해 드러내는 것이기에 직접인용표현 자체가 가진 의미 기능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다.

① 생동감 부여

(45) 여: 사오정 친구들이 카페에 갔대. 사오정1이 “난 우유.” 그러니까 사오정2가 “그럼 난 우유.” 그랬대. 그때 사오정 3이 “그럼 나도 콜라.” 그러니까 사오정4가 “그래. 여기 콜라 4잔 주세요.” 했대. 그랬더니 사오정 웨이터가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가게엔 울무차가 없는데요.” 했대.

남: 되게 썰렁하네. 그게 뭐가 웃기냐.

(이창덕, 1999: 273-274)

예시(45)는 여자가 들은 개그 이야기를 남자에게 전달하는 상황이다. 여자는 발화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했던 발화를 변화시키지 않고 발화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남자에게 재현하였다. 여기서 ‘사오정 친구/웨이터’는 중국 사대기서(四大奇書) <서유기>에서 등장한 인물 ‘사오정’이 귀가 안 좋다는 것으로 말장난한 표현이다. 여기서 직접인용표현을 통해 청자로 하여금 발화 현장을 상상하게 하되 마치 본인도 발화 현장에 있는 듯이 발화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과 같이 느끼게 한다. 여기서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면 당사자들의 발화 내용의 의미를 중심으로 전달할 것이며 화자의 억양을 통해 전달될 발화에 생동감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으나 직접인용표현을 통해 원발화자의 언어 표현과 억양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그 생동감 부여 효과를 얻을 수 없다.

② 객관성 및 사실성 강화

(46) 지금 협정문에 한 번 보십시오. … 두 번째에 보면 **“대한민국이 민영화를 추진할 때는 예외다.”**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보시면 공공정책이 전반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말씀은 하시면 곤란하죠.

(윤현애 · 윤정원, 2012: 8)

예문(46)은 화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때 공신력 있는 자료인 협정문에서 나타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이다. 즉 협정문에 ‘대한민국이 민영화를 추진할 때는 예외다.’라고 나와 있으니 공공정책이 전반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여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을 알려준다. 이때 화자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직접인용표현을 통해 인용하여 이런 발언이나 주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주장의 ‘객관성’, ‘사실성’, ‘신뢰성’을 강화한다. 사실 이 경우 간접인용표현을 통해 그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도 있으나 의도적으로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여 피인용문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피인용문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피인용문에는 화자 자신의 이해나 생각을 전혀 추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간접인

용표현보다 객관성 및 신뢰성 강화 효과가 더 강하다.

③ 언어 형식 재현

(47) 프론트에서 “모가쿠폰 주세요!”라고 외치세요.

(채숙희, 2011: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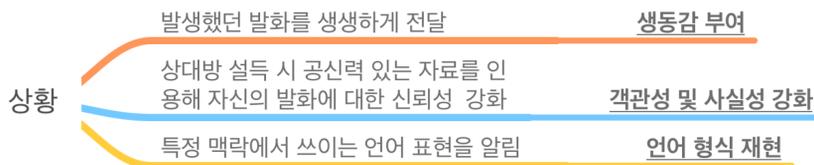
(48) 한국어에서는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라고 해요.

(김정은, 2008: 112)

예문(47)은 화자가 청자에게 프론트에서 쿠폰을 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알리는 것이며 예문(48)은 화자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청자에게 한국인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자주 쓰는 관용 표현을 알리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담화 상황에서 쓰이는 특정 언어 표현을 드러내기 위해 피인용문의 의미에 중심을 두는 간접인용표현보다 피인용문의 형태를 강조하는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II-2] 직접인용표현 의미 기능



Ⅲ. 중국인 학습자의 인용표현 의미 기능 사용 양상 분석

1. 인용표현 사용 양상 연구의 절차 및 방법

1.1. 연구 참여자 선정

본고는 중급 및 고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용 양상을 조사하고자 한다.³²⁾ 인용표현 사용 정도를 원어민과 비교하기 위해 대조 집단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들에게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초급 학습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인용표현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한국어 문법 교재를 살펴보면 인용표현에 대한 교수·학습은 중급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중급(TOPIK 3급) 이상의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시켰다. 그리고 교재로 인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교재를 사용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무선 표집하였다. 이와 같은 선정 기준으로 중국인 한국어 중급 학습자 40명, 고급 학습자 40명, 그리고 한국어 모어 화자 40명, 총 120명을 모집하였다.³³⁾ 설문조사 대상자의 세부 정보를 다음 표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표 III-1> 설문조사 대상자의 세부 정보

구분	중국인 중급	중국인 고급	한국인
----	--------	--------	-----

32) 중국인 조선족을 제외하며 한족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시켰다.

33) 설문조사는 중국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WENJUANXING(問卷星)을 활용하여 2022년 8월 10일부터 2022년 8월 19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131명의 응답자의 언어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그중 11부의 답안지를 무효로 처리하였으며 본고에서 분석하게 된 언어 자료는 총 120부이다.

성별	남성	5	1	20
	여성	35	39	20
나이	15~19	3	1	2
	20~24	26	19	13
	25~29	10	20	15
	30 이상	1	0	10
학습 기간	1년 이내	7	0	-
	1~2년	17	7	
	2~3년	13	14	
	3~4년	0	4	
	4년 이상	3	15	
사용 교재	연세대 교재	11	8	-
	고려대 교재	5	9	
	경희대 교재	12	7	
	중앙대 교재	5	6	
	기타	7	10	
총 인원수		40	40	40

1.2. 연구 절차

먼저 문헌 검토를 통해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이론적 배경지식을 탐색한 뒤 이에 기초하여 문항을 만들고 설문조사를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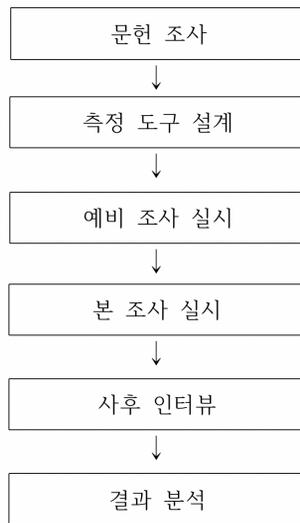
다음 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검사 도구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비 조사 2번을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어 모어 화자 5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피드백을 받아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다음 수정된 설문지를 통해 중국인 중급 및 고급 학습자 각각 5명에게 2차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측정 도구의 적절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중국인 중급 및 고급 학습자, 모어 화자 각각 40명을 모집하여 총 120명의 설문지 답안을 수집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언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용 양상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양상을 보여주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문제중심 인터뷰(Problem-Centered Interview)를 통해 응답자에게 왜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만약

인용표현을 사용했다면 왜 이렇게 작성했는지,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 및 사후 인터뷰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를 다음 그림으로 제시한다.

[그림 III-1] 연구 절차



1.3. 설문 내용 설계

설문조사의 구성은 두 가지 부분으로 실현된다. 첫 번째 부분은 인적 사항 조사이고 두 번째 부분은 사용 양상 조사이다.

먼저 인적 사항 조사는 <표 III-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TOPIK 등급, 성별, 나이, 한국어 학습 기간, 사용 교재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조사하는 것이다.

다음 사용 양상 조사에서는 직접과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사용 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26개의 담화완성형 과제(Discourse Completion Task, DCT) 문항을 설계하였다.³⁴⁾

34) 고찰된 직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은 3개,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은 10개, 총 13개이었으나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정확하고 다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의미 기

담화완성형 과제 of 구성을 살펴보면 인용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³⁵⁾ 해당 상황에서 일어나는 대화문을 제시하며 대화문에서 인용표현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빈칸으로 제시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표현으로 담화를 완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단답형 주관식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한 이유는 학습자들의 인용표현 형태 사용의 정확도를 살펴보기 위함이 아니라 응답자들이 주어진 선택항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인용표현을 산출할 수 있는지와 인용표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³⁶⁾

설문지에서 사용된 대화 예문들은 한국어 교재 및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용례를 참고하여 본고의 목적에 따라 수정한 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검토 및 수정을 걸쳤다. 또한 대화문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급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담화 상황을 중국어로 설명하였으며 대화문에서 어려워할 것 같은 어휘에 중국어 해설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설계한 문항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 사용 양상 조사를 위한 문항 예시³⁷⁾

<p>【情景21說明】兩天前철수被선생님訓話。今天철수가學校門口碰到了재현，재현聽說철수被선생님訓話的事情，便詢問此事。假如你是철수，你將如何把兩天前的事<u>生動地</u>描述給재현聽呢？</p> <p>([상황21 설명] 이틀 전 철수는 선생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오늘 철수는 교문 앞에서 재현과 만나게 되고 재현은 철수가 선생님에게 혼이 났다는 걸 듣고 이에 대해 물어봅니다. 철수로서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u>생동감 있게</u> 재현에게 알려주세요.)</p> <p><대화1></p>

능에 대한 문항은 2개를 설계하여 구성하였다.

35) 대화 발생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여 응답자가 상황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36) 주관식 DCT는 특정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언어를 산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시된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학습자의 언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정은, 2008: 53).

37) 이는 직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중의 '생동감 부여'를 고찰한 문항 예시이다.

선생님: 철수야, 학교 오는데 교복 왜 안 입고 왔나?
 철수: 옷을 세탁했는데, 아직 덜 말라서 못 입고 왔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여벌옷(備用校服)도 같이 샀었잖아.
 철수: 어머니가 그 옷도 같이 세탁해서요...
 선생님: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

<대화2>

재현: 며칠 전에 선생님께서 혼난다고 들었어.
 철수: 응. 맞아.
 재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
 철수:

위와 같은 방식으로 26개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문지를 만들어 예비 조사를 진행해 봤다. 하지만 직접인용표현에 대한 문항을 앞부분에서 넣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인용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하였고 연구 주제가 인용표현과 관련된 것을 인식했으므로 인용표현을 잘 사용하지 못해도 의도적으로 문장 끝에 “-다고 해/했어”로 부자연스럽게 붙이는 현상이 일어나 인용표현의 사용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조사 대상들이 어떤 문법 항목에 대한 지식을 측정 당하는 것을 모르게 하며 학습자의 ‘암묵적인 문법 능력’을 고찰하기 위하여 인용표현을 사용해서 안 되는 문항³⁸⁾ 9개를 추가하여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개 문항마다 비인용표현 문항 하나를 첫 번째로 배치하며 나머지 26개 인용표현 문항들을 무작위 난수 생성을 통해 고루 섞이도록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걸쳐 구체적인 사용 양상 조사의 구성을 다음 표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표 III-3> 사용 양상 조사의 구성

문항 순서	고찰한 의미 기능
Q.1	비인용표현 문항
Q.2	간접인용표현-상대방 인용-확인

38) 아래 ‘비인용표현 문항’ 용어를 사용하겠다.

Q.3	간접인용표현-자기 인용-전달
Q.4	간접인용표현-자기 인용-전달
Q.5	비인용표현 문항
Q.6	간접인용표현-상대방 인용-놀람
Q.7	간접인용표현-자기 인용-반복 확인
Q.8	간접인용표현-제3자 인용-전달
Q.9	비인용표현 문항
Q.10	간접인용표현-제3자 인용-확인
Q.11	직접인용표현-언어형식 재현
Q.12	간접인용표현-제3자 인용-전달
Q.13	비인용표현 문항
Q.14	간접인용표현-자기 인용-강조
Q.15	간접인용표현-자기 인용-불평
Q.16	직접인용표현-언어형식 재현
Q.17	비인용표현 문항
Q.18	간접인용표현-제3자 인용-확인
Q.19	직접인용표현-생동감 부여
Q.20	간접인용표현-자기 인용-불평
Q.21	비인용표현 문항
Q.22	간접인용표현-자기 인용-강조
Q.23	간접인용표현-자기 인용-반복 확인
Q.24	간접인용표현-상대방 인용-불평
Q.25	비인용표현 문항
Q.26	간접인용표현-상대방 인용-놀람
Q.27	직접인용표현-생동감 부여
Q.28	간접인용표현-제3자 인용-불평
Q.29	비인용표현 문항
Q.30	간접인용표현-상대방 인용-확인
Q.31	간접인용표현-제3자 인용-불평
Q.32	간접인용표현-상대방 인용-불평
Q.33	비인용표현 문항
Q.34	직접인용표현-객관성 강화
Q.35	직접인용표현-객관성 강화

1.4. 분석 방법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착안하여 본 조사 결과를 양적과 질

적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측면에서는 양적 분석으로 설정된 상황 속에서 각각의 연구 대상 집단들의 인용표현 수용도를 확인하고 비교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인용표현 사용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각 집단의 인용표현 사용 빈도수를 제시하며 인용표현 사용 빈도에 대한 집단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SPSS 27.0 프로그램에 있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활용하였다.³⁹⁾

두 번째 측면에서는 질적 분석으로 학습자들이 담화를 완성할 때 어떤 중간언어적 양상을 보이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언어 자료를 Microsoft Excel에서 그대로 나열하고 집단별 각각 문항에서 나타나는 모든 양상을 살펴보고 정리하며 양상을 특징에 따라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였다.

2. 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조사 결과

2.1.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조사 결과

간접인용표현에 대한 상황에서 응답자들의 언어 산출 양상은 크게 인용표현을 사용한 경우 및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

39)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은 분산분석(ANOVA) 종류 중 하나이다. 분산분석은 통계학에서 두 개 이상의 집단을 비교 분석할 때 집단 내의 분산, 총평균, 그리고 집단별 평균의 차이에 의해 생긴 집단 간 분산을 통해 얻어진 분포비율(F분포)을 이용해 집단별 모집단분산 및 모집단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일원분산분석은 독립변인(independent)이 1개이며, 독립변인의 집단은 2개 이상 사용된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1개이며, 독립변인의 집단은 '중국인 중급 학습자', '중국인 고급 학습자', '한국인' 3개이다. 각 표본 집단은 정규분포에 따른다.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은 서로 독립된 k 개의 모집단의 중심위치 차에 관한 추론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대응되는 방법이다. 다만,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은 비모수적 검정이고 일원분산분석은 모수검정이다. 따라서 계량화된 수치가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통과한 경우 일원분산분석으로 진행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으로 진행하였다.

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사용한 인용표현은 모두 간접인용표현인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용표현의 사용 빈도수는 곧 간접인용표현의 사용 빈도수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중국인 중급, 중국인 고급, 한국인 이 세 집단의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4> 집단별 전체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집단 ⁴⁰⁾	사용 빈도수 평균 ⁴¹⁾
중국인 중급	8.225/20 (41.1%)
중국인 고급	10.600/20 (53.0%)
한국인	14.300/20 (71.5%)

위의 표를 살펴보면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상황을 총 20개 제시했으나 이를 인식하고 간접인용표현을 산출한 응답 수를 통계하면 중국인 중급 학습자는 평균 8.225개, 고급 학습자는 평균 10.600개, 한국인은 평균 14.300개로 나왔다. 즉, 71.5%의 한국인들이 간접인용표현을 선호하는 담화 맥락에서 41.1%의 중급 학습자 및 53.0%의 고급 학습자들이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의 간접인용표현 사용은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간의 전체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5> 전체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ANOVA 결과⁴²⁾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집단 간	749.817	2	374.908	46.223	0.000
집단 내	948.975	117	8.111		
전체	1698.792	119			

ANOVA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단 간의 전체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

40) 아래에 '중국인 중급'을 '중급'으로, '중국인 고급'을 '고급'으로 표시한다.

41) 결과에 제시된 사용 빈도수는 평균 수치이다. 전체 사용 빈도수=평균*인원수
예: 전체 상황에서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전체 사용 빈도수=8.225*40=329(회)

42) 본고에서 사용된 통계 검증 도구(one-way ANOVA, Kruskal-Wallis test)의 유의미 기준은 모두 'p<0.05'로 설정된다.

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사후 검증(Scheffe te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6> 전체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사후 검증 결과

집단	평균 차이	p
중급-고급	-2.375*	0.001
중급-한국인	-6.075*	0.000
고급-한국인	-3.700*	0.000

<표 III-6>을 살펴보면 중급-고급, 중급-한국인, 고급-한국인 간 모두 통계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에 숙달도 변인이 존재하며 실제 대화 담화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모어 화자처럼 상황을 인식해 간접인용표현을 산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가 구체적으로 ‘자기 인용’, ‘상대방 인용’, ‘제3자 인용’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원발화자에 따른 집단별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I-7> 원발화자에 따른 집단별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구분	집단	사용 빈도수 평균
자기 인용	중급	3.175/8 (39.7%)
	고급	4.025/8 (50.3%)
	한국인	5.175/8 (64.7%)
상대방 인용	중급	2.100/6 (35.0%)
	고급	2.725/6 (45.4%)
	한국인	4.250/6 (70.8%)
제3자 인용	중급	2.950/6 (49.2%)
	고급	3.850/6 (64.2%)
	한국인	4.875/6 (81.3%)

위의 표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제3자 인용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자기 인용 및 상대방 인용 상황에서의 간접인용표현 사용률은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의

경우, 제3자 인용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점은 중국인 학습자와 같으나 상대방 인용, 자기 인용 상황에서의 간접인용표현 사용률이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인 학습자와 다르다. 이는 인용표현이 기본적인 전달 의미로 제3자의 발화나 생각을 인용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이 상대방 인용보다 자기 인용에서 간접인용표현을 더 많이 산출한 것은 대부분의 교재에서 상대방 인용보다 자기 인용에 대한 예문이 더 많이 등장했기에 이에 대한 학습자의 습득도가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다음은 원발화자에 따른 집단 간의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I-8> 원발화자에 따른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ANOVA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자기 인용	집단 간	80.600	2	40.300	22.186	0.000
	집단 내	212.525	117	1.816		
	전체	293.125	119			
상대방 인용	집단 간	97.850	2	48.925	35.984	0.000
	집단 내	159.075	117	1.360		
	전체	256.925	119			
제3자 인용	집단 간	74.217	2	37.108	25.334	0.000
	집단 내	171.375	117	1.465		
	전체	245.592	119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 인용, 상대방 인용, 그리고 제3자 인용, 즉 모든 경우에서 집단 간의 간접인용표현의 사용 빈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정확히 어떤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 결과를 알아보겠다.

<표 III-9> 원발화자에 따른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사후 검증 결과

구분	집단	평균 차이	p
----	----	-------	---

자기 인용	중급-고급	-0.850*	0.021
	중급-한국인	-2.000*	0.000
	고급-한국인	-1.150*	0.001
상대방 인용	중급-고급	-0.625*	0.061
	중급-한국인	-2.150*	0.000
	고급-한국인	-1.525*	0.000
제3자 인용	중급-고급	-0.900*	0.005
	중급-한국인	-1.925*	0.000
	고급-한국인	-1.025*	0.001

위의 표를 살펴보면 자기 인용 및 제3자 인용의 경우 모든 집단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나왔다. 이는 숙달도 변인이 사용 빈도수에 영향을 미쳐 한국어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 인용 및 제3자 인용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을 산출하는 능력이 높아질 수 있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 수준만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인용의 경우 중급-한국인, 그리고 고급-한국인 간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중급-고급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상대방 인용의 경우 숙달도 변인이 존재하지 않아 한국어 수준이 높아져도 간접인용표현의 산출 정도가 늘어나지 않기에 고급 수준에 달해도 모어 화자처럼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0가지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각각 상황에서의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냈는지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하여 의미 기능에 따른 집단별 간접인용표현의 사용 빈도수를 살펴보고 통계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의미 기능에 따른 집단별 간접인용표현의 사용 빈도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I-10> 의미 기능에 따른 집단별 간접인용표현의 사용 빈도수

의미 기능		집단	사용 빈도수 평균
자기 인용	1. 전달	중급	1.175/2 (58.75%)
		고급	1.375/2 (68.75%)
		한국인	1.125/2 (56.25%)
	2. 반복 확인	중급	1.025/2 (51.25%)
		고급	1.325/2 (66.25%)

	3. 강조	한국인	1.425/2 (71.25%)	
		중급	0.025/2 (1.25%)	
		고급	0.225/2 (11.25%)	
	4. 불평	한국인	0.875/2 (43.75%)	
		중급	0.950/2 (47.50%)	
		고급	1.100/2 (55.00%)	
상대방 인용	5. 확인	한국인	1.750/2 (87.50%)	
		중급	0.825/2 (41.25%)	
		고급	0.825/2 (41.25%)	
	6. 놀람	한국인	1.025/2 (51.25%)	
		중급	0.375/2 (18.75%)	
		고급	0.850/2 (42.50%)	
	7. 불평	한국인	1.500/2 (75.00%)	
		중급	0.900/2 (45.00%)	
		고급	1.050/2 (52.50%)	
	제3자 인용	8. 전달	한국인	1.725/2 (86.25%)
			중급	1.225/2 (61.25%)
			고급	1.750/2 (87.50%)
9. 확인		한국인	1.975/2 (98.75%)	
		중급	1.000/2 (50.00%)	
		고급	1.325/2 (66.25%)	
10. 불평		한국인	1.550/2 (77.50%)	
		중급	0.725/2 (36.25%)	
		고급	0.775/2 (38.75%)	
			한국인	1.350/2 (67.50%)

<표 III-10>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수치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으로 정리하여 살펴보겠다.

첫째, ‘자기 인용-전달’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들의 간접인용표현 사용률이 한국인보다 의외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상황은 자신의 발화를 인용하여 청자에게 전달하는 상황과 자신의 생각을 인용하여 청자에게 전달하는 상황으로 나뉘었는데 후자의 경우 한국인들이 간접인용표현보다 양태 표현을 더 선호하여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기 인용-전달’ 상황에서 한국인의 전체적인 간접인용표현 사용률이 낮게 나왔다.

둘째, 간접인용표현 산출 정도가 비교적 높은 상황으로 중·고급 학습자의 경우 ‘제3자 인용-전달’, ‘자기 인용-전달’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이고 한국인의 경우 ‘제3자 인용-전달’, ‘자기 인용-불평’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는 화자 자신이 포함한 누군가의 발화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학습자들이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중 ‘제3자 인용-전달’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에선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의 간접인용표현 사용률이 전체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해당 상황에서 중급 학습자의 사용률은 60%를 넘었고 고급 학습자는 85%를 돌파하였으며, 한국인은 100%에 가까웠다. 이는 제3자의 발화나 생각을 청자에게 전달할 때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해야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중급 학습자의 인식은 아직 부족했으나 고급 학습자들의 인식 정도는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간접인용표현 산출 정도가 비교적 낮은 상황으로 중급 학습자의 경우 ‘자기 인용-강조’, ‘상대방 인용-놀람’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이고 고급 학습자의 경우 ‘자기 인용-강조’, ‘제3자 인용-불평’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이며 한국인의 경우 ‘자기 인용-강조’, ‘상대방 인용-확인’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자기 인용-강조’, ‘상대방 인용-놀람’, ‘제3자 인용-불평’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에선 상당히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간접인용표현과 연계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는 해당 의미 기능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교육 실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중 ‘자기 인용-강조’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의 간접인용표현 사용률이 전체에서 가장 낮았으며, 중국인 학습자(중급-1.25%, 고급-11.25%), 특히 중급 학습자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다음은 집단 간 의미 기능에 따른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으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I-11> 의미 기능에 따른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ANOVA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자기	1. 전달	집단 간	1.400	2	0.700	2.305	0.104
		집단 내	35.525	117	0.304		

인용	2. 반복 확인	전체	36.925	119			
		집단 간	3.467	2	1.733	3.095	0.049
		집단 내	65.525	117	0.560		
	3. 강조	전체	68.992	119			
		집단 간	15.800	2	7.900	25.445	0.000
		집단 내	36.325	117	0.310		
	4. 불평	전체	52.125	119			
		집단 간	14.467	2	7.233	20.641	0.000
		집단 내	41.000	117	0.350		
상대방 인용	5. 확인	전체	55.467	119			
		집단 간	1.067	2	0.533	2.044	0.134
		집단 내	30.525	117	0.261		
	6. 놀람	전체	31.592	119			
		집단 간	25.517	2	12.758	30.794	0.000
		집단 내	48.475	117	0.414		
	7. 불평	전체	73.992	119			
		집단 간	15.450	2	7.725	17.559	0.000
		집단 내	51.475	117	0.440		
제3자 인용	8. 전달	전체	66.925	119			
		집단 간	11.850	2	5.925	25.254	0.000
		집단 내	27.450	117	0.235		
	9. 확인	전체	39.300	119			
		집단 간	6.117	2	3.058	5.210	0.007
		집단 내	68.675	117	0.587		
	10. 불평	전체	74.792	119			
		집단 간	9.650	2	4.825	12.259	0.000
		집단 내	46.050	117	0.394		
		전체	55.700	119			

위의 표를 통해 ‘자기 인용-전달’과 ‘자기 인용-반복 확인’, 그리고 ‘상대방 인용-확인’을 제외한 모든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집단 간의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⁴³⁾ 구체적인 집단 간의 비교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43) ‘자기 인용-반복 확인’의 ANOVA 검증 결과, p-값(p-value)이 ‘0.049’로 나왔다. 이는 ‘0.05’보다 작을 경우 통계적으로 해당 상황에서의 간접인용표현의 사용 빈도수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 여기서 p-값 ‘0.049’는 소수점 3자리까지만 남겨놓은 상태라 실제로는 ‘0.05’에 매우 근접하기에 사후 검증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사후 검증 결과에 따라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본다.

<표 III-12> 의미 기능에 따른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사후 검증 결과

의미 기능		집단	평균 차이	p
자기 인용	1. 전달	중급-고급	-0.200	0.272
		중급-한국인	0.050	0.921
		고급-한국인	0.250	0.132
	2. 반복 확인	중급-고급	-0.300	0.205
		중급-한국인	-0.400	0.061
		고급-한국인	-0.100	0.837
	3. 강조	중급-고급	-0.200	0.280
		중급-한국인	-0.850*	0.000
		고급-한국인	-0.650*	0.000
	4. 불평	중급-고급	-0.150	0.528
		중급-한국인	-0.800*	0.000
		고급-한국인	-0.650*	0.000
상대방 인용	5. 확인	중급-고급	0.000	1.000
		중급-한국인	-0.200	0.220
		고급-한국인	-0.200	0.220
	6. 놀람	중급-고급	-0.475*	0.005
		중급-한국인	-1.125*	0.000
		고급-한국인	-0.650*	0.000
	7. 불평	중급-고급	-0.150	0.601
		중급-한국인	-0.825*	0.000
		고급-한국인	-0.675*	0.000
제3자 인용	8. 전달	중급-고급	-0.525*	0.000
		중급-한국인	-0.750*	0.000
		고급-한국인	-0.225	0.120
	9. 확인	중급-고급	-0.325	0.170
		중급-한국인	-0.550*	0.007
		고급-한국인	-0.225	0.425
	10. 불평	중급-고급	-0.050	0.938
		중급-한국인	-0.625*	0.000
		고급-한국인	-0.575*	0.000

위의 표에서 제시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다.

<표 III-13> 의미 기능에 따른 사후 검증 결과 유형 정리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중급-고급	중급-고급	중급-고급	중급-고급	중급-고급

중급-한국인	중급-한국인	중급-한국인	중급-한국인	중급-한국인
고급-한국인	고급-한국인	고급-한국인	고급-한국인	고급-한국인

첫 번째 유형은 중급-고급, 중급-한국인, 그리고 고급-한국인 모든 집단 간의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다. ‘자기 인용-전달’, ‘자기 인용-반복 확인’, ‘상대방 인용-확인’ 의미 기능은 이에 속한다. 이는 이 3가지 의미 기능에서 숙달도 변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급과 고급 학습자들이 상황 맥락을 인식하여 간접인용표현을 산출한 정도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슷하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중급-한국인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나 중급-고급 및 고급-한국인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다. ‘제3자 인용-확인’ 의미 기능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숙달도 변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급 학습자들이 한국인 수준의 간접인용표현 산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말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첫 번째 유형과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으나 중급-한국인 간의 차이가 유의미해 중급 학습자의 간접인용표현 산출 능력이 한국인과 간극이 여전히 있다는 점은 다르다.

세 번째 유형은 중급-한국인 및 고급-한국인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나 중급-고급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다. 즉 숙달도 변인이 간접인용표현의 사용 빈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한국어 능력이 늘어도 간접인용표현이 사용되는 환경에 대한 인식성이 좋아지지 않기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인 수준의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해당하는 의미 기능은 ‘자기 인용-강조’, ‘자기 인용-불평’, ‘상대방 인용-불평’, ‘제3자 인용-불평’이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중급-고급, 중급-한국인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나 고급-한국인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에는 숙달도 변인이 간접인용표현의 사용 빈도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습자들이 고급 수준에 이르면 한국인처럼 상황 맥락을 인식하여 간접인용표현을 산출할 수 있다. ‘제3자 인용-전달’ 의미 기능은 바로 이에 속한다.

마지막 유형은 중급-고급, 중급-한국인, 고급-한국인 간의 차이가 모

두 유의미한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한국어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산출률이 높아지나 여전히 한국인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 인용-놀람’ 의미 기능은 바로 이런 경우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의미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때 간접인용표현의 사용 빈도수에 숙달도 변인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숙달도를 한국어 인용표현 교육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모든 상황에서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학습자의 간접인용표현 사용 정도가 더 높아지기에 숙달도에 따른 간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제3자 인용-전달’ 및 ‘상대방 인용-놀람’을 제외한 다른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숙달도 변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기 인용-전달’, ‘자기 인용-반복 확인’, ‘상대방 인용-확인’, ‘제3자 인용-확인’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고급 학습자의 간접인용표현 산출 정도가 한국인과 차이가 없다.

셋째, 절반의 의미 기능(‘자기 인용-강조’, ‘자기 인용-불평’, ‘상대방 인용-불평’, ‘상대방 인용-놀람’, ‘제3자 인용-불평’)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고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 수준의 간접인용표현 사용 맥락 인식성에 이르지 못했다. 제2언어 학습자들의 최종적 목표는 학습 언어의 모어 화자처럼 문법 항목을 적절히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간접인용표현을 선택하여 산출하는 상황에서의 학습자의 간접인용표현 사용률을 인상시키기 위해 해당 의미 기능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넷째, ‘제3자 인용-전달’의 경우 한국어 수준 상승에 따라 간접인용표현 산출 정도가 높아지며 고급 수준 도달 시 한국인 수준의 산출 정도를 보인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사용 양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의미 기능도 충분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간접인용표현 산출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2.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조사 결과

직접인용표현에 대한 상황에서 학습자의 언어 산출 양상도 마찬가지로 크게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인용표현을 산출한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인용표현을 산출한 경우를 다시 직접인용표현으로 인용을 드러내는 경우와 간접인용표현으로 인용을 드러내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각각의 연구 대상 집단들의 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I-14> 집단별 전체 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집단	인용표현	간접인용표현	직접인용표현
중급	2.975/6(49.6%)	2.200/6(36.7%)	0.775/6(12.9%)
고급	3.700/6(61.7%)	2.575/6(42.9%)	1.125/6(18.8%)
한국인	4.850/6(80.8%)	3.400/6(56.7%)	1.450/6(24.2%)

직접인용표현 사용 양상 고찰을 위한 상황에서의 각 집단의 인용표현 사용률이 여전히 낮으며, 인용표현을 쓰는 자리를 인식하고 인용표현을 산출한 경우 모든 집단이 직접인용표현보다 간접인용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인용표현을 산출하지 않았거나 이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면 상황에 요구된 의미 기능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인식하지 못했기에 직접인용표현보다 간접인용표현을 택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 이로 인해 직접인용표현의 사용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⁴⁴⁾

먼저 집단 간의 전체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차이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지니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4) 이는 직접인용표현의 사용이 매우 의도적이어서 구어 담화 상황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을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설문지 설계 한계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15> 전체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ANOVA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간	9.117	2	4.558	3.886	0.023
집단 내	137.250	117	1.173		
전체	146.367	119			

검증 결과를 보면 집단 간의 전체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차이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드러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사후 검증 결과를 알아보겠다.

<표 III-16> 전체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사후 검증 결과

집단	평균 차이	p
중급-고급	-0.350	0.355
중급-한국인	-0.675*	0.023
고급-한국인	-0.325	0.409

위의 표를 살펴보면 중급-한국인 간의 전체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중급-고급과 고급-한국인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숙달도에 따른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전체적으로 직접인용표현의 사용 빈도수가 낮아 어떤 상황에서 이를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해석의 유의미성이 낮아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의미 기능별 각 집단의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를 분석하지 않고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바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I-17> '생동감 부여'의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Kruskal-Wallis 결과

전체 N	120
검정 통계량	5.292
자유도	2
근사 유의확률(양측검정)	0.071

<표 III-18> ‘객관성 및 사실성 강화’의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Kruskal-Wallis 결과

전체 N	120
검정 통계량	3.719
자유도	2
근사 유의확률(양측검정)	0.156

<표 III-19> ‘언어 형식 재현’의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의 ANOVA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집단 간	1.517	2	0.758	1.635	0.199
집단 내	54.275	117	0.464		
전체	55.792	119			

위의 검증 결과를 통해 모든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집단 간의 직접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모든 상황에서 숙달도 변인이 직접인용표현 산출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한국인 이 3가지 집단의 인용표현 사용 유무 및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인용표현을 잘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지, 즉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 양상을 알아봤으며 의미 기능별로 살펴볼 때 집단 간의 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차이가 숙달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3. 중간언어적 사용 양상

중간언어란 제2언어를 습득하는 학습자들이 목표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나름대로 구축한 규칙적인 언어 체계이다. 이 절에서는 인용표현 사용을 유도하는 각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떤 규칙성을 지닌 언어를 산출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중간언어 발달 양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한다.

김정은(2008)에 따르면 제2언어 문법 표현은 개념화(conceptualization) 및 부호화(encoding)가 수반된다. 문법은 의미가 구성된 실체이고 의미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을 인지하는 과정 자체를 ‘개념화’라고 하며 개념의 인지를 부호화한 것이 ‘문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특정 문법 사용이란 해당 문법 항목이 사용되는 환경을 인지한 뒤 이를 정확한 문법 형태로 실현한다는 과정을 걸쳐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목표 문법 항목의 중간언어적 사용 양상에 있어 첫 번째 경우는 개념화 부족이나 의도적 회피로 인해 목표 문법 형태가 부호화되지 않은 양상이고⁴⁵⁾ 두 번째 경우는 인식한 개념을 문법 형태로 부호화했지만, 비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이며, 세 번째 경우는 인식한 개념을 적절한 문법 형태로 부호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절에선 김정은(2008)을 참고하여 인용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중간언어적 사용 양상을 문법 표현 과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로 나눠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개념화 부족 또는 의도적 회피로 인한 인용표현 누락(ommission)⁴⁶⁾ 양상. 두 번째, 인용표현 형태를 갖췄으나 비체계적인 부호화 양상. 세 번째, 충분한 개념화 및 적절한 부호화가 이루어진 양상. 이처럼 인용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부터 이를 적절하게 사용한 것까지 다양한 학습자의 언어 사용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각각의 사용 양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양상을 보여주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왜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만약 인용표현을 사용했다면 왜 이렇게 작성했는지,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할 것이다.⁴⁷⁾ 학습자의 인지나 생각을 심도 있게 알아본 뒤 문제가 포착되는 부분만을 기술하고 분석하겠다.⁴⁸⁾

45) 제2언어 학습자들이 특정 문법 항목을 표현하지 않는 현상의 유형과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정은(2008)을 참고하길 바란다.

46) 누락은 결과적으로 어떤 문법 항목이 표현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한다.

47) 연구의 편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인터뷰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국인 학습자들과의 인터뷰는 중국어로 진행하고자 한다. 중국어로 되어 있는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할 것이다.

3.1. 개념화 부족 또는 의도적 회피로 인한 누락 양상

인용표현은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습자의 인용표현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문항을 모두 인용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로 인해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담화 맥락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핵심인 상호작용성을 향상시키는 표현인 인용표현의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고는 인용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왜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즉 언어 표현 과정에서 인용표현이 아닌 비인용표현을 선택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제시된 상황에서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모두 오류로 보는 것보다 하나의 중간언어적 양상으로 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양상을 보여주는 학습자의 내적 인지나 생각을 알아봄으로써 그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의 관점을 전제로 하여 인용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누락이 일어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분류시켰다.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인용표현을 통해 상황에 맞는 의미 기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지식 부재로 인해 결여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지식 부재로 인해 해당 상황에서 인용표현 사용을 이끄는 개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을 인용과 연계해 봤으나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이나 용법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인해 인용표현 사용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다.

48) 예를 들면, 왜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대답을 살펴보면 제시된 상황에서 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비인용표현 사용을 더욱 선호하기에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학습자의 인용표현 이해 및 사용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나타낼 수 없기에 본고는 이런 유형의 응답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는 해당 상황에서 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비인용표현을 사용했다고 하였다. 이는 인용표현 사용 상황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에 이런 유형의 응답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상술 내용은 예시일 뿐이며, 구체적인 분석은 본문에서 언급하였다.

3.1.1. 간접인용표현 능력 향상

(1) 발생했던 발화를 재차 말하거나 형태를 변형시켜 같은 의미의 구문 산출

화자 자신의 과거 발화를 현재의 시점에서 인용하는 것은 우선 해당 발화가 한 번 발생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과거에 발생했던 발화를 그대로 혹은 어휘나 문법 등을 바꿨으나 같은 의미의 문장을 재산출한 중국인 학습자들이 많았다. 이를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살펴보겠다.

[상황 3]

철수: 재현아, 나 지금 친구 만나러 나가. 저녁 혼자 먹어.

재현: 응? 뭐라고?

철수: _____.

[상황 4]

철수: 어제 뭐 했어? 언제 집에 들어간 거야?

재현: 어제 친구랑 농구 했어. 저녁 7시쯤에 집에 들어왔어.

철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네. 언제 집에 들어갔다고?

재현: _____.

위의 상황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듣지 못한 청자에게 했던 발화를 다시 한번 말하는 경우이다. 이때 71.25%의 한국인 응답자는 관습적으로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발화를 반복하여 청자에게 확인시켜줬다. 그러나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3_CKL_4_중]⁴⁹⁾ 나는 친구를 만나러 나갈 테니 너 혼자 저녁을 먹어라

[3_CKL_9_고]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가. 너 혼자 저녁 먹어

[3_CKL_25_고] 오늘 저녁 일이 있어 친구를 찾아가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라

49) '3_CKL_4_중'은 [상황 3]을 응답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hinese Korean Learner, CKL) 중의 4번이고 중급 집단에 속함을 의미한다.

[3_CKL_48_중] 친구를 만나고 싶어. 죄송하지만 재현이 혼자 먹어야겠어

[3_CKL_56_중] 저녁 너랑 같이 안 먹을 거야

[4_CKL_2_중] 저녁 일곱 시에 집에 돌아왔어

[4_CKL_4_중] 어제 밖에서 농구를 하고 7시쯤 집에 돌아왔다

[4_CKL_6_고] 저녁 7시쯤이요

[4_CKL_22_고] 7시

위와 같은 응답들은 담화 맥락에서 틀린 것이 아니지만 인용표현처럼 많은 정보를 내포하지 못한다. “지금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저녁 혼자 먹으라고 했어” 그리고 “저녁 7시쯤에 집에 들어왔다고” 등을 산출한 한국인과 같이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면 ‘내가’ 해당 발화를 조금 전에 한번 했고 지금 다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으나 위의 응답들은 단순히 질문에 대답한 것으로 이런 정보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왜 위와 같은 표현을 산출하였는지에 대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상대방이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아 다시 말해줄 때 단순히 했던 말을 반복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왜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응답이 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내 말을 인용할 때만 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이는 간접인용표현의 ‘자기 인용-반복 확인’ 의미 기능, 즉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듣지 못한 청자에게 했던 발화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확인시켜줄 때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내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해줄 때 인용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 인용이라는 개념이 아예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이는 간접인용표현이 자기 인용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식이 부족하기에 해당 상황에서 인용 표현 사용을 이끄는 개념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상황 5]

구미호: 네가 나한테 이런 선물도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어?

대응: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구미호: 그러지 말고~ 진짜 _____ ~ 원하는 걸
말해 봐, 대응아.

대응: 알았어. 한 번 생각해 볼게.

위의 [상황 5]를 살펴보면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발화를 신뢰하지 않자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경우이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해당 상황에서 중국인의 간접인용표현 사용률은 현저히 낮았다. 다시 말해, 상당수의 중국인 학습자들은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산출하였다.

[5_CKL_1_고] 뭐든 다 해 줄게

[5_CKL_7_고] 뭐라도 해주고 싶어

[5_CKL_13_고] 뭐든 다 해주고 싶어

[5_CKL_31_고] 너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

[5_CKL_52_중]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고 싶어

위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모든 학습자들이 “여기서 ‘강조’ 의미 기능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장 앞부분에 ‘진짜’가 있어서 ‘강조’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강조’ 의미 기능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문법이나 표현은 생각나지 않았어요.”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너한테 뭐든 해주고 싶다고(~)”나 “너한테 뭐든 해주고 싶다니까(~)”와 같은 간접인용표현을 통해 앞선 발화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 즉 해당 상황에서 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인용표현을 산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상황 7]

여친: 네가 먼저 잘못 했잖아! 네가 먼저 사과해!
 철수: 알았으니까 목소리 낮춰... 여기 사람 많다.
 여친: (더 큰 목소리로) 사과 안하면 나 집에 갈 거야! 밥은 너 혼자 먹어!
 철수: (낮고 강하게)_____. 사람들이 다 쳐다본
 다고!

[상황 8]

나영: (새된 목소리) 여긴 왜 왔어? _____!
 남친: 네가 전화 안 받아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지.
 나영: 아까 수업 중이어서 전화 못 받은 거야. 다음에 여긴 절대 오지 마!

위의 상황은 화자가 자신이 말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이와 다르게 행동한 상대방에게 불만이나 질책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다. 이때 87.5%의 한국인들은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여 ‘불평’을 드러냈으나 중국인 학습자들은 간접인용표현 대신 다음과 같은 응답을 많이 산출하였다.

[7_CKL_3_고] 닥쳐

[7_CKL_4_중] 여기서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7_CKL_7_고] 제발 좀 적당히 해라

[7_CKL_9_고] 조용히 해

[7_CKL_14_중] 목소리 좀 낮춰

[8_CKL_29_고] 학원엔 절대 오지 마라

[8_CKL_48_중] 여긴 찾아오지 말아

[상황 7]에선 한국인 응답자들은 “목소리 낮추라고 했어/했잖아/했지”와 같은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해 “아까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는데 왜 내 말 듣지 않았어?”라는 의미를 담아 불만 감정을 표출하였지만, 위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산출한 답장을 보면 단순히 청자가 지금 큰 소리를 내고 있으니 지금부터 목소리를 낮추라는 ‘명령/부탁’ 의미만을 드러냈다. 그리고 [상황 8]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한국인 응답자들은 “학

원에 찾아오지 말라니까/말라고 했잖아” 등을 사용하여 전에 청자에게 학원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위의 학습자들은 처음 발화하는 듯이 말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것과 같이 들린다. 따라서 간접인용표현은 ‘내가’ 방금 이 발화를 한 번 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이와 달리 행동했던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기에 비인용표현보다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위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후 인터뷰 결과를 통해 형성된 인용 개념을 인용표현 형태로 부호화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인용표현 사용을 피했다는 현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상황 8]의 경우, 중국어로 할 때 “我不是告訴你別來學院/這裏嗎?(학원엔/여긴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라는 문구로 빈칸을 채워야 하는 것을 알지만 이를 한국어 인용표현으로 번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다고 응답한 중국인 학습자가 있었다. 이는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모국어 표현 “我不是告訴你...?”를 목표어 인용표현 “(내가)...라고 했잖아.”와 대응시키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한국어 인용표현 부호화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 상대방 및 제3자의 발화나 생각을 간접인용표현을 통해 화자 자신의 발화 속으로 끌어오는 것은 우선 인용된 내용의 출처를 드러내기 위함이며 나아가 이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간접인용표현 누락 양상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상황 9]

철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수영하러 갈까?

재현: 그래. 오늘 저녁에 갈까?

철수: 오늘 저녁은 안 돼.

재현: _____?

철수: 응. 안 돼.

재현: 그럼 언제 갈까?

철수: 내일 가자.

[상황 9]는 대화 상대자가 오늘 저녁은 (시간이) 안 된다고 말했는데 화자가 이를 듣고 바로 확인하려는 경우이다. 이 상황에선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중 일부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상황에서 제시된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구문을 산출하였다.

[9_CKL_6_고] 안 돼

[9_CKL_9_고] 오늘 저녁은 안 되나

[9_CKL_42_고] 오늘 저녁은 안 돼

[9_CKL_59_중] 오늘 저녁은 안 될까

상대방이 앞에서 말했던 발화를 듣고 바로 확인하는 해당 상황에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오늘 저녁은 안 된다고(?)”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네가’ 방금 이 ‘말’을 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위와 같은 중국인 응답자들은 이 발화 내용을 접하게 된 경로, 즉 원발화자가 상대방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특히 [9_CKL_9_고]와 [9_CKL_59_중]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발화를 듣고 나서 이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발화를 듣지 못하고 질문한 것과 같이 보인다. 즉 발화의 출처가 상대방이 아닌 화자가 되었다.

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앞에서 재현이 오늘 저녁에 가냐고 물어봤는데 철수가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 철수가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재현이 똑같은 질문을 그대로 반복하여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라고 응답하였으며, 인용표현의 ‘상대방 인용-확인’ 의미 기능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긴 하지만 막상 써야 할 때 떠오르지 않았어요.”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많았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앞선 발화를 즉시 확인할 때 한국인들은 관습적으로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나 중국인 학습자들은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인용표현 사

용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상황 11]

철수: 나영이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어?

재현: 어제 남자 친구랑 헤어졌대.

철수: (놀람) 진짜? _____? 6년 만났는데 갑자기 왜?

재현: 나도 몰라.

[상황 12]

엄마: 무슨 일이야? 넌 왜 여기 있어?

철수: ... 엄마, 나...

경찰: 이 학생이 빵공장에서 빵을 훔치다 잡혔습니다.

엄마: 우리 철수가 _____? 말도 안 돼...

위의 [상황 11] 및 [상황 12]는 상대방의 발화를 듣고 이에 대한 놀람을 표출하는 상황이다. 75%의 한국인 응답자들은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은 인용표현 대신 다음과 같이 상황에 제시된 문장을 그대로 산출한 경우가 많았다.

[11_CKL_3_고] 헤어졌어

[11_CKL_20_고] 나영이 어제 남자 친구랑 헤어졌어

[11_CKL_54_중] 남친이랑 헤어졌어

[12_CKL_9_고] 빵을 훔쳐요

[12_CKL_39_고] 빵을 훔쳤습니까

해당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주로 “헤어졌다고/다니(?)”, “빵을 훔쳤다고요/다니요(?)” 등과 같은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해 상대방의 앞선 발화가 믿어지지 않음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은 위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해 상대방의 ‘말’이 아닌 지나간 과거에 대해 놀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화자를 놀라게 하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나온 발화임을 드러내지 못한다.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국어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에 대한 놀람을 표현할 때 ‘你說...了嗎?(...라/다고 (했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로 표현할 때도 해당 상황에서 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 없었어요.”라고 응답한 중국인들이 가장 많았다. 이는 해당 상황에서 인용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 모국어와의 차이로 인해 인용표현 사용 개념이 형성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상황15]

재현: 오늘 나영이도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거야?

철수: 아니.

재현: 왜? 나영이가 뭐래?

철수: _____.

[상황 15]는 화자 ‘철수’가 제3자 ‘나영’에게 들은 말을 청자 ‘재현’에게 전달하는 경우이다. 이때 반드시 간접인용표현을 통해 원발화자를 반영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인용표현 없이 제3자의 발화를 그대로 산출한 학습자들이 있었다.

[15_CKL_16_중] 나는 외할머니 댁에 갈 거야

[15_CKL_31_고] 다른 친구랑 선약이 있어

[15_CKL_76_중] 오늘 친구랑 노래방에 가기로 약속 했어

해당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모두 “나영이가 ...래/대”라고 응답하였으나 중국인 응답자들은 위와 같은 구문을 산출한 경우가 많았다. 이 구문들을 살펴보면 화자가 마치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듯이 발화하고 있다. 즉 해당 발화 내용은 제3자가 아닌 화자로부터 나온 것과 같이 느껴진다. 여기서 제3자 ‘나영’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때문에 “나영이가 외할머니 댁에 간대”, “다른 친구랑 선약이 있대”, “오늘 친구랑 노래방에 가기로 약속했대”와 같은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위와 같은 표현을 산출한 이유에 대해 모든 중국인 학습자들은 “상대

방이 나영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궁금해하니까 그냥 나영이 한 말 자체를 전달했어요. 다시 보면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 설문지를 작성할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어요.”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의 발화 내용을 청자에게 전달할 때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접인용표현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학습자가 있다 보니 간접인용표현 사용률이 더욱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 17]

희연: _____?

철수: 여신정도는 아니야.

[상황 18]

희연: _____?

철수: 응. 맞는데 누구한테 들었어?

희연: 나영이한테 들었어.

[상황 17]과 [상황 18]은 제3자에게 전해들은 소식을 대화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경우이다. 77.5%의 한국인 응답자들은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중국인 학습자들은 인용표현 대신 다음과 같은 응답을 작성한 경우가 많았다.

[17_CKL_2_중] 네 여자 친구가 여신처럼 예쁘지

[17_CKL_3_고] 네 여친이 여신정도냐

[17_CKL_5_고] 당신의 여자 친구는 여신인가

[17_CKL_6_고] 혹시 미녀 여자 친구 사귀었어

[17_CKL_36_고] 여친이 여신이야

[18_CKL_2_중] 너 곧 결혼할 거야

[18_CKL_7_고] 여친이랑 결혼하려고 해

[18_CKL_16_중] 너는 곧 결혼할 거니

[18_CKL_22_고] 결혼할 거 맞아

해당 상황에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여자 친구가 여신이라면서(?)”나 “곧 결혼한다면서(?)”와 같은 간접인용표현을 통해 제3자에게 들은 소식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산출물을 살펴보면 단순히 화자가 제기한 질문으로 보이고 해당 소식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을 얻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상대방과 관련된 정보라서 상대방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때만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간접인용표현의 ‘제3자 인용-전달’ 의미 기능에 대한 확신이 있으나 ‘제3자 인용-확인’ 의미 기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인용표현 사용 개념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간접인용표현 대신 자기가 익숙한 어휘, 문법, 구문을 통해 상황에 맞는 의미 기능 표현 시도

이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은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유형과 달리 단순히 상황에서 제시된 구문을 재산출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알맞은 의미 기능을 가진 언어를 산출하려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서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언어는 어휘, 문법, 구문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어휘를 통해 의미 기능을 드러낸 양상을 알아보겠다.

[상황 6]
철수: 재현아! 나 어제 라라랜드를 봤는데 재미있어! 강추!
재현: 그래? 평가가 별로인 것 같던데?
철수: 아니야. 이 영화는 _____! 보면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재현: 그렇게 재미있어? 알았어. 한 번 믿고 볼게.

위의 상황은 화자가 자신의 과거 발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경우이다. 설문지에서의 [상황 설명] 부분에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발화(밑줄 친 부분)를 강조하라고 제시하였다. 해당 상황에서 간접인용 표현을 사용한 학습자가 매우 드물고 주로 다음과 같이 ‘진짜’, ‘정말’, ‘완전’, ‘엄청’ 등의 부사를 통해 ‘강조’ 의미 기능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6_CKL_1_고] **정말** 재미있어

[6_CKL_31_고] **완전히** 재미있어

[6_CKL_33_고] **엄청** 재미있어

[6_CKL_64_중] **진짜** 재미있어

위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여 “재미있다니까”와 같은 간접인용표현을 산출하지 않고 ‘진짜’ 등의 부사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다니까’는 항상 짜증나거나 화난 감정을 나타낼 때만 사용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강조’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을 떠올리지 못했으며 ‘재미있다’의 정도를 강조할 수 있는 ‘진짜/정말/완전/엄청’ 등의 부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인용표지(복합 형태) ‘-다니까’의 다양한 사용 양상, 즉 ‘강조’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과 같이 ‘상대방 인용-확인’ 및 ‘상대방 인용-놀람’ 상황에서도 ‘진짜/정말’ 등을 사용하여 ‘확인’이나 ‘놀람’을 드러내려는 학습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9_CKL_12_고] **진짜** 안 돼

[9_CKL_80_중] 오늘 저녁 **정말** 안 돼

[11_CKL_11_고] **정말** 헤어졌어

[11_CKL_23_고] **진짜** 헤어졌어

또한, ‘상대방 인용-놀람’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 대신 다음과 같이 ‘어떻게’를 사용해 해당 발화 내용이 화자를 놀라게 하는 것을 드러낸 학습자가 적지 않았다.

- [12_CKL_2_중] 어떻게 빵을 훔칠 수가 있어요
- [12_CKL_15_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12_CKL_16_중] 어떻게 물건을 훔칠 수 있습니까
- [12_CKL_26_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 [12_CKL_30_중]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위와 같이 ‘진짜’는 뒤의 내용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하거나 믿기 어려움을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는 상황에 따라 드러나는 의미가 달라지는데 어떨 때는 뒤의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 뉘앙스가 섞여 있어 ‘놀람’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간접인용표현은 보통 다른 사람의 말을 조금 바꿔서 사용할 때 쓰이는 것으로 배웠어요. 상대방 앞에서 그의 말을 인용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존재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확인이나 놀람을 드러낼 때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식이 부족해 간접인용표현 사용을 떠올리지 못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어휘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간접인용표현 교육은 제3자 인용에 무게를 두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인용의 범위와 다양한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대방 인용에 대한 교육 분량을 늘려야 한다.

다음은 인용표현 대신 익숙한 문법을 통해 의미 기능을 드러낸 양상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이 ‘불평’ 의미 기능이 실현되는 상황에서 나타났다.

- [7_CKL_26_고] 조용히 했잖아
- [7_CKL_28_고] 목소리 낮쳤잖아

- [13_CKL_56_중] 이번 주 돈 갚기로 약속했잖아
 [13_CKL_73_중] 돈을 이번 주에 돌려줄 수 있었잖아
 [13_CKL_74_중] 이번 주에 돈 돌려주기로 했잖아

[14_CKL_32_중] 핸드폰 새로 사주기로 했잖아요

[상황 7]은 ‘자기 인용-불평’ 경우이며 [상황 13] 및 [상황 14]는 ‘상대방 인용-불평’ 경우이다.⁵⁰⁾ 위의 산출물을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불평’을 늘어놓을 때 ‘-잖아’를 사용하였다. ‘-잖아’는 구어에서 문장을 끝맺는 종결어미로 사용되고 이가 담긴 문장을 내린 억양으로 말할 때 상대방이 잊고 있던 약속이나 사실을 확인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때 상대방이 약속을 잊고 있던 것에 대한 불만이 다소 섞여 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산출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7_CKL_26_고], [7_CKL_28_고], [13_CKL_73_중]의 산출물을 살펴보면 맥락에 맞지 않은 표현들이다. 이를 산출한 이유에 대해, 해당 학습자들이 과거에 발생했던 자신이나 상대방의 발화를 다시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불평’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를 정확한 문법 형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몰랐다고 말했다. 그들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목소리 낮추라고 했잖아”, “돈을 이번 주에 돌려줄 수 있다고 했잖아”를 표현하길 원했으나 형성된 인용 개념을 정확한 인용표현으로 부호화하지 못해 인용표현이 누락된 것을 알 수 있다.

50) [상황 13]

철수: 지난주에 약속한 돈 이번 주에 줄 수 있지?
 재현: 아... 그 돈... 철수야. 미안하다... 이번 주도 어려울 것 같아.
 철수: 뭐야! _____!
 재현: 일이 좀 생겨서 돈을 다 썼어. 미안. 다음 주에는 꼭 줄게.

[상황 14]

철수: (따짐)엄마가 _____.
 엄마: 앗... 미안. 깜빡했네.
 철수: (빼짐) 매번 그래요. 이제 엄마 말 안 믿을래요...
 엄마: 빼지지 마. 지금 엄마랑 같이 나가서 살래? 엄마가 더 비싼 거 사줄게.
 철수: (급 방긋) 진짜죠, 진짜?

그리고 [13_CKL_56_중], [13_CKL_74_중], [14_CKL_32_중]의 산출물을 살펴보면 맥락에 맞는 답들이다. 하지만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당 학습자들이 이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답하였다. 이는 ‘상대방 인용-불평’ 의미 기능에 대한 개념화 정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구문을 통해 의미 기능을 드러낸 양상을 알아보겠다.

[8_CKL_15_고]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어? 여기서 나를 찾으러 오지 마

[8_CKL_28_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학원에 찾아오지 마

[8_CKL_60_중] 약속을 했잖아, 여기 오지마

[8_CKL_76_중] 제가 말했잖아. 학원에서 나를 찾지 마

[8_CKL_78_중] 예전에 분명히 말했어, 학원에 오지 마

[11_CKL_47_고] 헤어졌어? 장난 아니야

[11_CKL_55_중] 헤어져? 농담이지

[12_CKL_24_고] 빵을 훔쳐요? 믿을 수 없어요

[12_CKL_33_고] 빵을 훔쳤어요? 그럴리가요

[13_CKL_32_중] 약속했잖아? 이번에 돈 줄게

[13_CKL_44_고] 이번 주에 돈 줄 거다. 분명히 지난주에 네가 말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상황 8]은 ‘자기 인용-불평’ 경우이고 [상황 11] 및 [상황 12]는 ‘상대방 인용-놀람’ 경우이며, [상황 13]은 ‘상대방 인용-불평’ 경우이다.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구를 통하여 불평이나 놀람을 나타내려고 하는 학습자들의 모습이다.

[상황 8] 및 [상황 13]의 경우 위와 같은 응답을 제출한 학습자들은 불평을 나타내는 구문과 원발화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 표현(두 문장)을 부자연스럽게 산출하였다. 그들은 누군가의 과거 발화를 현재 시점에서 인용하는 개념이 형성됐으나 이를 간접인용표현으로 부호화하

지 못했다. 인용 개념을 정확한 문법 형태로 부호화한다면 [8_CKL_15_고]의 발화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어? 나를 찾으러 여기 오지 말라고”가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이나 상대방이 했던 발화임’과 ‘이와 다르게 행동한 상대방에 대한 불평 표출’이 포함되는 의미를 인용표현과 종결어미로 구성되는 언어 표현(한 문장)으로 드러낼 수 있음에 대한 지식 부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8_CKL_15_고]의 발화는 “나를 찾으러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가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황 11] 및 [상황 12]의 경우, 학습자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들었던 발화임’과 ‘이에 대한 놀람 표출’이 내포되는 의미를 하나의 문장으로 드러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대한 확인이 나타나는 구문과 이에 대한 놀람이 드러나는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 표현을 부자연스럽게 산출하였다. 특히 [상황 12]에서 물음표 ‘?’로 끝나는 문장으로 빈칸을 채우라고 했는데 [12_CKL_24_고]의 발화를 살펴보면 “빵을 훔쳐요? 믿을 수 없어요”는 뒤에 ‘!./’가 나와야 하며 물음표 ‘?’가 나타나면 매우 이상하다. 학습자들에게 빈칸 끝의 부호를 주의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주의했어요. 하지만 그때 ‘놀람’ 감정을 드러내는 것만 생각해 이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문장 끝의 부호를 무시한 채 발화를 산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문법과 상황에 대한 응용력이 떨어진 예라고 볼 수 있다.

(3) 불완전한 인용표현 형태 구성의 문법적 오류 발생

해당 양상은 다음과 같은 응답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4_CKL_1_고] 최신 핸드폰 사주셨는데 왜 안 샀어요

[14_CKL_50_중] 나한테 휴대폰 사줬고 아직도 휴대폰이 안 보여

[17_CKL_22_고] 너 여자 친구 여신처럼 들었는데

[18_CKL_17_고] 너 여친과 결혼을 하려고 들어서 그래

위의 응답 예시를 살펴보면 모두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들이다. 해당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후 인터뷰를 통해 [14_CKL_1_고] 학습자는 “최신 핸드폰 사준다고 하셨는데 왜 안 샀어요”를 표현하길 원했고 [14_CKL_50_중] 학습자는 “나한테 휴대폰 사준다고 해놓고 아직 휴대폰의 휴자도 없어”, [17_CKL_22_고] 학습자는 “너 여자 친구 여신처럼 예쁘다고 들었는데(?)”, [18_CKL_17_고] 학습자는 “너 여친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를 산출하고 싶어 했다. 이는 누군가의 발화나 생각을 자신의 발화 속으로 끌어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한 문법 형태로 부호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용표현 형태 구성의 문장을 생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인용 개념을 정확한 인용표현 형태로 부호화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독립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명사절을 피인용문으로 사용한 구문 산출

[상황 1]

<대화1> 어제:

아빠: 이번 시험 몇 점 받았어?

철수: 60점밖에 못 받았어요.

아빠: 뭐? 60점밖에 못 받았다고? 이번 달 용돈 없다.

철수: (시무룩) ...

<대화2> 오늘:

엄마: 철수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시험 때문이에요?

아빠: 아니. 아마 내가 어제 했던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엄마: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아빠: _____.

위의 상황은 화자 ‘아빠’가 어제 제3자 ‘철수’에게 말했던 발화를 청자 ‘엄마’에게 전달하는 경우이다. 해당 상황은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응답을 작성한 중국인 학습

자들이 있었다.

[1_CKL_32_중] 그는 이번 시험에서 60점밖에 받지 못한 것을 말했어요. 나는 용돈이 없는 것을 말했어요

[1_CKL_70_중] 이번 달 철수가 시험 망쳤기 때문에 나는 용돈 없는 것을 말했다

[1_CKL_79_중] 내가 시험을 잘못 봤으니까 이번 달에는 용돈 없는 것 말했어

해당 상황에서는 “...다고 말했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것을 말했어”를 대신 사용해 매우 어색한 표현들을 산출하였다. 이 양상은 다음과 같은 학습자의 언어에서도 발견됐다.

[8_CKL_70_중] 당신에게 오지 마는 것 말해잖아

[10_CKL_15_고] 영화를 보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았어⁵¹⁾

[13_CKL_52_중] 너는 나에게 이번 주에 돈을 갚을 것을 말했잖아

[14_CKL_22_고] 새로운 휴대폰 사 줄 것을 약속했잖아

위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누군가의 발화를 다시 언급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를 인용표현을 통해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어색한 표현들을 산출한 것이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누군가의 말을 인용할 때 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간접인용표현의 형태 복잡성으로 인해 간접인용표현 사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피했으며 자기에게 더 익숙하고 쉬운 문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것을 말했어”를 사

51) [상황 10]

철수: 할 게 없어서 너무 심심해.

재현: 어제 _____? 지금 같까?

철수: 어제는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보고 싶지 않네. 다른 거 하자.

재현: 그럼 뭐 할까? 하고 싶은 거 있어?

용해도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형태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현재의 인용표현 교육을 지적할 수 있다. 인용표지 형태는 품사, 시제, 그리고 화자의 의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서는 형태 학습이 중요하지만, 단지 형태만을 강조하고 있기에 학습자들은 인용표현의 형태 복잡성으로 인해 이를 지나치게 어려운 문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담화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인용표현의 실용성을 보여주며 학습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인용표현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자신 생각 전달 시 간접인용표현 대신 ‘-(으)ㄴ/는 것 같다’, ‘-아/어/여(요)’ 사용

마지막 간접인용표현 누락 양상은 다음 [상황 2]를 통해 알아보겠다.

[상황 2]
 철수: 나 요즘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 문법이 너무 어려워.
 재현: 그래? 나도 요즘 일본어와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철수: 그래? 영어를 공부할 때 뭐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
 재현: _____.

이 상황은 화자가 자기의 생각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제시된 모든 상황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보다 더 높은 간접인용표현 사용률을 보였다.⁵²⁾ 그러나 대부분 응답자는 여전히 비인용표현을 산출하였다. 산

52) <표 III-10>에서 제시된 ‘자기 인용-전달’ 상황에서의 간접인용표현 사용률은 ‘자기 인용-발화 전달’ 및 ‘자기 인용-생각 전달’ 이 2개의 상황의 평균치를 구한 것이다. ‘자기 인용-생각 전달’ 상황에서 각 집단이 다음과 같은 백분율을 지닌다.

집단		간접인용표현 사용률	
중국인	중급	37.5%	41.25%
	고급	45.0%	
한국인		12.5%	

출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가장 많았다.

[2_CKL_13_고] 문법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2_CKL_22_고] 단어를 외울때 가장 어려워

해당 상황에서 41.25%의 중국인 학습자가 ‘-다고 생각하다’로 구성된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으)ㄴ/는 것 같다’나 ‘-아/어/여(요)’를 사용한 학습자의 비율은 51.25%로 나왔다. 그리고 한국인의 경우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응답자는 12.5%에 불과하였으며, 위와 같이 ‘-(으)ㄴ/는 것 같다’나 ‘-아/어/여(요)’를 사용한 응답자의 비율은 67.5%에 달했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모어 화자도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때 간접인용표현보다 양태 표현을 더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이에 대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구어와 같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다고 생각하다’를 잘 사용하지 않고 ‘-ㄴ 것 같다’나 ‘-아/어/여(요)’로 구성된 양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때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언어 사용 습관을 현지화하기 위해선 실제성도 고려해야 하기에 해당 상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간접인용표현보다 양태 표현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3.1.2. 직접인용표현 누락 양상

(1) 인용표현 없이 피인용문만 산출

[상황 22]

<대화1> 어제:

영수: 민희 씨, 저랑 사귀어 주세요.

민희: 네? 사귀자고요?

영수: 네, 저랑 사귀어 주세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민희: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요.

<대화2> 오늘:

나영: 대박 사건! 혹시 들었니? 영수가 민희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걸?

희연: 진짜? 나 못 들었는데... 넌 어떻게 알았어?

나영: 나 그때 현장에 있었지!

희연: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빨리 알려줘 봐. 영수랑 민희가 한 말 그대로 말해 줘!

나영: _____.

희연: 대박... 불쌍한 영수.

위의 [상황 22]는 화자 ‘나영’이 ‘영수’와 ‘민희’의 과거 대화 내용을 생동감 있게 청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이다. 해당 상황은 제3자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용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실은 ‘전달’ 기능만 고려한다면 여기서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현장감과 생동감을 더욱 살리기 위하여 원발화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당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상황에서 제시된 피인용문만을 산출한 학습자들이 있었다.

[22_CKL_9_고] 영수는 저랑 사귀어 주세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민희는 미안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22_CKL_50_중] 영수가 민희한테 사랑해서 사귀어 주세요. 근데 민희 사랑하는 사람있어서 거절했다

위의 예시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피인용문을 최대한 원발화 형식 그대로 산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해당 표현들은 직접인용표현 형태가 누락되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었다.

이러한 언어를 산출한 이유에 대해, 학습자들은 [상황 설명]에서 대화 내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라고 해서 당사자들의 말투를 유지하기 위

해 원발화를 최대한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였다. 만약 생동감을 고려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한다면 [22_CKL_9_고]는 “영수는 사귀어 줬어. 당신을 정말 좋아했어. 민희는 미안했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22_CKL_50_중]은 “영수가 민희한테 사랑해서 사귀어 줬어. 근데 민희 사랑하는 사람있어서 거절했다.”와 같이 과거의 사건을 기술하는 듯이 언어를 산출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의미 기능을 고려하든 하지 않든 해당 상황에서 인용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예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의 과거 발화를 현재에 다시 언급하려면 인용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주입시켜야 하며, 그 발화 내용을 재밋게 전달하려면 ‘생동감 부여’ 의미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해야 한다.

[상황 24]

법원통계월보: 소년범죄 접수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 2502건으로, 증가율이 50%를 훌쩍 넘어섰다.

재현: 나는 소년 범죄자들을 성인 범죄자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

철수: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과 차별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그리고 범죄율도 낮고.

재현: _____.
이거 보고도 범죄율이 낮다고 생각해?

[상황 24]는 화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신력이 있는 자료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이다. 이때 인용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자료의 객관성 및 사실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관습적이다. 이 경우도 간접 인용표현을 통해 인용을 드러낼 수 있으며 자신 발화의 객관성 및 사실성을 증명할 수 있으나 II장 4.2절에서 밝혔듯이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면 간접인용표현보다 ‘객관성 및 사실성 강화’ 효과를 더욱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인용표현 없이 자료에서 나온 피인용문만을 산출한 학습자들이 많았다.

[24_CKL_2_중] 소년범죄 접수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 2502건으로, 증가율이 50%를 훌쩍 넘어섰다.

[24_CKL_24_고] 소년범죄 접수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 2502건으로 5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24_CKL_26_고] 소년범죄 사건은 2017년의 7897건에서 지난해 1만 2502건으로 크게 증가했어

사실 해당 상황에서 인용표현 형태가 누락되어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맥락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위의 응답들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된 경로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발언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직접인용표현은 말을 인용할 때만 사용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문장(피인용문)은 누군가의 말이 아닌 어디서 본 내용(글)이라서 인용표현을 사용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본 내용이 본인의 지식이 되어 버려서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라고 한 학습자가 있었다. 이는 인용표현이 말 인용뿐만 아니라 글 인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개념이 결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인용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설명해주고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말, 생각, 글)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설득시킬 때 해당 내용이 ‘내가’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닌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나온 결과임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의 신뢰성을 높여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인용표현을 사용하며, 그 객관성 및 사실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킬 때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면 좋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한다.

[상황 25]

샤오밍: 선생님,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 _____.

[상황 26]

나영: 이 치마 너무 비싸서 못 사.

희연: 사장님한테 싸게 팔아 달라고 해.

나영: 뭐라고 말해야 돼?

희연: _____.

나영: 알겠어. 한 번 해 볼게.

[상황 25]와 [상황 26]은 화자가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 표현을 청자에게 알리는 경우이다. 해당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표현 없이 피인용문만을 산출한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5_CKL_1_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25_CKL_2_중]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25_CKL_26_고] 안녕하세요

[26_CKL_2_중] 싸게 해주면 다음에 또 올게요

[26_CKL_4_중] 우리 자주 오니 좀 싸게 해 주세요

[26_CKL_6_고] 좀 깎아주세요

[26_CKL_17_고] 사장님 이 옷을 너무 예뻐서 좀 깎아주세요

[26_CKL_53_중] 사장님 이 치마 싸게 팔아 주세요.

특정 상황에서 쓰이는 특정 표현을 언급할 때 피인용문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언어 형식 그 자체가 더욱 중요하기에 ‘언어 형식 재현’ 의미 기능을 지닌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일상 구어 담화에선 위와 같이 직접인용표현 없이 피인용문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사실 중국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응답한 모어 화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해당 양상을 보여준 한국인과 중국인 각각 5명을 대상으로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한국인들은 “실제 구어 담화 상황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대화처럼 인용표현을 딱딱하게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인용표현 형태를 생략하며 핵심 내용인 피인용문만을 발화하는 경

우가 있어요.”라고 답했다. 그리고 중국인의 경우 “수업 때 직접인용표현을 배웠고 선생님이 “이거 ‘...’라고 해요.”를 자주 사용했지만, 일상 구어 담화에서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해당 상황에서 표현 그 자체만 말해줘도 충분한 것 같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외국인은 문장이 짧을수록 말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을 최대한 짧게 말하려는 경향이 있어요.”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직접인용표현은 ‘언어 형식 재현’ 의미 기능으로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으나 발화 형식이 자유로운 구어 담화에선 사용률이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의미 기능을 교육할 때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실상을 함께 밝히는 것이 좋다.

(2) 독립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명사절을 피인용문으로 사용한 구문 산출

<p>[상황 21]</p> <p><대화1> 이틀 전: 선생님: 철수야, 학교 오는데 교복 왜 안 입고 왔냐? 철수: 옷을 세탁해서 못 입고 왔어요. 선생님: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p> <p>-----</p> <p><대화2> 오늘: 재현: 며칠 전에 선생님께서 혼났다고 들었어. 철수: 응. 맞아. 재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 철수: _____.</p>

[상황 21]은 화자 ‘철수’가 이틀 전 제3자 선생님과 대화 내용을 청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경우이다. 해당 상황도 [상황 22]와 같이 인용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생동감을 추구하면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언어를 산출한 중국인 학습자가 비일비재하다.

[21_CKL_26_고] 내가 교복 안 입어서 선생님이 이유를 물어봤는데 내가 옷을 세탁한 것을 말했다. 선생님이 안 믿어줘서 결국 혼내셨어.

[21_CKL_45_고] 그날 내가 교복 안 입고 왔어. 선생님이 나보고 왜 교복 안 입는 것을 물어봤어. 내가 옷을 세탁해서 못 입고 오는 것을 말했다. 선생님이 이거 핑계인 것을 말했다.

위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자신과 선생님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사용된 언어 표현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발화의 생동감을 부여하지 못했다. 해당 양상은 [상황 26]에 대한 응답에서도 발견되었다.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6_CKL_70_중] 학생이라서 좀 깎아주는 것을 말해 봐

[26_CKL_80_중] 치마를 할인해서 파는 것을 말해봐

위의 학습자들은 모두 어떤 ‘말’을 인용하려고 했지만 인용표현이 아닌 “...것을 말했다”를 사용하였다. 해당 양상은 앞서 논의된 간접인용표현 누락 양상에서도 나타났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여기서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원인이 앞에서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원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즉 인용 개념은 있지만, 인용표현 사용에 대한 확신이 없어 고의적으로 사용을 피했다는 것이다.

(3) 과거 사건을 회고하듯이 주요 의미만 담긴 문장 산출

[상황 23]

8월 8일부터 영업을 종료합니다.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8월 9일:

철수: 아... 배고프다. 점심 뭐 먹을래?

재현: 감자탕 먹을래? 근처에 감자탕 맛집 있잖아.

철수: 아~ 거기? 거기 문 닫았어. 이제 못 먹어.

재현: 뭐 소리야? 저번 주에도 갔는데...

철수: 어제 지나가다가 봤는데 문에 붙어 있는 공지문에 _____.
이 말은 어제부터 문 닫았다는 거야.

[상황 23]은 공지문의 내용을 인용하여 어제부터 식당이 문 닫았다는 주장에 ‘객관성 및 사실성’을 더해주는 경우이다. 이때 앞서 살펴본 [상황 24]와 같이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릴 때 인용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간접과 직접인용표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간접보다 직접인용표현의 ‘객관성 및 사실성 강화’ 효과가 더 강하다. 직접인용표현은 실제로 이런 발화(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 23] 및 [상황 24]의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았다.

[23_CKL_4_중] 8월 8일부터 영업을 종료했다

[23_CKL_8_중] 8월 8일부터 문을 닫았어

[23_CKL_22_고] 영업을 종료했어

[23_CKL_32_중] 8월 8일부터 영업 종료했어

[24_CKL_4_중] 짧은 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소년 범죄가 증가하였다

[24_CKL_9_고] 소년 범죄가 엄청나게 심해졌어

[24_CKL_15_고] 작년의 소년 범죄 사건이 2017년보다 50%넘게 증가했어

[24_CKL_21_고] 소년 범죄건수 증가율이 50% 증가했어

[24_CKL_55_중] 범죄율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어.

위의 응답 예시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공지문이나 월보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주요 의미를 반영한 짧고 간단한 문장을 산출하는 것이다. [상황 23]을 보면 제시된 빈칸 앞에 ‘공지문에’가 있기에 피인용문의 출처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인용표현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학습자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상황 24]의 경우 빈칸 뒤에 ‘이거’가 있는데도 월보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지 않고 중심 내용을 자기의 말로 바꿔 사용한 학습자가 많았다. 이는 새롭게 알게 된 정보의 출처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기에

해당 내용이 마치 화자 본인으로부터 나온 것과 같이 보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완료의 의미를 지닌 ‘왔/였/였어/다’로 끝나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와 같이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언어들 은 맥락에 맞지 않는 답이라고 본다.

해당 양상은 [상황 21]과 [상황 22]에서도 보였다. 이를 다음과 같은 학습자의 언어를 통해 살펴보겠다.

- [21_CKL_15_고] 그날 학교에 학교 유니폼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혼났어.
[21_CKL_17_고] 어제 내가 교복을 안 입어서 나한테 혼났어요. 너무 창피해요
[21_CKL_32_중] 엄마가 교복을 세탁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붙잡혔다. 그런데 자꾸 나를 못 믿으니까 내가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21_CKL_37_고] 교복 안 입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한테 혼났어
[21_CKL_62_중] 교복 세탁해서 안 입어 학교에 왔어. 선생님께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안 믿어 줘서 혼났어
- [22_CKL_14_중] 영수는 민희랑 사귀고 싶었지만 민희는 좋아하는 사람있어서 거절했어
[22_CKL_15_고] 영수는 민희에게 고백했어. 민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했어.
[22_CKL_28_고] 영수는 고백했어. 그 다음에 민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절했어.
[22_CKL_77_중] 영수는 민희에게 사귀기를 제안했지만 민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영수를 거절했어.

위와 같은 응답 예시도 과거 발화에 대한 인용이 아닌 과거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회고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상황 설명]에서 제시된 요구, 즉 화자로서 발생했던 이야기 내용을 청자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 하라는 것을 무시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만 간략하게 묘사하였다. 해당 언어 표현을 통해 상황에 요구된 ‘생동감 부여’ 의미 기능을

실현할 수 없다.

특히 [상황 22]에선 영수랑 민희가 한 말을 그대로 말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화 내용을 인용표현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용표현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용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인용표현을 통해 발화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봤던 장면만 묘사했던 것 같아요.”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많았다. 이를 통해 해당 학습자들이 인용표현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타인 발화(글이나 말) 전달 상황에서도 인용표현 사용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용표현에 대한 교육이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직접 대신 간접인용표현 산출

II장 2절에서도 살펴봤듯이 직접인용표현은 원발화의 형태 자체를 강조하며 피인용문을 그대로 전달하는 언어 표현인 반면 간접인용표현은 원발화의 내용을 강조하며 의미만을 전달하는 언어 표현이다. 즉 직접인용표현은 원발화자가 어떤 언어 형태로 말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간접인용표현은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의도에 따라 사용되는 인용 방식이 달라진다. 이 부분엔 다음과 같이 인용 개념을 직접인용표현이 아닌 간접인용표현으로 부호화한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21_CKL_1_고] 왜 교복 안 입고 왔느냐고, 내가 세탁해서 못 입고 온다고 했는데....내가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하셨더라고

[21_CKL_4_중] 선생님께서 나에게 왜 교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물으셨는데, 나는 그녀에게 나의 교복을 빨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것이 황당한 핑계라고 말했다

[21_CKL_7_고] 네가 교복을 안 입었어 선생님이 왜 입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세탁을 했다 선생님이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

[21_CKL_12_고] 선생님이 왜 교복 안 입고 학교에 왔냐고 물어보셨어. 그래

서 내가 교복 세탁해서 못 입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핑계를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안 믿어주셨어.

- [22_CKL_4_중] 영수 씨가 저랑 사귀자고 했는데 민희 씨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22_CKL_18_고] 영수가 민희한테 사귀어 달라고 했는데 민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대.
- [22_CKL_46_중] 여수는 민희한테 사귀라고 했는데 민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귄 수 없다고 했어
- [22_CKL_49_고] 영수가 민희한테 사귀재 민희를 정말 사랑한대, 근데 민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어
- [22_CKL_62_중] 영수가 사귀어 달라고 했는데 민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거절했어

- [23_CKL_1_고] 8월 8일부터 영업 종료한다고
- [23_CKL_5_고] 8일부터 영업 안 한다고 쓰여 있어
- [23_CKL_11_고] 8월 8일부터 영업 종료한다고 했어.
- [23_CKL_20_고] 8월8일부터 영업을 종료한대

- [24_CKL_1_고] 소년범죄 2017년 지난해보다 50% 증가율이 넘어섰다고
- [24_CKL_19_중] 2017년보다 지난해의 증가율이 50%를 넘어섰대
- [24_CKL_29_고] 소년범죄자가 대폭 증가한다고 발표했어
- [24_CKL_52_중] 소년 범죄율이 많이 올랐대요

[25_CKL_65_중] 반갑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 [26_CKL_1_고] 깎아주시면 안되냐고 해봐
- [26_CKL_3_고] 싸게 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봐
- [26_CKL_7_고] 싸게 팔아 달라고
- [26_CKL_21_고] 깎아 달라고 해 봐

직접인용표현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설계한 이 6가지 상황에서

는 앞서 계속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사용되는 인용 방식에 따라 드러나는 의미 기능 차이가 존재하지만 직접과 간접인용표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직접 대신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직접 대신 간접인용표현을 선택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고 문제가 포착되는 학습자의 인식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 결과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직접과 간접인용표현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간접인용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간접인용표현을 선택했어요.”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의미 기능이 아닌 사용 빈도에 따라 인용 방식을 선택하며, 직접과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차이에 대한 지식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면 문장이 길어지고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간접인용을 통해 내용을 요약할 수 있고 더 짧은 말로 바꿔서 쓸 수 있어서 직접보다 간접인용표현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이는 직접인용표현의 형태 장황함으로 인해 사용을 회피하였다는 것이고 직접 또는 간접인용표현을 선택할 때 학습자가 고려하는 요소는 형태 차이만 있을 뿐 의미 기능 차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도 역시 직접과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차이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인용표현 형태를 갖췄으나 비체계적인 부호화 양상

인용표현 사용을 인식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상황에 맞는 인용표현을 일관성 있게 산출한 반면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형성된 인용 개념을 인용표현으로 부호화할 때 비체계적인 양상을 많이 보여주었다. 이 절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비체계적인 부호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2.1. 비체계적인 간접인용표현 부호화 양상

먼저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개념화가 이루어졌고 간접인용표현을 쓰긴 썼지만 문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특정 패턴으로만 굳어져 있어 진정한 의미 기능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상이한 의미 기능을 가진 인용표지를 오용하는 등 비체계적인 간접인용표현 부호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1) 문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간접인용표현 산출

여기서 다음과 같이 명령문과 관련된 인용표지 ‘-라고’의 사용 환경을 숙지하지 않아 ‘-라고’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서 다른 인용표지를 선택해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산출한 학습자들이 많았다.

[3_CKL_7_고] 너가 저녁 혼자 먹**자고**

[3_CKL_19_중] 친구 만나러 가니까 너 혼자 먹는**다고**

[3_CKL_20_고] 나 친구 만나러 간다고. 너 혼자서 알아서 밥 먹는**다고**

[3_CKL_38_중] 저녁 혼자 먹**다고**

[3_CKL_52_중] 저녁 혼자 밥을 먹는**다고** 했어

[7_CKL_49_고] 목소리 낮춘**다고**

[7_CKL_52_중] 조용하**다고**

[7_CKL_70_중] 목소리 낮추**다고**

[7_CKL_80_중] 목소리를 낮춘**다고** 했잖아

[8_CKL_35_고] 우리 학교에 오지 만**다고** 하잖아

[상황 3]은 ‘자기 인용-반복 확인’ 경우이고 [상황 7] 및 [상황 8]은 ‘자기 인용-불평’ 경우이다. 피인용문이 명령문일 경우 인용표지 ‘-라고’를 사용해야 하나 위의 학습자들은 청유문에 쓰이는 ‘-자고’나 평서문에 쓰이는 ‘-다고’를 대신 사용하였으며, 특히 ‘-다고’를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모든 한국어 문법 교재에서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등의 문장 유형에 따라 인용표지 형태를 구분하여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헛갈리는 학습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후 인터뷰를 통해 인용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용표지 '-다고'만을 떠올리는 학습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인용표지의 서법과 상관없이 모든 인용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다고'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피인용문 유형에 따른 인용표지 형태 선택, 특히 '-라고', '-다고'의 용법에 대한 교육 내용을 더욱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설명해야 한다.

(2) 특정 패턴의 인용표현 산출

여기선 특정 패턴을 지닌 인용표현 형태에 굳어져 있는 학습자의 모습을 알아볼 것이다. 먼저 다음과 같이 인용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다고 해(요)' 형태로 문장을 끝맺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1_CKL_66_중] 이번 달 용도 없다고 해

[3_CKL_14_중] 나는 너에게 저녁 혼자 먹는다고 해

[3_CKL_58_중] 지금 친구 만나기러 나간다고 해. 저녁 혼자 먹어다고 해

[3_CKL_68_중] 친구 만나야 한다고 해

[4_CKL_3_고] 저녁 7시쯤에 집에 들어 왔다고 해

[4_CKL_14_중] 저녁 7시쯤에 집에 들어왔다고 해

[4_CKL_73_중] 어제 저녁 7시쯤에 집에 들어왔다고 해

[10_CKL_14_중] 영화 보고 싶었다고 해

[12_CKL_6_고] 빵 훔쳤다고 해요

[12_CKL_56_중] 빵을 훔친다고 해요

[13_CKL_68_중] 이번주 줄 수 있다고 해

[14_CKL_66_중] 휴대폰을 사 준다고 해요

[18_CKL_67_중] 듣자니 곧 결혼한다고 해

위에 제시된 산출물을 통해 학습자들이 무슨 상황이든, 발화자가 무슨 의도이든, 인용 개념을 억지로 ‘-다고 해(요)’로 부호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누군가의 말을 자신의 발화 속으로 끌어오는 것을 깨닫고 ‘인용’만을 생각하여 인용표현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인 ‘-다고 하다’를 떠올린 것이다. 하지만 인용을 통해 어떠한 의미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피인용문 유형에 따른 인용표지 서법과 종결어미의 시제도 고려하지 못했으며 가장 익숙한 ‘-아/어/여(요)’ 종결어미로 문장을 마무리했기에 최종적으로 ‘-다고 해(요)’의 형태가 산출된 것이다.

이것보다 좋은 양상은 학습자들이 누군가의 발화를 인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했을 뿐만 아니라 인용표지의 서법과 종결어미의 시제 등의 형태적 요소를 고려하여 ‘-라고/다고 들었어/했어’를 사용해 아래와 같은 인용표현을 산출했다는 것이다.

[17_CKL_24_고] 당신의 여자친구는 여신이라고 들었어

[17_CKL_35_고] 철수야, 네여자 친구가 여신이라고 들었어

[17_CKL_56_중] 너의 여자친구는 여신이라고 들었어

[17_CKL_59_중] 여자 친구가 여신이라고 들었어

[17_CKL_69_중] 여자친구가 여신이라고 들었어

[18_CKL_4_중] 곧 결혼한다고 들었어

[18_CKL_54_중] 지금 만나고 있는 여친이랑 결혼한다고 들었어

[18_CKL_73_중] 너는 곧 여자 친구와 결혼한다고 들었어

[18_CKL_78_중] 결혼한다고 들었어

- [20_CKL_2_중]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⁵³⁾
- [20_CKL_12_고] 개가 말 하지 말라고 했어
- [20_CKL_20_고] 자기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
- [20_CKL_37_고] 화를 나면서 자기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어
- [20_CKL_46_중] 그는 말 하지 마라고 했어

해당 양상은 주로 ‘제3자 인용-확인’과 ‘제3자 인용-불평’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발견되었다. 해당 문장들은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논리적이다. 하지만 제시된 상황에 넣어서 다시 살펴보면 해당 인용 표현들이 상황에 요구된 의미 기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3자 인용-확인’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일률적으로 ‘-(이)라고/다고 들었어’를 사용해 제3자로부터 들은 소문임만을 나타냈으며 상대방에게 해당 소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제3자 인용-불평’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으)라고 했어’를 사용해 제3자가 무슨 발화를 했는지를 청자에게 전달했을 뿐이며 제3자에 대한 불만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보다 한층 더 나아가 의미 기능을 고려한 언어를 산출하였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제3자 인용-확인’ 상황에서 ‘-라고/다고 들었어/들었는데, 진짜/사실/정말이야(?)’ 등을 사용해 아래와 같은 인용표현을 산출한 경우가 많았다.

- [17_CKL_11_고] 여친이 여신이라고 들었어, 진짜
- [17_CKL_15_고] 여자 친구가 여신이라고 들었어, 사실이야
- [17_CKL_41_고] 여자친구가 여신처럼 생긴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 [17_CKL_61_중] 네 여자친구가 미녀라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 [17_CKL_77_중] 네 여자 친구가 여신이라고 들었어, 진짜 그래

53) [상황 20]은 화자 ‘철수’가 제3자 ‘재현’에게 같이 농구하러 가자고 하지만, ‘재현’은 아무 이유 없이 ‘철수’에게 화를 내며 “나한테 말도 걸지 마.”라고 말했는데 이에 철수는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이다.

철수: 오늘 재현이 많이 예민해 보여. 오늘 _____.
 나영: 재현이 갑자기 왜 그런 거야. 기분 풀어. 무슨 일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볼게.

[18_CKL_1_고] 곧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진짜야

[18_CKL_15_고] 너 결혼 할 것이라고 들었어. 사실이야

[18_CKL_19_고] 너 여자친구와 결혼할거 라고 들었는데 맞아

[18_CKL_60_중]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라고 들었어, 정말이야

제3자로부터 들은 소문을 인용하여 청자에게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서 학습자는 ‘인용’을 드러냄과 동시에 ‘확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소문을 들었다’를 표현하기 위하여 “...라고/다고 들었어/들었는데”를 사용했으며 또한 상대방에게 이는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뒤에 “진짜/정말/사실이야(?)”와 같은 문구를 붙인 것이다. 사실 여기서 ‘인용’ 개념 및 ‘확인’ 의미 기능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도록 ‘-다면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들은 해당 개념들을 적절한 인용표현 형태와 연계하지 못해 위와 같은 언어를 산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특정 패턴의 간접인용표현 사용은 진정한 기능-형태 연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은 누군가의 말을 자신의 발화 속으로 끌어오는 것을 인용표현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개념에 멈추고 있으며, 상황에 요구되는 의미 기능에 따라 적절한 인용표현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자는 실제 담화 맥락에서 벗어나 인용의 개념 및 인용표현 형태의 정확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화 속에서 드러나는 의미 기능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의미 기능에 대응되는 간접인용표현 형태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3) 상이 의미 기능의 인용표지 오용

인용표지는 서법 제약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 의미 기능에 따른 제약도 받는다. 그래서 상황에 요구되는 의미 기능에 따라 사용되는 인용표지가 달라진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의 의미 기능에 따른 인용

표지 선택 양상에서 많은 문제가 포착되었다. 이 부분에선 완벽한 인용 표현 형태를 갖췄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다른 의미 기능을 가진 인용표지를 오용한 양상을 밝히겠다.

먼저 인용표지 ‘-대/래(요)’를 오용한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_CKL_28_고]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이번 달 용돈이 주지 않**대**
- [1_CKL_33_고] 성적이 60점을 받으니 이번 달 용돈 안 준**대**
- [1_CKL_73_중] 60점도 못 받았어 이번 달에 용돈이 없**대요**

[3_CKL_28_고] 너 저녁 혼자 먹**으래**

- [4_CKL_23_고] 친구랑 농구 하고 저녁 7시쯤에 집에 들어왔**대**
- [4_CKL_28_고] 어제 농구를 하고 7시에 들어왔**대**
- [4_CKL_33_고] 밤 7시쯤이**래**

[13_CKL_66_중] 이번에는 돌려준**대**

[14_CKL_55_중] 핸드폰 사 준**대요**. 왜 사줘요

[상황 1], [상황 3], [상황 4]는 화자 자신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이며 [상황 13], [상황 14]는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이다. 해당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모두 ‘-다고/라고 해(요)’의 구어 축약형 인용표지 ‘-대/래(요)’를 사용하였다. 학습자들은 인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구어 문법 형태로 부호화해야 하기에 ‘-대/래(요)’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어 축약형 인용표지 ‘-대/내/래/재(요)’는 주로 제3자의 발화를 인용하는 데만 사용한다. ‘-대/내/래/재(요)’의 세부 의미 기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들은 원발화자에 따라 인용표지를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했다. 이 또한 인용표지를 형태 중심으로 접근한 교육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김정은, 2008: 84).

다음 인용표지 ‘-다며/다면서’를 오용한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9_CKL_64_중] 오늘 저녁은 안 된다며

[12_CKL_3_고] 흠뻑다면서

[상황 9]는 ‘상대방 인용-확인’ 경우이다. 여기서 인용표현을 사용할 것이면 “오늘 저녁은 안 된다고(?)”를 사용해야 하나 학습자 [9_CKL_64_중]은 인용표지 ‘-다면서’의 준말 ‘-다며’를 사용하였다. ‘-다며’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해당 상황은 상대방의 말을 재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상대방에게 무엇을 확인할 때 ‘-다면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일상 대화이니까 구어 형식 ‘-다며’를 썼어요.”라고 답하였다. 이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확인’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쓰이는 ‘-다면서’와 ‘-다고’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고’는 방금 전에 상대방이 했던 발화를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나 ‘-다면서’는 상대방이 했던 말을 더욱 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인용해서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서 ‘-다면서’를 사용할 수 없다(임학혜, 2016: 75).

그리고 [상황 12]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놀람을 표출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놀람’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인용표지를 사용하려면 ‘-다고/다니’를 선택해야 하나 학습자 [12_CKL_3_고]는 인용표지 ‘-다면서’를 선택하였다. ‘-다면서’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상대방의 말을 인용할 때 ‘-다면서’를 사용하는 예문을 많이 접했어요. 여기서 ‘-다고’를 사용할 생각도 했지만 ‘-다고’는 ‘놀람’ 의미를 구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면서’를 사용했어요.”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학습자가 ‘-다면서’와 ‘-다고’의 세부 의미 기능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번째, ‘-다면서’는 상대방 인용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했던 발화와 다르게 행동했거나 상대방의 발화와 다른 사실이 나타났을 때

상대방에게 이를 확인하면서 불평을 추가로 드러내는 데 쓰이며 ‘놀람’ 감정을 드러낼 수 없다. 두 번째, ‘-다고’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놀람을 표현할 때 사용될 수 있다. 해당 학습자는 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인용표지를 오용하였다.

위의 논의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인용표지의 세부 의미 기능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인용표지 선택 및 사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각각 상황에서 사용되는 인용표지를 명시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인용표지 간의 의미 기능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한다.

3.2.2. 비체계적인 직접인용표현 부호화 양상

직접인용표현은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직접 인용표지(-라고/이렇게 등)는 간접 인용표지와 달리 서법 및 의미 기능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피인용문의 문장 유형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지 않으며 동일한 형태만으로 앞서 언급한 ①생동감 부여, ②객관성 및 사실성 강화, ③언어 형식 재현 이 3가지 의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제시된 상황에서 직접인용표현 사용을 이끄는 개념화가 이루어져 이를 직접인용표현으로 성공적으로 부호화했다면 오류를 잘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청자에게 발화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상황 22]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응답에서 오류라고 하기보다는 특이한 양상 하나를 발견하였다. 해당 상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모두 직접인용표현 또는 간접인용표현,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일관성 있게 언어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직접과 간접인용표현을 구분 없이 혼용한 양상이 많이 나타났다.

[22_CKL_41_고] 영수가 민희한테 “정말 사랑하고 사귀고 싶다” 라고 고백했는데 민희가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고 거절했어.

[22_CKL_43_고] 영수가 “저랑 사귀고 주세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라고

말했어. 민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

[22_CKL_58_중] 영주는 저랑 사귀어 주세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라고 했는데 민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22_CKL_75_중] 영수가 민희에게 널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어. 민희는 미안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

위의 학습자들의 언어를 살펴보면 직접인용표현을 쓰다가 간접인용표현으로 바뀌 쓰고 있거나 간접인용표현을 쓰다가 직접인용표현으로 바뀌 쓰고 있다. 왜 이러한 언어를 산출했는지에 대해 사후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응답이 눈에 띄었다.

“[상황 설명]에서 생동감 있게 전달하라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직접인용표현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간접인용표현을 써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하나만을 선택하지 못하고 둘 다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전 인용표현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이 둘의 사용법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한국인들과 교류할 때도 직접과 간접인용표현을 섞어서 사용해요.”

위의 응답을 통해 학습자들이 인용 방식에 따른 의미 기능의 차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상황에 따른 인용 방식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용 개념을 인용표현으로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정돈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인용 방식에 따른 의미 기능의 차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3. 충분한 개념화 및 적절한 부호화가 이루어진 양상

이 부분은 앞에서 살펴본 양상과 다르게 인용표현 사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인용과 관련된 개념화가 충분히 일어남과 동시에 이를 적절한 인용표현으로 부호화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3.3.1. 개념과 부호 조화를 이룬 간접인용표현 사용 양상

사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을 선정하기 위해 <표 III-10>에서 제시된 중국인 학습자의 의미 기능별 간접인용표현 사용률과 <표 III-4>에서 제시된 중국인 학습자의 전체 간접인용표현 사용률을 비교할 것이며, 전체 사용률보다 낮을 경우 사용률이 낮은 상황으로 선정한다. 하지만 비교를 진행하기 전에 <표 III-4>와 <표 III-10>을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III장 2.1절에서 밝혔듯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숙달도 변인이 간접인용표현 사용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를 ‘중급’과 ‘고급’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인’ 집단으로 간주하고 평균 사용률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II-20> 중국인 학습자의 간접인용표현 평균 사용률

구분		사용률
전체		47.05%
자기 인용	전달	63.75%
	반복 확인	58.75%
	강조	6.25%
	불평	51.25%
상대방 인용	확인	41.25%
	놀람	30.63%
	불평	48.75%
제3자 인용	전달	74.38%
	확인	58.13%
	불평	37.50%

위의 표를 통해 ‘자기 인용-강조’와 ‘상대방 인용-확인’, ‘상대방 인용-놀람’, 그리고 ‘제3자 인용-불평’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간접인용표현 사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한 개념화 및 적절한 부호화가 이루어진 학습자의 언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자기 인용-강조’ 상황의 적절한 간접인용표현 산출 응답 예시

[5_CKL_18_고] 너한테 뭐든 해주고 싶단 말이야

[5_CKL_23_고] 뭐든 해주고 싶다고

[5_CKL_49_고] 나한테 뭐든 해주고 싶다니까

[6_CKL_12_고] 엄청 재미있다고

[6_CKL_49_고] 진짜 재미있다니까

자신의 발화나 생각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을 산출한 응답은 전체 160개의 응답 중 10개밖에 없었다. 거의 모든 중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을 산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10개의 응답 중 위에서 제시된 예시와 같이 자신의 발화 “너한테 뭐든 해주고 싶다.”, “(영화가) 재미있다.”를 다시 ‘강조’하는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문법 형태 ‘-단 말이야’, ‘-다고’, ‘-다니까’를 선택하여 문장을 생성해 낸 응답이 있었다.

(2) ‘상대방 인용-확인’ 상황의 적절한 간접인용표현 산출 응답 예시

[9_CKL_51_고] 오늘 저녁에 안 된다고

[10_CKL_1_고] 영화 보고 싶었다며

[10_CKL_2_중] 영화 보고 싶다고 했지

[10_CKL_4_중] 영화 보러 가고 싶다고 했잖아

[10_CKL_16_중] 영화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상대방의 발화를 확인하는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을 산출한 응답은 전체 160개의 응답 중 66개만 있었으며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해당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을 산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위의 예들은 간접인용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학습자 언어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발생했던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다고’로 끝맺는 의문문을 많이 사용했으며, 오래 전에 발생했던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다며/다면서’, ‘-다고 했지’, ‘-다고 했잖아’, ‘-다고 하지 않았어’로 마무리하는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상대방 인용-놀람’ 상황의 적절한 간접인용표현 산출 응답 예시

[11_CKL_21_고] 헤어졌다고

[11_CKL_53_중] 나영이 남친이랑 헤어졌다니

[12_CKL_13_고] 빵을 훔쳤다고요

[12_CKL_53_중] 빵을 훔친다니요

[12_CKL_68_중] 빵을 훔쳤다노

상대방의 말에 대한 놀람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을 산출한 응답은 전체 160개의 응답 중 49개에 불과하였다. 이 49개의 응답 중 상대방 발화의 핵심 내용인 “(나영이) 남자 친구랑 헤어졌다.”, “(철수가) 빵을 훔쳤다.”를 듣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는 복잡한 개념을 적절한 문법 형태로 부호화하는 것에 성공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예는 위와 같다. 상대방의 말에 대한 ‘놀람’을 표출하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다고’와 ‘-다니’를 주로 사용하였다.

(4) ‘제3자 인용-불평’ 상황의 적절한 간접인용표현 산출 응답 예시

[20_CKL_1_고] 자기한테 말 걸지 말래

[20_CKL_13_고] 말 걸지 말라고 하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발화에 대해 불평하는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을 산출한 응답은 전체 160개의 응답 중 60개에 불과하였다. 이 60개의 응답 중 간접인용표현을 자연스럽게 시용하는 것을 살펴보면 주로 위에서 제시된 예시와 같이 ‘-래’와 ‘-라고 하네’를 통해 제3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해당 표현들은 단순히 ‘전달’ 의미를 드러내는 ‘-다고 했어’보다 ‘불만’ 따위의 감정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학습자들은 상황에 요구되는 의미 기능을 파악하여 정확한 문법 형태로 부호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3.3.2. 개념과 부호 조화를 이룬 직접인용표현 사용 양상

앞에서 살펴봤듯이 직접인용표현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상황에서 직접인용표현 사용률이 모두 낮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모든 상황에서 충분한 개념화 및 적절한 부호화가 이루어진 학습자의 언어를 살펴보고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생동감 부여’ 상황의 적절한 직접인용표현 산출 응답 예시

[21_CKL_25_고] 선생님이 “학교 오는데 왜 교복을 안 입고 왔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옷을 세탁해서 못 입고 왔어요.” 라고 했어. 선생님이 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라고 했어요.

[21_CKL_28_고] 선생님이 “학교 오는 왜 교복을 안 입고 왔냐?” 라고 물어봤어. 너무 화나보여. 그리고 내가 “옷을 세탁해서 못 입고 왔어요.” 라고 대답한 뒤에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 라고 말했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

[21_CKL_58_중] 선생님은 학교 오는데 교복 왜 안 입고 왔냐라고 했어. 저는 옷을 세탁해서 못 입고 왔어요라고 했어. 선생님은 어디서 그런 말도 안 핑계를 대고 있어라고 했어.

[22_CKL_25_고] 영수는 민희에게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저랑 사귀어 주세요.”라고 진지하게 말했어. 그러나 민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요.” 라고 했으며 영수를 거절했어.

[22_CKL_27_고] 영수가 먼저 ‘민희 씨, 저랑 사귀어 주세요’라고 하다가 민희는 ‘네? 사귀자고요’라고 대답했어, 그다음 영수가 ‘네, 저랑 사귀어 주세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라고 다시 말했어. 민희가 이 말이 들으면서 바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거절했어

[22_CKL_63_고] 처음에 영수가 “저랑 사귀어 주세요” 라고 했어, 민희가 “네? 사귀자고요?” 라고 다시 물어본거야. “네! 사귀어 주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영수가 다시 고백한 거야. 근데,

민희가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요” 직접 거절
했어

(2) ‘객관성 및 사실성 강화’ 상황의 적절한 직접인용표현 산출 응답
예시

[23_CKL_2_중] “8월 8일부터 영업을 종료합니다.” 라고 했잖아

[24_CKL_16_고] “소년범죄 접수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
건으로 증가율이 50%를 훌쩍 넘어섰다.” 이렇게 발표했어

(3) ‘언어 형식 재현’ 상황의 적절한 직접인용표현 산출 응답 예시

[25_CKL_10_고] “안녕하세요”라고 해요

[25_CKL_12_고]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돼요

[25_CKL_14_중] 안녕하세요라고 말해요

[25_CKL_20_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26_CKL_10_고] “좀 싸게 해주시면 안돼요?”라고 해

[26_CKL_12_고] 사장님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되지

[26_CKL_13_고] 사장님, 저희 아직 학생인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될 까요 라
고 물어봐

[26_CKL_14_중] 좀 싸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

[26_CKL_48_중] 그냥 사장님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 치마 좀 싸게 돼
요?” 이렇게 말 해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발생했던 발화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거
나 공신력 있는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에 객관성 및 사실성을
더해주거나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특정 언어 표현을 정확하게 알리는
상황들에서 상당수의 학습자들이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간접인
용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학습자들은 ‘-라고/이렇게+동
사’ 형태가 담긴 직접인용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였다. 해당 학습자들

은 직접인용표현이 쓰이는 환경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형성된 인용 개념을 적절한 인용표현으로 부호화하는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간접인용표현 대신 직접인용표현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은 직접 및 간접인용표현이 드러나는 의미 기능의 차이까지 고려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상을 통해 개념과 부호의 조화를 이룬 직접 및 간접인용표현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인용표현을 산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용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인용표현이 사용되는 상황 및 맥락에 대한 개념화 정도가 높고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지식이 구축되어 있으며 인용표현 사용 능력이 발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용표현을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곧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로 원활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이런 능력을 육성해야 한다.

IV. 인용표현 의미 기능 교육 방안

이 장에서는 II장에서 살펴본 인용표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III장에서 분석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실제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인용표현 의미 기능에 대한 교육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2절에서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게끔 교육 내용을 선정하며 3절에서는 교육 내용을 교육 현장, 즉 한국어 문법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절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한국어 문법 교재를 살펴봄으로써 교육의 미흡함을 함께 제시할 것이다.⁵⁴⁾

1. 교육 목표

교육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서 교육적 행위의 방향을 정해주며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된다(안정수, 2003). 교육 목표에 따라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정확한 교육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제2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의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두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54) 이를 위해 I 장 3절의 각주5에서 밝힌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 대상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시기	급수
<경희 한국어> 문법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2021	초급1, 2 중급1, 2 고급1, 2
<재미있는 한국어>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 교육센터	외국어교육연구출판사 교보문고	2010-2014	1-6
<새 연세 한국어 어휘와 문법>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	1-6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중앙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중앙대학교	2018-2019	1-4 상 & 하 5-6 문법

한국어 인용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커네일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은 의사소통 능력을 문법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분류시켰다.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은 발음, 원어민의 언어 사용에 맞게 어휘와 문장을 적절하게 구축하는 능력을 말하며,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맞게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은 형태적인 응집성 및 의미적인 긴밀성을 지닌 발화로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능력을 가리키며,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은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언어적과 비언어적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이다.⁵⁵⁾ 문법의 교육 목표는 학습자로 하여금 원어민처럼 목표 문법의 정확한 형태와 의미뿐만 아니라 해당 문법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되는지, 즉 화용적 기능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와 III장에서 살펴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선정하겠다.

III장에서 확인하였듯이 일부 중국인 학습자들은 인용표현의 범위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어떤 경로로 보거나 알게 된 정보가 글이면 인용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인용표현 교육의 첫 번째 목표를 인용표현의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히는 것으로 설정하겠다.

그리고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즉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상황과 인용표현을 연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현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용표현 교육의 두 번째 목표로는 인용표현의 다양한 의미 기능에 대한 개념화(인식) 정도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상황과 인용을 신속하게 연계하여 해당 상황에서 인용표현을 사용

55) 임학혜(2016: 157) 재인용.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부 학습자들은 형성된 인용 개념을 인용표현으로 부호화하지 못하거나 부호화를 성공해도 피인용문의 문장 유형을 고려한 인용표지를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하거나 특정 패턴을 지닌 인용표현에 굳어져 있거나 상이한 의미 기능을 지닌 인용표지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세 번째 교육 목표로는 일차적으로 형성된 인용 개념을 정확하고 적절한 인용표현으로 부호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당히 많은 학습자들이 직접인용표현과 간접인용표현의 형태 차이만을 알고 있고 인용 방식에 따른 의미 기능 차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는 한국어 문법 교재에서 직접인용표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할 때 간접인용표현과의 형태 차이에 대해서만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⁵⁶⁾ 따라서 네 번째 교육 목표로는 인용 방식에 따른 의미 기능 차이를 익히고 이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V-1> 인용표현의 교육 목표

최종 목표	한국어 인용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시킨다.
하위 목표	①인용표현의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익힌다. ②인용표현의 다양한 의미 기능에 대한 개념화(인식) 정도를 고양시킨다. ③형성된 인용 개념을 정확하고 적절한 인용표현으로 부호화할 수 있다. ④인용 방식에 따른 의미 기능 차이를 익히고 이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교육 내용

56) 고려대 교재에선 직접인용표현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3과 64쪽):
‘-다고 하다’는 평서문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수미가 “비가 와요.”라고 했어요. → 수미가 비가 온다고 했어요.

이 절에서는 먼저 어떤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교육하는지, 즉 등급별로 제시하는 교육 내용을 살펴본 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내용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2.1. 등급별 교육 내용 선정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어 문법 교재에서의 인용표현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면 연세대 교재의 경우 인용표현에 대한 내용을 2-4급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고려대 교재는 3-4급, 경희대 교재는 3-5급, 중앙대 교재는 2-6급에서 이를 제시하고 있다. 교재마다 인용표현에 대한 제시 양상이 다르기에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어떤 단계에서 인용표현에 대한 어떤 내용을 교수·학습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김중섭 외(2010)에서 논의된 ‘등급별로 문법에 대한 총괄 목표’를 참고하겠다. 그는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⁵⁷⁾

<표 IV-2> 김중섭 외(2010)에서 제시된 ‘등급별로 문법에 대한 총괄 목표’

등급	내용
1급	1. 한국어의 기본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정형화된 문장 표현들을 목록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2급	1. 빈도수가 높은 연결어미나 관형절이 포함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한국어의 시제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빈도수가 높은 보조용언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3급	1. 비교적 복잡한 의미 기능을 가진 조사를 이해할 수 있다. 2. 피동법, 사동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인용절을 이해할 수 있다.
4급	1. 문어와 구어를 구분하여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인용절을 사용할 수 있다. 3. 오류는 있으나 대부분의 문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5급	1. 정확하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57) 임학혜(2016: 160) 재인용

	2. 대부분의 문법을 비교적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
6급	1. 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7급	1. 거의 오류 없이 대부분의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

위의 표를 통해 인용표현에 대한 교육은 3급, 즉 중급부터 진행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3급에서 인용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용표현의 개념 및 범위 등의 기본적인 지식과 다양한 의미 기능을 익히게 하는 교육 내용을 다루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 4급에선 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미 기능에 따른 인용표현 형태를 익히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5급에선 정확하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과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차이를 익히게 하는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6급에선 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과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차이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V-3> 인용표현의 등급별 교육 내용

등급	교육 내용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간접인용표현의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한 기본 지식 • 직접·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따른 부호화 양상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차이에 대한 명시적 설명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기능 차이를 고려한 직접·간접인용표현 사용

2.2. 교육 내용 설계

다음은 II장의 이론적 배경과 III장의 학습자 양상, 그리고 IV장의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인용표현 교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을 설계하고자 한다.

2.2.1. 인용표현 기본 지식 교육

먼저 인용표현에 대한 기본 지식을 교육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인용표현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인식시켜줘야 한다.

II장에서 밝힌 인용표현의 의미적 개념을 살펴보면 화자가 자신을 포함하여 누군가의 발화나 생각을 자신의 발화 속으로 끌어오는 것을 드러내는 언어 표현이다. 여기서 발화는 구어적인 말과 서면적인 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앞의 학습자의 사용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용표현이 누군가의 말을 인용할 때만 사용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인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된 서면적인 정보, 즉 글의 내용을 자기 발화 속으로 끌어올 때 인용표현을 쓰지 않는 학습자가 많았다. 따라서 누군가의 말뿐만 아니라 어디서 본 글을 가져와 사용할 때도 출처를 드러내는 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화로 표현할 때 간접인용표현을 산출한 비율(41.25%)은 자신의 발화를 재사용할 때 간접인용표현을 산출한 비율(81.25%)보다 훨씬 더 낮았다. 물론 한국인들도 자기 생각 인용 상황에서 인용표현보다 양태 표현을 더욱 선호했기 때문에 학습자가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양상은 발화 인용에 대한 내용만을 제시하고 생각 인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교육 실태⁵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기 생각 인용 상황에서 학습자의 낮은 인용표현 사용 빈도수는 생각 인용에 대한 교육 내용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그저 인용표현보다 양태 표현을 더욱 선호하기에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면 괜찮지만, 인용표현의 범위를 모르면서 양태 표현만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누군가의 생각을 전달할 때도 인용표현이 사

58) 경희대 및 중앙대 교재를 예로 들 수 있다.

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실제성을 고려하여 해당 상황에서 대부분의 한국인이 인용표현보다 양태 표현을 더욱 선호한다는 것도 함께 알려준다.

2.2.2. 의미 기능 개념화 교육

형태보다는 의미 기능에 초점을 두는 개념화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인용표현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되는지를 익히게 하고 다양한 의미 기능이 드러나는 상황 맥락에서 인용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깊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은 [그림 II-1] 및 [그림 II-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인용표현의 경우 원발화자에 따라 ‘자기 인용-전달, 반복 확인, 강조, 불평’, ‘상대방 인용-확인, 놀람, 불평’, ‘제3자 인용-전달, 확인, 불평’ 의미 기능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사용되며, 직접인용표현의 경우 ‘생동감 부여’, ‘객관성 및 사실성 강화’, ‘언어 형식 재현’ 의미 기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앞서 <표 III-20>(중국인 학습자의 간접인용표현 평균 사용률)을 다시 살펴보면 간접인용표현 사용률이 60%를 넘은 상황은 ‘제3자 인용-전달’ 및 ‘자기 인용-전달’ 상황뿐이다. 다시 말해 간접인용표현이 사용되는 대부분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간접인용표현 사용을 이끄는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그 개념화 정도가 낮았다. 이는 ‘제3자 인용-전달’ 및 ‘자기 인용-전달’에 대한 교육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의미 기능, 특히 ‘불평’ 의미 기능에 대한 교육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는 교육 실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직접인용표현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가지 의미 기능이 드러나는 모든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직접인용표현 산출률이 매우 낮았다. 물론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가 어려워 학습자의 직접인용표현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낮은 사용률이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직

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인용표현 사용을 이끄는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확신이 없어 사용을 기피한 학습자가 있었다. 이는 직접인용표현에 대한 교육 내용이 거의 모든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본다.⁵⁹⁾

따라서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개념화 교육이 요구되며 다양한 의미 기능에 대한 교육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문법 교육의 중핵을 이루는 교육 내용은 탐구 경험이다(박진희, 2013: 85). 따라서 다양한 담화 맥락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탐구하는 것을 인용표현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삼는다. 쉽게 말하면 다양하고 적절한 예문을 제시하여 인용표현이 어떤 의미 기능이 드러나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화자의 어떤 감정이나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⁶⁰⁾ 이를 통해 실제 의사소통 속에서 인용표현을 사용한 대화 상대가 어떤 발화 의도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어떤 의도나 감정을 표출할 때 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화 정도를 향상시키도록 한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IV-4> 의미 기능 개념화 교육 내용

구분		의미 기능		예문	분석
간 접 인 용 표 현	자기 인용	의 도 적 추 면	전달	A: 아까 동생에게 뭐라고 했어? B: <u>내가 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가지고 오라고 했어.</u>	화자가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상대방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이 쓰인다.
			반복 확인	A: 영수가 숙제를 해. B: 응? 뭐라고?	청자가 화자의 과거 발화를 잘 듣지 못했기에

59) 직접인용표현 관련 내용을 따로 제시하고 있는 교재는 중앙대 교재밖에 없으며 나머지 교재들은 간접인용표현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60) 학습자들에게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설명해줄 땐 인용표현이 사용되는 종결 어미와 화자의 말투나 억양 등의 요소들과 함께 어떤 의미 기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줘야 한다. 다시 말해 간접인용표현으로만 해당 의미 기능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61)				<p>A: <u>영수가 숙제를 한다</u> <u>고.</u></p>	<p>화자에게 확인해 달라고 할 때 화자는 자신의 과거 발화를 되풀이하며 확인시켜주는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이 쓰인다.</p>
			강조	<p>A: 네가 나한테 이런 선물도 줬으니까 나도 네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어? B: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A: <u>너한테 뭐든 해주고 싶다니까~</u> 원하는 걸 말해 봐.</p>	<p>청자가 화자의 과거 발화를 정확히 들었지만, 이에 대해 무반응 또는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을 때 화자는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이 쓰인다. (이때 상대방이 화자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화자는 이에 대한 ‘따짐’이나 ‘불만’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아니다.)</p>
	감정적 측면	불평	<p>A: 여긴 왜 왔어? <u>학원엔 찾아오지 말랬잖아!</u> B: 전화 안 받아서 왔지. 같이 영화 보자고.</p>	<p>청자가 화자의 과거 발화와 다르게 행동했을 때 화자는 했던 발화를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청자에 대한 ‘따짐’이나 ‘불만’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추가로 나타내는 경우에서 간접인용표현이 쓰인다.</p>	
상대방 인용	의도적	확인	<p>A: 엄마, 나 이따 나가야겠다. B: <u>오후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u></p>	<p>화자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특별한 감정 없이 이를 듣고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상대방에게 단순히 확인하는</p>	

		면		경우에서 간접인용표현이 쓰인다.
	감정적 측면	놀람	A: 그 사람이 오늘 집에서 떠났어. B: 뭐? <u>그 아이가 떠났다고!?</u> A: 아침에 일어났더니 말도 없이 사라졌더라고.	상대방이 방금 했던 말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놀람’을 추가로 드러내는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이 쓰인다.
		불평	A: 왜 은새랑 나랑 안 섞어줘요? <u>섞어준다면 서?</u> B: 미안. 내가 내일 은새한테 전화하라고 할게. 약속. A: 진짜지?	상대방이 말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의 과거 발화를 재확인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불만’, ‘질책’ 등 부정적인 감정이 함축되는 ‘불평’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이 쓰인다.
제3자인용	의도적 측면	전달	A: 의사님이 뭐래? B: <u>콜수압이래요.</u>	단순히 타인에게 얻은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이 쓰인다.
		확인	A: “C”의 애인이 미인이야. B: 그래? ----- B: <u>네 애인이 미인이라면서?</u> C: 미인이기는.	제3자로부터 전해지는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간접인용표현이 관습적으로 쓰인다.
	감정적 측면	불평	A: 오늘 철수 씨 신경이 무척 날카로워 보여요. B: 무슨 일이 있었어요? A: <u>오늘은 자기한테 말도 시키지 말라네요.</u>	제3자에게 들은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제3자에 대한 가벼운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이 쓰인다.

직접 인용 표현	생동감 부여	A: 어제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를 했어? B: <u>선생님이 “교복 왜 안 입고 왔나?”라고 물어보셔서, 내가 “세탁해서 못 입고 왔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u>	직접인용표현을 통해 청자로 하여금 발화 현장을 상상하게 하되 마치 본인도 발화 현장에 있는 듯이 발화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과 같이 느끼게 한다.
	객관성 및 사실성 강화	지금 협정문을 한 번 보십시오. 두 번째에 보면 <u>“대한민국이 민영화를 추진할 때는 예외다.”라고 딱 돼 있습니다.</u> 그런 걸 좀 보시면 공공정책이 전반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말씀은 하시면 곤란하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직접인용표현을 통해 끌어와 자신의 발화의 객관성 및 사실성을 높인다.
	언어 형식 재현	한국어에서는 <u>밥을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라고 해요.</u>	직접인용표현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특정 언어 표현 형태를 알린다.

2.2.3. 의미 기능에 따른 부호화 교육

인용표현이 어떤 의미 기능을 지니는지, 즉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만 알고 이를 어떻게 인용표현 형태로 부호화하는지에 대해 몰라선 안 된다. 따라서 형성된 인용 개념을 상황에

61)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은 원발화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간접인용표현 교육에서 원발화자를 명시적으로 설명하며 원발화자에 따른 의미 기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는 인용표현 형태로 부호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교육 내용이 요구된다.

Ⅲ장에서 살펴봤듯이 학습자들은 형성된 인용 개념을 적절한 인용표현 형태로 부호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상황 맥락 상관없이 인용 개념이 형성되면 일률적으로 ‘-다고 해(요)’, ‘-라고/다고 들었어/했어’ 형태를 산출하거나 ‘제3자 인용-확인’ 상황에서 ‘-라고/다고 들었어/들었는데, 진짜/사실/정말이야(?)’ 형태를 산출하는 등 특정 패턴에 굳어져 있어 진정한 기능-형태 연계를 이루지 못하는 학습자가 많았다. 따라서 담화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상황에 요구되는 의미 기능에 대응되는 주요 인용표현 형태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

간접인용표현의 경우는 서로 다른 의미 기능에 대응되는 기본적인 형태가 동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인용표현 형태가 다양한 의미 기능을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기 인용-전달’과 ‘자기 인용-반복 확인’ 등 상황에서 모두 문법 형태 ‘-다고 했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다고 했어’로 모든 의미 기능을 드러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인용표현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에 이를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직접인용표현의 경우는 간접인용표현과 달리 3가지 의미 기능을 기본적인 형태 “...”라고 하다’ 하나만으로 발현할 수 있다. 즉 의미 기능에 따라 사용되는 문법 형태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형태로 인해 인용에 대한 개념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해당 개념을 직접인용표현으로 부호화했다면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직접인용표현이 된다. “...”라고 하다’ 외에 상황에 따라 자주 쓰이는 표현은 있긴 있다.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글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객관성 및 사실성’을 더해주는 상황에서 “...”라고 적혀/돼 있다’와 같은 형태도 많이 사용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인용표현을 교육할 때 의미 기능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두고 그 의미 기능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인용표현 형태를 제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의미 기능에 따른 형태를 교육할 때 III장에서 살펴봤던 중국인 학습자들의 비체계적인 부호화 양상을 함께 제시하여 설명해줌으로써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피인용문의 문장 유형에 따라 인용표지의 서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명령문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라고’와 평서문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다고’에 헷갈리는 학습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더욱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제3자의 발화를 인용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구어 축약형 인용표지 ‘-대/내/래/재(요)’는 자기 인용이나 상대방 인용에서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세 번째로 인용표지의 세부 의미 기능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예를 들면 ‘-다면서’와 ‘-다고’는 모두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확인’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쓰이나 ‘-다고’는 방금 전에 상대방이 했던 발화를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다면서’는 상대적으로 오래 전에 상대방이 했던 발화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IV-5> 의미 기능에 따른 부호화 교육 내용

구분		의미 기능	부호화 양상(형태)	비고	
간접 인용 표현	자기 인용	의도적	전달	-다고 하다/생각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인용문의 문장 유형에 따라 사용되는 인용표지가 달라진다. ☞ 평서문 ‘-다고 하다’ 의문문 ‘-냐고 하다’ 청유문 ‘-자고 한다’ 명령문 ‘-라고 하다’ 융합형 ‘-대/내/래/재(요)’는 제3자 인용에서만 사용 가능
			반복	-다고	
		확인	-다고 하다		
		측면	강조	-다고 -다니까	
	감정적		불평	-다고 했잖아	
	측				

상대방 인용	면 의 도 적	확인	-다고(?) -다고 했지(?) -다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표지의 세부 의미 기능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예: ‘-다면서’ vs ‘-다고’ ✓ 공통점: 모두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확인’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쓰인다. ✓ 차이점: ‘-다고’는 방금 전에 상대방이 했던 발화를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다면서’는 상대적으로 오래 전에 상대방이 했던 발화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측 면 감 정 적		놀람	-다고(?!) -다니(?!)
					불평	-다면서 -다고 했잖아
	제3자 인용	면 의 도 적	전달		-다고 하다 -대	
			확인		-다고(?) -다면서(?)	
		측 면 감 정 적	불평		-다고 했다면서 -다네	
측 면						
직접인용 표현	생동감 부여	“...”라고 하다 “...”이렇게/그렇게 말하다 “...” 이러다/그러다	-			
	객관성 및 사실성 강화	-에 따르면 “...”라고 하다 -은/는 “...”라고 하다 -에서 “...”라고 돼/ 적혀 있다				
	언어 형식	“...”라고 하다				

2.2.4. 의미 기능 차이를 기반으로 한 직·간접인용표현 변별 교육

Ⅲ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의미 기능 차이가 아닌 사용 빈도수나 형태적 차이를 기준으로 인용 방식을 선택하는 학습자가 많았다. 또한, 직접과 간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차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이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현상이 존재한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 직접인용표현을 간접인용표현으로 바꿔 쓰기 등의 기계적 형태 교육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직접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거나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미 기능 차이를 기반으로 한 직·간접인용표현 변별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직접과 간접인용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에서 드러나는 의미 기능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직접과 간접인용표현이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즉 형식에 따른 특징에 대한 설명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접인용표현은 피인용문의 형식, 즉 형태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간접인용표현은 피인용문의 내용, 즉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설명할 때 예문을 통한 비교 분석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9) 가. 철수가 “나영아. 사랑해!”라고 고백했어.

나. 철수가 나영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위의 예시를 살펴보면 (49-가)는 직접인용표현을 통해 철수가 한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철수가 어떤 언어 형태로 나영에게 고백했는지, 즉 어떻게 고백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49-나)는 간접인용표현을 통해 철수가 한 말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철수가 무엇을

말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예문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직접과 간접인용표현의 초점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직접인용표현의 3가지 의미 기능이 드러나는 예문을 제시하는 동시에 동일한 상황에서 간접인용표현으로 부호화되는 예시를 함께 제시하여 직접과 간접인용표현이 드러나는 효과 차이를 분석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II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하였기 때문에 여기선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발화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때 간접인용표현보다 원발화의 언어 형식을 유지하여 원상 그대로 전달하는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인용할 때 간접인용표현 대신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면 인용된 내용과의 거리감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의 객관성 및 사실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셋째, 특정 상황에서 쓰이는 언어 표현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알릴 때 언어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간접인용표현보다 언어 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V-6> 의미 기능 차이를 기반으로 한 직·간접인용표현 변별 교육 내용

의미 기능	예문		비교 분석
	직접인용표현	간접인용표현	
생동감 부여	A: 어제 선생님이 랑 무슨 얘기를 했어? B: <u>선생님이 “교복 왜 안 입고 왔 냐?”라고 물어보 셔서, 내가 “세탁 해서 못 입고 왔 어요.”라고 말씀 드렸더니, “어디 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u>	A: 어제 선생님이 랑 무슨 얘기를 했어? B: <u>선생님이 교복 왜 안 입고 왔나 고 물어보셔서, 내가 세탁해서 못 입고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말도 안 되는 핑 계를 대지 말라 고 말씀하시면서</u>	직접인용표현은 발화의 형 태에 초점을 두어 과거 발 화를 원상 그대로 유지함 으로써 당사자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드러낸다. 간접인용표현은 발화의 의 미에 초점을 두어 당사자 들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드러낸다.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서 화자의 말투나 억양 등으 로 인해 간접인용표현이

	<u>있어!</u> 라고 말쑤 하시면서 <u>화를 내시더라</u> 고.	<u>화를 내시더라</u> 고.	어느 정도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으나 직접인용표현보다 그 생동감 부여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객관성 및 사실성 강화	지금 협정문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에 보면 <u>“대한민국이 민영화를 추진할 때는 예외다.”</u> 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보시면 공공정책이 전반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말씀은 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협정문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에 보면 <u>대한민국이 민영화를 추진할 때는 예외라고 딱 돼 있습니다.</u> 그런 걸 좀 보시면 공공정책이 전반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말씀은 하시면 곤란하죠.	발화의 객관성 및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과 간접인용표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피인용문의 형태에 초점을 두는 직접인용표현을 사용하여 피인용문과의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피인용문에는 화자 자신의 이해나 생각을 전혀 추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에 간접인용표현보다 객관성 및 사실성 강화 효과가 더 강하다.
언어 형식 재현	A: 치마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B: <u>사장님한테 “값아 주세요!”라고 해 봐.</u> 한국어에서는 <u>밥을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u> 라고 <u>해요.</u>	A: 치마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B: <u>사장님한테 값아 달라고 해 봐.</u> 한국어에서는 <u>밥을 먹기 전에 잘 먹겠다고 해요.</u> (X)	직접인용표현은 언어 형식에 초점을 두어 특정 상황에서 어떤 형태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는지, 즉 어떻게 말하는지를 드러낸다. 간접인용표현은 의미에 초점을 두어 해당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드러낸다.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관용표현을 알릴 경우 직접인용표현 사용만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피인용문의 의미를 중심으로 인용할 때가 더 많으며 이때 간접인용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도 알려준다.

이상으로 인용표현에 대한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방향을 대략적으로만 제시해 보았다.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교육 현장, 즉 한국어 수업에서 다양한 예문과 상세한 분석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육 방법

마지막 부분에선 교육 현장에서 앞서 논의된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학습(學習)은 ‘배워서 익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배운 지식을 익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의 첫 번째 단계로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는 과정을 입력(input)이라고 하며, 두 번째 단계로 배운 지식을 익히도록 사용하는 과정을 출력(output)이라고 한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지 않고 바로 익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입력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기만 하고 이를 제대로 익히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나의 지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출력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입력과 출력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불가분의 관계라 상승작용을 한다.

입력 강화 및 출력 강화를 통한 교육은 인용표현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한보희, 2015: 51).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드라마를 활용하는 입력 교육과 더빙을 활용하는 출력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드라마를 활용하는 입력 교육

Ⅲ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은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용표현 출력이 매우 취약하였다. 이는 인용표현의 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입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교육 실태와 관련이 있다.⁶²⁾ 따라서 일차적으로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입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직접인용표현의 형태는 단순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달리 간접인용표현의 형태는 피인용문의 문장 유형과 결합되는 어휘의 품사 등으로 인해 달라진다. 학습자들이 인용표현의 형태적 규칙을 스스로 발견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시각적 입력 강화(typographical input enhancement)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셔우드 스미스(Sharwood Smith, 1981)에 따르면 목표 언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로 하여금 특정 항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 항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텍스트에서 목표 문법 항목의 형태를 다른 글자체나 색깔로 표시하거나 글자의 크기를 확대시키거나 밑줄을 치는 등의 방법이 있다.⁶³⁾

그리고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은 억양이나 강세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박영숙(2011), 임학혜(2016)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금 인용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발화자의 억양이나 강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각적 입력 강화(auditory input enhancement)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드라마(영상)를 활용하는 입력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드라마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를 통해 시각적 입력 및 청각적 입력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용표현 출현 빈도가 높은 드라마의 대본을 추출하여 대본에 나온 인용표현들을 다음과 같이 처

62) 대부분의 교재에서 품사와 시제에 따른 인용표현 형태를 강조하고 있다(다음 표 참고). 이에 비해 인용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고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거나 부족하다. 물론 교재 내에서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이 드러나는 예문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의미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스스로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추측
동사	-ㄴ/는다고 하다	-았/었/였다고 하다	-(으)ㄹ 가리고 하다 -겠다고 하다
형용사	-다고 하다		
명사+이다	-(이)라고 하다		

63) 임학혜(2016: 173-174) 재인용.

리한다. 시제, 품사, 피인용문의 유형 등을 포함하여 상황에 따른 인용 표현의 형태 변화를 밑줄로 치거나 진한 색깔로 표시한다. 학습자들이 대본의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드라마(영상)를 보게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드라마 대본에 나타난 인용표현의 형태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형태적 규칙을 발견하며 발화자의 억양 등을 익히도록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준구어 자료인 드라마 대사는 살아 있는 언어 자료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교재에서 제시된 예문들은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구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하여 드라마에 구현되고 있는 대사는 실제 의사소통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언어에 더 가까워 실용도가 더욱 높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대사는 일상 구어 구사 능력 향상에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드라마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는 교육은 학습자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수업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3.2. 더빙을 활용하는 출력 교육

Swain(1985)에서 “이해 가능한 입력은 목표 언어에 대한 의미 능력을 습득하는 데 유용할지 모르지만, 이해 가능한 출력은 문법적 능력을 습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제2언어 학습자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학습한 문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 문법 항목을 사용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⁶⁴⁾

한국어 문법 교재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문장 만들기’, ‘담화를 완성하기’, ‘직접인용표현을 간접인용표현으로 바꾸기’ 등의 기계적 출력 과제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습을 통해서도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그리고 김지혜(2010)는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과제 활동만으로 학습자가 인용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부족하다며 이러

64) 김지혜(2010: 362) 재인용.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장 차원을 넘어서 더 다양한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⁶⁵⁾ 따라서 본고는 학습자가 실제 구어 담화 차원에서 사용되는 인용표현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빙을 활용하는 출력 교육 방법을 제안하겠다.

더빙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 한희창(2012: 78)은 “더빙은 언어적 요소가 보다 강조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배우와 똑같은 속도로 말해야 하며 작품의 재해석, 인물의 재창조 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조 그대로 모방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더빙 활동을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 습관을 따라함으로써 특정 상황에서 원어 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익히며, 동일한 의사소통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적절한 언어 표현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더빙 활동을 통해 목표 언어의 정확한 발음, 억양, 어감을 익힐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유창한 발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길러 나아가 말하기, 듣기,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더빙 활동에서도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보여주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때 교육 자료로 사용되는 드라마나 영화는 적절한 인용표현 사용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인용표현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를 이해하고 인용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65) 락지유(2019: 66) 재인용.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 사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며, 인용은 의사소통의 핵심인 상호작용성을 향상시키는 표현이기에 한국어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고 모든 한국어 교재에서 인용표현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인용표현 교육은 형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으며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단순히 ‘전달’이라는 상위 범주에 그쳐 다루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인용표현이 사용되는 상황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인용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 문제로 연결된다. 따라서 본고는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하였다.

II장에선 먼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인용표현의 개념과 범위를 의미적 및 형태적 측면에서 밝혀냈다. 그리고 인용표현을 인용 형식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인용표현으로 구분하며 원발화자에 따라 자기 인용, 상대방 인용, 제3자 인용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피인용문, 인용표지, 인용동사를 인용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보고 이로 형성되는 3가지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을 살펴본 결과, 간접인용표현은 원발화자에 따라 ‘자기 인용-전달, 반복 확인, 강조, 불평’, ‘상대방 인용-확인, 놀람, 불평’, ‘제3자 인용-전달, 확인, 불평’ 상황에서 사용되며, 직접인용표현은 ‘생동감 부여’, ‘객관성 및 사실성 강화’, ‘언어 형식 재현’ 상황에서 쓰인다.

III장에선 쓰기 텍스트 형식의 담화완성형 과제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 및 한국어 모어 화자 각각 40명, 총 120명을 대상으로 인용표현 의미 기능에 대한 사용 양상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집단별 인용표현 사용 빈도수를 제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의미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인용표현을 잘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지, 즉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 양상을 알아봤으며 의미 기능별로 살펴볼 때 집단 간의 인용표현 사용 빈도수 차이가 숙달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학습자들이 담화를 완성할 때 어떤 중간언어적 양상을 보이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문법 표현 과정에 따라 ①개념화 부족 또는 의도적 회피로 인한 인용표현 누락 양상, ②인용표현 형태를 갖췄으나 비체계적인 부호화 양상, ③충분한 개념화 및 적절한 부호화가 이루어진 양상으로 분류시키고 해당하는 양상을 특징에 따라 다시 세분화하였다. 분석은 각각 양상을 보여주는 학습자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중 문제가 포착되는 부분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인용표현의 범위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 둘째, 인용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상황과 인용표현을 연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용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형성된 인용 개념을 정확하고 적절한 인용표현으로 부호화하지 못한다. 넷째, 인용 방식에 따른 의미 기능 차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직접과 간접인용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인용표현 의미 기능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인용표현의 교육 목표를 선정하고 교육 내용을 제시하며 교육 현장에서 교육 목표가 반영된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간접과 직접인용표현을 함께 다뤘다는 점, 형태가 아닌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다뤘다는 점, 숙달도 변인을 살펴봤다는 점, 오류 양상이 아닌 중간언어적 양상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용 양상 분석에 있어 인터뷰나 역할극 등을 통해 실제 구어 텍스트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본고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담화완성형 과제의 경우 인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가시적으로 제공되기 때

문에 학습자들이 맥락을 스스로 인지하는 시간을 줌으로써 인용표현을 사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구어 상황보다 인용표현 사용률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는 즉각성과 일시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실제 구어 상황에서 말하기 과정을 통해 발화 산출을 유도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DCT를 통해 한국인의 인용표현 사용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인용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계하지 못했다는 점도 본고의 한계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인터뷰나 역할극과 같은 말하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의 실제 언어 사용 모습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학습자들의 다양한 중간언어적 양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을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한국어 교재]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19-2021), <경희 한국어> 문법, 초급1, 2/중급1, 2/고급1, 2,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 교육센터(2010-2014), <재미있는 한국어>, 1-6 권, 외국어교육연구출판사/교보문고.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21), <새 연세 한국어 어휘와 문법>, 1-1/1-2/2-1/2-2/3-1/3-2/4-1/4-2/5-1/5-2/6-1/6-2,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중앙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18-2019),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1-4 상 & 하/5-6 문법, 중앙대학교.

[사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국립국어원 한국어 기초 사전, <https://krdict.korean.go.kr/mainAction>
-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국내 논저]

- 강정미(2016), 한국어 간접인용 표현의 장르 기반적 특징 연구 : 인용표지 ‘-다고’의 간접인용 표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곽지유(2019), 한국어교육을 위한 간접인용표현의 담화 기능 연구, 중

- 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본관(2012), 한국어 문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연구논문집 1, 중국 문화대학 화강출판부.
- 권재일(1998), 한국어 인용 구문 유형의 변화와 인용 표지의 생성, 언어학 0(22),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59-79.
- 김수태(1990), 국어학 편 : 인용표현의 범주 설정에 대하여, 문창어문논집 27, 문창어문학회, 121-133.
- 김용진(2004), 신문 뉴스 인용문의 담화 기능 : 미국 신문의 9-11 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1(2), 담화·인지언어학회, 19-42.
- 김정은(2008), 한국어 인용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10), ‘그림 보고 말하기’를 통한 한국어 학습자의 간접 인용 표현 교육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30집, 동남어문학회, 359-381.
- 김지혜(2011), 담화 분석을 통한 한국어 간접 인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0(46), 이중언어학회, 45-65.
- 김해연(2017), 신문 사설의 직접 인용 구문의 형태와 기능 연구, 언어 42(3), 한국언어학회, 375-400.
- 김현민(2020),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보고서 인용 표현 사용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범(1987), ‘다면서’, ‘-다고’, ‘-다니’의 구조와 의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71-91.
- 김홍수(2015), 김수영 산문의 인용 현상에서 표현, 소통, 태도 관련 텍스트 기능과 그 양상, 어문학논총 34,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18.
- 남기심(1971), 인용문의 구조와 성격, 동방학지 1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23-233.
- 남기심(2001),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 노단(2021),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간접인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

- 노은희(2002), 청자의 맞장구 유형과 기능 연구,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245-269.
- 민현식(2000), 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안, 국어교육연구 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60.
- 박영숙(2011),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다고 하-’ 융합어미의 담화기능 연구 : 종결적 용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연(2012), 인용 동사의 의미론적 분류 방법, 한국어 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205-229.
- 박진희(2013), 인용구문의 이해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성원(1994), 韓國語 引用句文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은아(1996), 논문: 인용문의 의미해석에 대하여, 한말연구 2, 한말연구학회, 125-136.
- 서희정(2013), 한국어교육을 위한 인용 종결어미의 인용 정보와 의미기능 : 인용구문 및 후행 어미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0(164), 국어국문학회, 245-271.
- 송창선(2016), 국어 인용표지 ‘이라고, 고’의 문법적 특성, 어문학 0(131), 한국어문학회, 33-54.
- 쑤뤄핑(201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간접 인용 표현의 의미·기능에 관한 교육 방안,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경화(1995), 한국어 인용 구문의 연구 : 유형과 융합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정수(2003), 교육 목표의 법규범화(法規範化): 근거, 원칙, 필요성, 교육발전연구 19,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73-91.
- 염맹(2017), 한국어 간접 인용 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가희(2018), 딕토글로스를 활용한 간접 인용 표현 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미연(2019), 한국어 간접인용표현의 과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현아·박진희(2018), 의미 기능 중심의 ‘인용’ 관련 문법 교육 내용의 재구조화 방향 탐색, 한말연구 0(49), 한말연구학회, 161-198.
- 왕아천(201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간접 인용 표현의 교육 내용 연구 : 드라마 대본 말뭉치 분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왕완지(2020), 한·중 인용문 대조 연구 : 인용술어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정(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간접인용문 교육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환(2014), 한·중 간접 인용표현 대조연구 : 복합 형식으로 쓰이는 인용표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정원(2011),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 인용구문의 유형과 범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현애·윤정원(2012), 한국어 인용 표현의 담화 기능에 관한 연구 -토론 담화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1), 한국문법교육학회, 1-13.
- 이관규(2016), 국어교육을 위한 국어문법론(2판), 역락.
- 이민정(2017),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간접 인용 표현 의미 기능 습득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복(1974), 한국어의 인용문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31-154.
- 이운정(2011), 中國人 學習者를 위한 韓國語 間接引用表現 教育 方案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표(2005), 신문 사설에서의 직접인용: Bakhtin의 ‘대화성(dialogicality)’ 관점에서의 분석, 담화와 인지 12(2), 담화·인지언어학회, 117-151.
- 이유경(2016),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인용 교육 방안에 대

- 한 연구, 한국어 교육 2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3-232.
- 이창덕(1994), 텍스트 연구회 편 : 국어 발화의 담화상 기능과 간접인용문, 텍스트언어학 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25-267.
- 이창덕(1999), 현대 국어 인용 체계 연구, 텍스트언어학 6,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55-299.
- 이필영(1993),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서울 : 탐출판사.
- 이필영(1995), 통사적 구성에서의 축약에 대하여 - ‘다-, 이라-, 더라-, 러-, 노라-’형을 중심으로 -, 국어학(國語學) 26, 국어학회, 1-32.
- 임학혜(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다X류 종결어미의 교육 연구 -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려봉(2021),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간접 인용 표현 제시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정민(2018), 한국어 인용구문의 화용론적 연구 : 라디오 뉴스 인터뷰에 나타나는 인용구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숙희(2011),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 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숙희(2013), 일상대화에서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인용구문 사용 양상 연구-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36(3), 한국학중앙연구원, 397-421.
- 채숙희(2020), 해석적 언어 사용의 두 측면에서 바라본 간접인용구문의 용법, 한민족어문학 87, 한민족어문학회, 87-120.
- 최은규(2013), 한국어 교재의 문법 교수요목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국어교육연구 0(3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73-311.
- 페이위페이(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간접인용 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 『휘청거리는 오후』 원본 및 중역본을 비교하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보희(2015), 한국어 간접인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한송화(2013), ‘-다는’인용과 인용명사의 사용 양상과 기능 -신문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9(0),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447-472.
- 한송화(2014), 인용문과 인용동사의 기능과 사용 양상: 신문 기사와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외국어교육 21(1),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41-266.
- 한송화(2018), 강의 담화에서의 인용의 형식과 담화적 기능, 언어사실과 관점 44(0),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31-70.
- 한희창(2012), 더빙 공연을 통한 중국어 교육에 관하여, 중국어교육과 연구 0(16), 한국중국어교육학회, 75-93.
- 황유정(2021), 한국어 인용구문의 화용적 의미와 기능 연구 : 사적 구어 말뭉치의 분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YAN YUTONG(2020), 한국어 간접인용 표현 오류 양상 :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외 논저]

- Bell, A.(1991), *The language of news media*, Oxford: Blackwell.
- Bunt, H., Petukhova, V., Gilmartin, E., Pelachaud, C., Fang, A., Keizer, S., & Prevot, L.(2020, May), *The iso standard for dialogue act annotation*, In *Proceedings of the 12th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Conference*, 549-558.
- Jebahi, K.(2011), *Tunisian university students' choice of apology strategies in a discourse completion task*, *Journal of Pragmatics* 43(2), 648-662.
-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New York: Allen & Unwin.

[부록1] 설문지(한국인용)

안녕하세요?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어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35개의 담화완성형 과제로 구성되어 소요 시간은 20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문항 설명에 따라 안심하시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연락처의 경우에는 분석 과정에서의 필요로 인해 작성하신 답장에 대한 개별 사후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응답에 대한 사례금을 보내기 위하여 설계되오니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시고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모든 응답이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될 예정입니다.

인적 사항 조사

성별	①남 ②여
나이	①15 ~ 19살 ②20 ~ 24살 ③25 ~ 29살 ④30살 이상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kakao talk ID)	

담화완성형 과제: 제시된 [상황 설명]을 꼭 참고하시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1. [상황27 설명] 66)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66) “1. [상황27 설명]”은 설문 문항을 설계했을 때 27번째 문항이지만 무작위 난수 생성을 거쳐 설문지에서 문제 1번으로 배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수: 나 이번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했어.

재현: 정말?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정말 대단하다. 나도 너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어.

철수: 고마워. _____.

2. [상황9 설명]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철수가 재현에게 수영하러 가자고 합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철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수영하러 갈까?

재현: 그래. 오늘 저녁에 갈까?

철수: 오늘 저녁은 안 돼.

재현: _____?

철수: 응. 안 돼.

재현: 그럼 언제 갈까?

철수: 내일 가자.

3. [상황1 설명] 어제 철수가 시험을 망쳐 아빠와 아래 대화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엄마는 철수가 계속 우울해 하고 있는 걸 보고 아빠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대화1> 어제:

아빠: 이번 시험 몇 점 받았어?

철수: 60점밖에 못 받았어요.

아빠: 뭐? 60점밖에 못 받았다고? 이번 달 용돈 없다.

철수: (시무룩) ...

<대화2> 오늘:

엄마: 철수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시험 때문이에요?

아빠: 아니. 아마 내가 어제 했던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엄마: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아빠: _____.

4. [상황2 설명] 철수와 재현은 요즘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철수: 나 요즘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 문법이 너무 어려워.

재현: 그래? 나도 요즘 일본어와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철수: 그래? 영어를 공부할 때 뭐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

재현: _____.

5. [상황28 설명] 철수가 휴대폰을 잃어버려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철수: 여보세요? 혹시 _____?

재현: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철수: 나야, 철수. 휴대폰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너한테 전화한 거야.

재현: 정말? 아이고. 조심 좀 하지. 근데 무슨 일이야?

6. [상황11 설명] 철수는 우울해하고 있는 나영을 보고 재현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철수: 나영이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어?

재현: 어제 남자 친구랑 헤어졌대.

철수: (놀람) 진짜? _____? 6년 만났는데 갑자기 왜?

재현: 나도 몰라.

7. [상황3 설명]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철수: 재현아, 나 지금 친구 만나러 나가. 저녁 혼자 먹어.

재현: 응? 뭐라고?

철수: _____.

8. [상황15 설명] 철수가 나영에게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했지만, 나영은 약속이 있어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재현이 이에 대해 물어봅니다. 철수로서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재현: 오늘 나영이도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거야?

철수: 아니.

재현: 왜? 나영이가 뭐래?

철수: _____.

9. [상황29 설명] 비가 많이 내려 철수의 옷이 모두 젖었습니다. 재현으로서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철수: 옷이 다 젖었네. 내일 이 옷 입고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재현: 다른 양복 없어?

철수: 응.

재현: _____ . 내일 빌려줄게.

철수: 다행이다. 진짜 고마워.

10. [상황17 설명] 희연은 철수의 여자 친구가 여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게 사실인지 철수에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희연: _____ ?

철수: 여신정도는 아니야.

11. [상황26 설명] 나영과 희연이 동대문시장에서 치마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나영: 이 치마 너무 비싸서 못 사.

희연: 사장님한테 싸게 팔아 달라고 해.

나영: 뭐라고 말해야 돼?

희연: _____ .

나영: 알겠어. 한 번 해 볼게.

12. [상황16 설명]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철수: 재현아. 너는 이번 국제 배구 경기 어느 나라가 이길 것 같아?

재현: 중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 지금 랭킹 1위잖아.

철수: 그래? 나영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

재현: 나영이는 _____ .

철수: 진짜? 나랑 같은 생각이네.

13. [상황30 설명] 철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나영이 자신에게 화를 내자 철수는 이를 이해할 수 없어서 재현에게 물어봅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철수: 나영이가 _____?

재현: 신경 쓰지 마. 아마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14. [상황5 설명] 구미호는 대웅이 주는 선물을 받고 감동 받아 아래 대화를 전개했습니다. 대웅의 반응을 보고 구미호는 자신의 생각(밑줄 친 부분)을 다시 강조하여 대응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심을 믿게 합니다.

구미호: 네가 나한테 이런 선물도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어?

대웅: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구미호: 그러지 말고~ 진짜 _____ ~ 원하는 걸 말해 봐, 대웅아.

대웅: 알았어. 한 번 생각해 볼게.

15. [상황8 설명] 나영이 남친에게 학원으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었으나 남친은 이를 어기고 학원에 왔고, 나영은 이로 인해 화가난 상태입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나영: (새된 목소리) 여긴 왜 왔어? _____!

남친: 네가 전화 안 받아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지.

나영: 아까 수업 중이라서 전화 못 받은 거야. 다음에 여긴 절대 오지 마!

16. [상황25 설명] 샤오밍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중국인입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샤오밍: 선생님,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 _____.

17. [상황31 설명] 나영과 희연이 모두 여름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합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나영: 이번 방학엔 뭐 할 거야?

희연: _____.

나영: 정말? 나도 그러려고 했어! 나랑 같이 가자.

희연: 그래! 오늘 저녁에 어디 갈지 정하자.

18. [상황18 설명] 희연은 철수가 곧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철수에게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희연: _____?

철수: 응. 맞는데 누구한테 들었어?

희연: 나영이한테 들었어.

19. [상황22 설명] 어제 영수가 민희에게 고백하던 자리에 나영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나영은 희연과 만나 그 일에 대해 얘기합니다. 나영으로서 어제 있었던 일을 생동감 있게 알려주세요.

<대화1> 어제:

영수: 민희 씨, 저랑 사귀어 주세요.

민희: 네? 사귀자고요?

영수: 네, 저랑 사귀어 주세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민희: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요.

<대화2> 오늘:

나영: 대박 사건! 혹시 들었니? 영수가 민희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걸?

희연: 진짜? 나 못 들었는데... 넌 어떻게 알았어?

나영: 나 그때 현장에 있었지!

희연: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빨리 알려줘 봐. 영수랑 민희가 한 말 그대로 말해 줘!

나영: _____.

희연: 대박...불쌍한 영수.

20. [상황7 설명] 철수와 여친이 식당에서 다닙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여친: 네가 먼저 잘못 했잖아! 네가 먼저 사과해!

철수: 알았으니까 목소리 낮춰... 여기 사람 많다.

여친: (더 큰 목소리로) 사과 안하면 나 집에 갈 거야! 밥은 너 혼자 먹어!

철수: (낮고 강하게)_____.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21. [상황32 설명] 나영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직원: 손님. 찾으신 제품이 이 제품 맞나요?

나영: 네. 맞아요. 여기서 _____?

직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탈의실은 저쪽입니다.

22. [상황6 설명] 지난 주에 라라랜드를 본 철수가 재현에게 해당 영화를 추천합니다. 재현의 반응을 보고 철수는 라라랜드가 아주 재미있는 것(밑줄 친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철수: 재현아! 나 어제 라라랜드를 봤는데 재미있어! 강추!

재현: 그래? 평가가 별로인 것 같던데?

철수: 아니야. 이 영화는 _____! 보면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재현: 그렇게 재미있어? 알았어. 한 번 믿고 볼게.

23. [상황4 설명] 다음은 철수와 재현이 전화 통화를 하는 도중 전화 신호가 잠시 불안정했다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재현으로서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철수: 어제 뭐 했어? 언제 집에 들어간 거야?

재현: 어제 친구랑 농구 했어. 저녁 7시쯤에 집에 들어왔어.

철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네. 언제 집에 들어갔다고?

재현: _____.

24. [상황13 설명] 지난주에 철수가 재현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재현은 이번 주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이번 주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철수는 이것이 아주 불만입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철수: 지난주에 약속한 돈 이번 주에 줄 수 있지?

재현: 아... 그 돈... 철수야. 미안하다... 이번 주도 어려울 것 같아.

철수: 뭐야! _____!

재현: 일이 좀 생겨서 돈을 다 썼어. 미안. 다음 주에는 꼭 줄게.

25. [상황33 설명] 엄마가 퇴근 후 식탁 위에 배달 음식 그릇이 놓여 있는 걸 보고 철수에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지 물어봅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엄마: 철수야. _____?

철수: 네. 맞아요. 티비 보다가 치우는 거 까먹었네요. 바로 치울게요.

26. [상황12 설명] 철수 엄마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옵니다. 이후 경찰의 말을 들곤 아주 놀랍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넌 왜 여기 있어?

철수: ... 엄마, 나...

경찰: 이 학생이 빵공장에서 빵을 훔치다 잡혔습니다.

엄마: 우리 철수가 _____? 말도 안 돼...

27. [상황21 설명] 이틀 전 철수는 선생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오늘 철수는 교문 앞에서 재현과 만나게 되고 재현은 철수가 선생님에게 혼이 났다는 걸 듣고 이에 대해 물어봅니다. 철수로서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생동감 있게 재현에게 알려주세요.

<대화1> 이틀 전:

선생님: 철수야, 학교 오는데 교복 왜 안 입고 왔냐?

철수: 옷을 세탁해서 못 입고 왔어요.

선생님: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

<대화2> 오늘:

재현: 며칠 전에 선생님에게 혼났다고 들었어.

철수: 응. 맞아.

재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

철수: _____.

28. [상황19 설명] 철수는 샤오밍에게 “샤오홍이 너 한국어 못한대.”라고 말한 걸 알려줬습니다. 샤오밍은 이를 듣고 기분이 나빠져 샤오홍에게 불만을 가 집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샤오홍: 이 한국어 무슨 뜻이야? 좀 번역해 줄 수 있어?

샤오밍: _____?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샤오홍: 갑자기 왜...

29. [상황34 설명] 철수가 재현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말하며, 자기가 잘못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재현으로서 철수를 위로해 주세요.

철수: 내가 개한테 그렇게 잘해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헤어지자고 할 수 있어?

재현: 괜찮아. 네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데. _____.

철수: 위로해 줘서 고마워. 근데 지금 당장 다른 여자 만날 생각은 없어.

30. [상황10 설명] 철수가 너무 심심하여 재현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어제 철수가 영화 보러 가고 싶다고 했던 게 생각나 아직도 그 생각이 여전한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철수: 할 게 없어서 너무 심심해.

재현: 어제 _____? 지금 갈까?

철수: 어제는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보고 싶지 않네. 다른 거 하자.

재현: 그럼 뭐 할까? 하고 싶은 거 있어?

31. [상황20 설명] 철수는 재현에게 같이 농구하러 가자고 하지만, 재현은 아무 이유 없이 철수에게 화를 내며 “나한테 말도 걸지 마.”라고 말합니다. 이에 철수는 불만을 표출합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철수: 오늘 재현이 많이 예민해 보여. 오늘 _____.

나영: 재현이 갑자기 왜 그런 거야. 기분 풀어. 무슨 일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볼게.

32. [상황14 설명] 지난주에 철수가 엄마에게 휴대폰을 사달라고 했고 엄마는 사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일이 바빠서 일주일도 지나도 철수에게 휴대폰을 사주지 않았고, 철수는 이에 불만을 표합니다.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철수: (따짐)엄마가 _____.

엄마: 앓... 미안. 깜빡했네.

철수: (삐짐) 매번 그래요. 이제 엄마 말 안 믿을래요...

엄마: 삐지지 마. 지금 엄마랑 같이 나가서 살래? 엄마가 더 비싼 거 사줄게.

철수: (급 방긋) 진짜죠, 진짜?

33. [상황35 설명] 나영은 희연이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희연에게 어땠냐고 묻습니다. 희연으로서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나영: 일본 여행 재미있었어?

희연: 응! 엄청 재미있었어!

나영: 뭐가 제일 재미있었는데?

희연: _____.

34. [상황23 설명] 철수와 재현은 “점심 뭐 먹지?”에 대해 얘기 중입니다. 재현이 먹고 싶어하는 감자탕 가게 앞에 이러한 공지문이 붙어 있습니다. 공지문 내용에 따라 아래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8월 8일부터 영업을 종료합니다.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8월 9일:

철수: 아... 배고프다. 점심 뭐 먹을래?

재현: 감자탕 먹을래? 근처에 감자탕 맛집 있잖아.

철수: 아~ 거기? 거기 문 닫았어. 이제 못 먹어.

재현: 뭐 소리야? 저번 주에도 왔는데...

철수: 어제 지나가다가 봤는데 문에 붙어 있는 공지문에 _____ 이
말은 어제부터 문 닫았다는 거야.

35. [상황24 설명] 보고서 내용에 따라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

법원통계월보: 소년범죄 접수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
2502건으로, 증가율이 50%를 훌쩍 넘어섰다.

재현: 나는 소년 범죄자들을 성인 범죄자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

철수: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과 차별해서 처
벌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그리고 범죄율도 낮고.

재현: _____.

이거 보고도 범죄율이 낮다고 생각해?

- 설문이 끝났습니다.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2] 설문지(중국인용)

您好！

首先非常感謝您抽出寶貴的時間來完成本問卷。

本問卷由35個完形填充題及6個認知調查題組成，完成本問卷預計需35分鐘左右。

調查結果將僅用於本研究分析，因此請按照題目要求安心並誠實作答。

因研究需要，日後將針對個別答卷進行採訪，並且為了發放完成問卷的報酬，所以設置了「姓名」和「聯系方式」，請不要擔心個人信息泄露，安心填寫。

再次感謝參與本研究，每一份答卷都將成為本研究的珍貴資料。

背景調查	
TOPIK	①3級 ②4級 ③5級 ④6級
性別	①男 ②女
年齡	①15~19歲 ②20~24歲 ③25~29歲 ④30歲及以上
已經學習韓語的時間	①1年以內 ②1~2年 ③2~3年 ④3~4年 ⑤4年以上
學習韓語使用的教材	①延世大教材 ②高麗大教材 ③慶熙大教材 ④中央大教材 ⑤其他
姓名	
聯系方式 (微信號 / 郵箱)	

完形填充題：請務必參考【情景說明】，在空格處填上適合的句子。

1. 【情景27說明】 在空格處填上合適的句子。

철수: 나 이번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했어.

재현: 정말?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정말 대단하다. 나도 너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어.

철수: 고마워. _____.

2. 【情景9說明】 由於最近天氣太熱, 철수想邀請재현一起去游泳。

철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수영하러 갈까?

재현: 그래. 오늘 저녁에 갈까?

철수: 오늘 저녁은 안 돼.

재현: _____?

철수: 응. 안 돼.

재현: 그럼 언제 갈까?

철수: 내일 가자.

3. 【情景1說明】 昨天철수考試沒考好, 和아빠發生了以下對話, 今天엄마看到철수一天到晚悶悶不樂的, 於是問了아빠。

<대화1> 어제:

아빠: 이번 시험 몇 점 받았어?

철수: 60점밖에 못 받았어요.

아빠: 뭐? 60점밖에 못 받았다고? 이번 달 용돈(零錢) 없다.

철수: (시무룩: 郁闷) ...

<대화2> 오늘:

엄마: 철수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시험 때문이에요?

아빠: 아니. 아마 내가 어제 했던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엄마: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아빠: _____.

4. 【情景2說明】 철수와재현最近正在學習外語。

철수: 나 요즘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 문법이 너무 어려워.

재현: 그래? 나도 요즘 일본어와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철수: 그래? 영어를 공부할 때 뭐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

재현: _____.

5. 【情景28說明】 철수手機丟了, 於是借別人手機給재현打電話。

철수: 여보세요? 혹시 _____?

재현: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철수: 나야, 철수. 휴대폰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너한테 전화한 거야.

재현: 정말? 아이고. 조심 좀 하지. 근데 무슨 일이야?

6. 【情景11說明】 철수看著悶悶不樂의나영, 於是向재현問起理由。

철수: 나영이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어?

재현: 어제 남자 친구랑 헤어졌대.

철수: (놀람) 진짜? _____? 6년 만났는데 갑자기 왜?

재현: 나도 몰라.

7. 【情景3說明】 在空格處填上合適的句子。

철수: 재현아, 나 지금 친구 만나러 나가. 저녁 혼자 먹어.

재현: 응? 뭐라고?

철수: _____.

8. 【情景15說明】 철수剛剛邀請나영一起去看電影, 나영已經有約拒絕了철수. 재현詢問此事, 假如你是철수, 你該怎麼回答呢?

재현: 오늘 나영이도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거야?

철수: 아니.

재현: 왜? 나영이가 뭐래?

철수: _____.

9. 【情景29說明】 外面下起了大雨, 철수의衣服都濕透了。於是展開了以下對話, 假如你是재현, 你改如何回答철수呢?

철수: 옷이 다 젖었네. 내일 이 옷 입고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재현: 다른 양복 없어?

철수: 응.

재현: _____ . 내일 빌려줄게.

철수: 다행이다. 진짜 고마워.

10. 【情景17說明】 희연聽說철수의女朋友是美女, 於是想向他確認該內容是否是事實。

희연: _____ ?

철수: 여신정도는 아니야.

11. 【情景26說明】 나영和희연在東大門市場買裙子。

나영: 이 치마 너무 비싸서 못 사.

희연: 사장님한테 싸게 팔아 달라고 해.

나영: 뭐라고 말해야 돼?

희연: _____ .

나영: 알겠어. 한 번 해볼게.

12. 【情景16說明】 在空格處填上合適的句子。

철수: 재현아. 너는 이번 국제 배구 경기 어느 나라가 이길 것 같아?

재현: 중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 지금 랭킹(排名) 1위잖아.

철수: 그래? 나영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

재현: 나영이는 _____ .

철수: 진짜? 나랑 같은 생각이네.

13. 【情景30說明】 철수什麼都沒做, 나영卻對自己發火. 對此철수表示很不解, 於是詢問了재현.

철수: 나영이가 _____ ?

재현: 신경 쓰지 마. 아마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14. 【情景5說明】 구미호收到了대웅的禮物, 深受感動, 兩人展開了以下對話。

看到대응如此反應，구미호想強調自己的想法（劃線部分）讓대응相信她的心意。

구미호: 네가 나한테 이런 선물도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어?

대응: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구미호: 그러지 말고~ 진짜 _____ ~ 원하는 걸 말해 봐, 대응아.

대응: 알았어. 한 번 생각해 볼게.

15. 【情景8說明】 나영曾對남친說過不要跑到學院找她，但是남친沒有遵守約定跑到了學院找나영，為此나영很生氣。

나영: (새된 목소리: 尖高的聲音) 여긴 왜 왔어? _____!

남친: 네가 전화 안 받아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지.

나영: 아까 수업 중이라서 전화 못 받은 거야. 다음에 여긴 절대 오지 마!

16. 【情景25說明】 샤오밍是中國人，最近在學習韓語。

샤오밍: 선생님,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려면 뭐라고 해요?

선생님: _____.

17. 【情景31說明】 나영和희연最近都放暑假了，兩人在計劃該如何度過暑假。

나영: 이번 방학엔 뭐 할 거야?

희연: _____.

나영: 정말? 나도 그러려고 했어! 나랑 같이 가자.

희연: 그래! 오늘 저녁에 어디 갈지 정하자.

18. 【情景18說明】 희연聽說철수馬上要和現在的女友結婚，희연想向他確認該內容是否為事實。

희연: _____?

철수: 응. 맞는데 누구한테 들었어?

희연: 나영이한테 들었어.

19. 【情景22說明】 昨天영수向민희告白時나영也在現場。今天나영碰到了희연, 假如你是나영, 你將如何把當時的場景生動地描述給희연聽呢?

<대화1> 어제:

영수: 민희 씨, 저랑 사귀어 주세요.

민희: 네? 사귀자고요?

영수: 네, 저랑 사귀어 주세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민희: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요.

<대화2> 오늘:

나영: 대박 사건! 혹시 들었니? 영수가 민희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被拒) 걸?

희연: 진짜? 나 못 들었는데... 넌 어떻게 알았어?

나영: 나 그때 현장에 있었지!

희연: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빨리 알려줘 봐. 영수랑 민희가 한 말 그대로 말해 줘!

나영: _____.

희연: 대박...불쌍한 영수.

20. 【情景7說明】 철수와여친正在餐廳發生爭吵。

여친: 네가 먼저 잘못 했잖아! 네가 먼저 사과해!

철수: 알았으니까 목소리 낮춰... 여기 사람 많다.

여친: (더 큰 목소리로) 사과 안하면 나 집에 갈 거야! 밥은 너 혼자 먹어!

철수: (낮고 강하게)_____.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21. 【情景32說明】 나영在商場買衣服。

직원: 손님. 찾으신 제품이 이 제품 맞나요?

나영: 네. 맞아요. 여기서 _____?

직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탈의실은 저쪽입니다.

22. 【情景6說明】 上周看了라라랜드 (電影名) 的철수正在向재현推薦該部電影。看到재현如此反應, 철수想強調電影真的很有趣 (劃線部分)。

철수: 재현아! 나 어제 라라랜드를 봤는데 재미있어! 강추(強烈推薦)!

재현: 그래? 평가가 별로인 것 같던데?

철수: 아니야. 이 영화는 _____! 보면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재현: 그렇게 재미있어? 알았어. 한 번 믿고 볼게.

23. 【情景4說明】 철수와재현正在打電話, 電話信號稍微不穩定了一下又好轉了。

철수: 어제 뭐 했어? 언제 집에 들어간 거야?

재현: 어제 친구랑 농구 했어. 저녁 7시쯤에 집에 들어왔어.

철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네. 언제 집에 들어갔다고?

재현: _____.

24. 【情景13說明】 上周철수向재현討還借出的錢時, 재현說這周會還。但是到了這周재현仍未還錢, 철수表示很不滿。

철수: 지난주에 약속한 돈 이번 주에 줄 수 있지?

재현: 아... 그 돈... 철수야. 미안하다... 이번 주도 어려울 것 같아.

철수: 뭐야! _____!

재현: 일이 좀 생겨서 돈을 다 썼어. 미안. 다음 주에는 꼭 줄게.

25. 【情景33說明】 엄마下班回家看到餐桌上有外賣盒子, 想確認철수是否點了外賣。

엄마: 철수야. _____?

철수: 네. 맞아요. 티비 보다가 치우는 거 까먹었네요. 바로 치울게요.

26. 【情景12說明】 철수 엄마接到了警察電話後來到了警察局, 她聽到警察說的話表示很驚訝。

엄마: 무슨 일이야? 넌 왜 여기 있어?

철수: ... 엄마, 나...

경찰: 이 학생이 빵공장에서 빵을 훔치(偷)다 잡혔습니다.

엄마: 우리 철수가 _____? 말도 안 돼...

27. 【情景21說明】 兩天前철수被선생님訓話。今天철수가學校門口碰到了재현, 재현聽說철수被선생님訓話的事情, 便詢問此事。假如你是철수, 你將如何把兩天前的事生動地描述給재현聽呢?

<대화1> 이틀 전:

선생님: 철수야, 학교 오는데 교복 왜 안 입고 왔나?

철수: 옷을 세탁해서 못 입고 왔어요.

선생님: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借口)를 대고 있어!

<대화2> 오늘:

재현: 며칠 전에 선생님에게 혼났(被訓)다고 들었어.

철수: 응. 맞아.

재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

철수: _____.

28. 【情景19說明】 철수가샤오밍, 샤오홍在背後說샤오밍의韓語不好。샤오밍聽後很不開心, 並因此對샤오홍產生不滿。

샤오홍: 이 한국어 무슨 뜻이야? 좀 번역해 줄 수 있어?

샤오밍: _____?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샤오홍: 갑자기 왜...

29. 【情景34說明】 철수가재현和女朋友分手的事情, 並說明分手的原因不在於自己, 如果你是재현, 你會如何安慰철수呢?

철수: 내가 개한테 그렇게 잘해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헤어지자고 할 수 있어?

재현: 괜찮아. 네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데. _____.

철수: 위로해 줘서 고마워. 근데 지금 당장 다른 여자 만날 생각은 없어.

30. 【情景10說明】 철수太無聊了，和재현展開了如下對話。재현想起철수昨天說過想看電影，他想確認철수是否還有此想法。

철수: 할 게 없어서 너무 심심해.

재현: 어제 _____? 지금 갈까?

철수: 어제는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보고 싶지 않네. 다른 거 하자.

재현: 그럼 뭐 할까? 하고 싶은 거 있어?

31. 【情景20說明】 철수想邀請재현一起打籃球，但是재현卻毫無緣由地向自己發脾氣並說：「別跟我說話。」。因此철수對재현產生了不滿。

철수: 오늘 재현이 많이 예민해(敏感) 보여. 오늘 _____.

나영: 재현이 갑자기 왜 그런 거야. 기분 풀어. 무슨 일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볼게.

32. 【情景14說明】 上周철수向엄마索取最新款手機時，엄마答應了給철수買。但是由於엄마工作太忙，過了一周仍未給철수買手機。철수表示不滿。

철수: (따짐: 計較)엄마가 _____.

엄마: 앗... 미안. 깜빡했네.

철수: (빼짐: 生氣) 매번 그래요. 이제 엄마 말 안 믿을래요...

엄마: 빼지지 마. 지금 엄마랑 같이 나가서 살래? 엄마가 더 비싼 거 사줄게.

철수: (급 방긋: 立馬開心) 진짜죠, 진짜?

33. 【情景35說明】 나영聽說희연去日本旅遊的事情，詢問희연旅遊感受。

나영: 일본 여행 재미있었어?

희연: 응! 엄청 재미있었어!

나영: 뭐가 제일 재미있었는데?

희연: _____.

34. 【情景23說明】 철수와재현在討論關於「午飯吃什麼?」。재현想吃的土豆湯店門口貼著如下公告。請根據公告內容完成對話文。

8월 8일부터 영업을 종료합니다.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8월 9일:

철수: 아... 배고프다. 점심 뭐 먹을래?

재현: 감자탕 먹을래? 근처에 감자탕 맛집 있잖아.

철수: 아~ 거기? 거기 문 닫았어. 이제 못 먹어.

재현: 뭔 소리야? 저번 주에도 갔는데...

철수: 어제 지나가다가 봤는데 문에 붙어 있는 공지문에 _____ . 이 말은 어제부터 문 닫았다는 거야.

35. 【情景24說明】 請根據報道內容完成對話文。

법원통계월보: 소년범죄 접수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 2502건으로, 증가율이 50%를 훌쩍 넘어섰다.

재현: 나는 소년 범죄자들을 성인 범죄자들과 똑같이 처벌(處罰)해야 한다고 생각해.

철수: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犯罪)도 성인과 차별해서(區別)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그리고 범죄율(犯罪率)도 낮고.

재현: _____.

이거 보고도 범죄율이 낮다고 생각해?

- 問卷調查已完成, 感謝您的幫助! -

Abstract

A Study on the Usage Patterns of Meanings and Functions of Korean Quotations by Chinese Middle and High Level Learners

YANG YA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sage patterns of meanings and functions of Korean quotations by Chinese middle and high level learners learning Korean. Also to seek effective education pla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ultimate go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Quotation is an expression that improves interaction which is the core of communication, so it must be dealt with in Korean education. Its importance and necessity have been proven in all Korean textbooks. However, Chinese learners find it difficult using quotations in day to day life due to their

lack of education regarding quotations. This is due to the complex forms and the various meanings and functions of quotations. Therefore, educational researches on quotations need to be further expanded. Researching previous studies shows only the form accuracy of quotations were emphasized, and education on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quotations have not been conducted.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conduct an analysis focusing on meanings and functions.

First of all, Chapter II revealed the concept and scope of quotations in terms of meaning and form, and explained various classification systems of quotations, and examined the most basic components and structures of quotations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Next,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quotations were examined by dividing it into indirect quotations and direct quotations according to the quotation format. And in the case of meanings and functions of indirect quotations, it was examined by dividing it into self-quotation, counterparty quotation, and third-party quotation according to the original speaker.

Chapter III used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a written text-type discourse completion task to investigate the usage patterns of the meaning and function of quotations by 40 Chinese middle-level learners and 40 high-level learners and 40 Korean native speakers.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analyzed in two aspects as follows. In the first aspect, in order to confirm and compare the acceptance of quotation of each target group, the frequency of use of quotations of each group was presented and the statistical meaning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was verified. In the second aspect, the inter-language patterns that learners show when completing the discourses were analyzed in depth. The pattern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grammar expression process as follows. ①The pattern with

omission of quotation coding due to deliberate avoidance or inadequate conceptualization. ②The pattern with non-systematic quotation coding. ③The pattern with sufficient conceptualization and systematic coding. The corresponding pattern was subdivid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auses were analyzed.

In Chapter IV, valuable education plans for quotation for Chinese middle-level and high-level learner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Chapter II and the learner's usage patterns of Chapter III. To this end, first of all, educational goals were set. The following educational contents were presented. Finally, educational methods that can be applied in the educational field were proposed.

Finally, Chapter V summarized the contents from Chapter I to Chapter IV. Then clarified the meaning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presented expectations for subsequent studies. In other word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ealt with indirect and direct quotations together, focused on meanings and functions rather than forms, examined proficiency variables, and analyzed inter-language patterns rather than error patterns. However, it is a pity that this study failed to analyze the actual spoken text through interviews or role plays, etc. It is hoped that they can be used to analyze more diversified inter-language patterns of learners more systematically in future studies on the usage pattern of quotation.

key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quotation, direct quotation, indirect quotation, meaning of quotation, function of quotation, inter-language, usage pattern

Student Number : 2019-27676